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A Study on Pre-planning to Establish Artifact Collec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엄운진 Um, Woonjin  
김종범 Kim, Jongbum

( a u r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A Study on Pre-planning to Establish Artifact Collec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지은이      엄운진, 김종범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2020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3,000원, ISBN:979-11-5659-311-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연구책임                      엄운진   부연구위원

! 연구진                         김종범   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어진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위원  
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원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연구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도시건축박물관 전문위원회)  
전숙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태형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카이브 팀장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원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기훈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학예연구사  
김민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중헌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충배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김혜영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학예연구사  
김혜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윤인향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학예연구사  
이성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학예연구사  
최종현   통의도시연구소 소장



---

본 연구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 수집의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2007년부터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박물관 기본계획·건립 타당성·전시의 주제와 콘텐츠 방향·건축설계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유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구체화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유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하고, 박물관 개관 이전에 시행될 수집행위에 대한 준비과정과 기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박물관에서의 유물과 아카이브는 박물관 운영주체에 의해서 제시되는 비전과 목표, 박물관의 인적 구성과 소관 위원회 등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박물관 운영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건립 및 운영 준비과정에서 검토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의 전반부에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현대의 박물관 운영사례와 박물관학에서 유물에 관한 의미를 정리하고,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운영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물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국내에는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박물관은 매우 드물어서 타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물수집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동산문화재와 구분되는 도시건축분야의 유물이 갖는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개관 이전까지 필요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협의 절차와 임시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구매'방식의 유물 확보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증 및 대여 등의 방식이 동시에 고려하여 수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과정에서 ‘유물’과 관련한 주요한 참고자료는 총 3가지이다. 첫째는 2015년 5월에 국토교통부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사업추진 방침이다. 이 자료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추구해야할 미션과 비전, 기능별 구상의 열개에 관하여 국토부 내 장관방침이다. 특히 도시건축박물관을 ‘국민의 도시건축문화 의식 함양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이자 국가적 거점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마련된 계획은 이후 진행된 다수의 연구와 부처 간 협의에서 박물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주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2016)이다. 이 연구는 국립박물관단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대주제를 가시화 등을 통하여 박물관의 향후 건립 청사진을 예측해보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셋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새건축협회의가 진행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2020)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 전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향후 수집될 유물과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진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KMUA) 국제 설계 공모’의 설계지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단계에 걸친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한 방침과 연구로 의미가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과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박물관 설립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그간의 논의과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0년 7월에 공표된 박물관 국제 설계 공모의 설계지침에 정리된 건축 개요와 전시 대주제를 현재까지 박물관에서 합의(Consent)된 사항이라 가정하여, 이에 기반을 둔 유물수집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내에 설립되는 최초의 도시건축분야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토교통부가 향후 운영주체로 예정된 기관이다. 국내에는 도시건축분야와 관련된 미술관 전시와 비엔날레를 통해 다양한 전시사례가 구축된 반면, 유물의 항구적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의 사례가 유물에 의존하지 않는 창작품(Contents)만으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100점 이상의 유물을 수장해야 하는 법적 요건 외에도 유물과 전시기획이 함께 진행해야하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 확보해야할 최소한의 유물의 개수 외에는, 역사계 박물관으로 설립할지 또는 미술관과 유사한 예술계 박물관으로 설립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제에는 KDI가 2015년에 수행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제시된 유물구입비 216억원 및 소장품 약

10,000점을 기준으로 유물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건축분야의 유물은 문화재청 소관의 동산문화재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의 소장품과 구별되는 유사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여기서 유사성은 현대 박물관이 갖는 유물의 범위가 소위 ‘소장품’으로 확대되면서 유물의 형태·재료에 국한된 가치평가만이 아니라, 확장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물의 다양한 주제와 매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된다. 특수성은 건축과 도시의 생산과 계획, 관리 측면에서 생성된 모형·도면·스케치 등 부산물은 통상 박물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물의 범주에 속하지만, 건축물의 부재·도시 경관·시민의 일상 등 유물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역사적 가치가 미술관과 유사하게 동시대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박물관과 전시관이 ‘자료’로서 통용하는 유물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박물관과 관련된 제도상에서 ‘유물’이 가치 중심의 ‘소장품’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정통적인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유물 소유주체가 이미 확보한 컬렉션을 잘 정리할 목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포함하여 현대의 많은 박물관은 박물관이 담고자하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관련 유물을 수집해야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서 개관 시 필요한 전시 등을 위하여 사전에 유물의 실체를 확보해야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개관 이전까지의 연차별 유물 수량을 산출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발전전시관 수장고 등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공간과 함께 유물구입비의 확보 및 집행을 위한 절차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도시건축분야 유물 구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물의 구매뿐만 아니라 경매·기증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각 방식의 유물확보 방식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 등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론의 끝으로는 건축분야와 도시분야의 잠정적 유물 대상을 목록화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방 소재 국공립 전시관 등에서 보유한 유물의 범주와 유물 관련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앞선 연구와 설계 공모를 통하여 정리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대주제를 유물로서 환원하여, 유물 수집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통해 그 목록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유물수집전략에 대한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수집 방식과 문화재청의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을 참고로 2021년에 수행할 유물수집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다수 박물관에서 근현대 건축

과 도시개발과 계획에 관한 유물과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비용과 절차를 참고로 서지류 및 모형류에 대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집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KMUA) 국제 설계 공모에서 제시된 박물관의 대주제와 소주제 중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의 3개 주제에 한정하여, 수집처와 수집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국토부와 행복청이 운영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시·건축의 통사 외에도 일상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공역사(Public History)측면에서의 수집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물의 역사적 가치 인정 범위를 잠정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시대로 제안하되, 개관 준비단계에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유물을 우선적인 수집대상으로 제안하였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 지어지는 첫 번째 박물관이다. 또한 그간 박물관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와 건축을 주요 주제로 하여, 역사의 전달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통·교육·조사기반 연구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어지는 최초의 기관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적인 박물관 건립 절차와 국내 행정여건상의 제약요건을 고려하되, 온전한 박물관 개관전시 개최를 계기로 기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유물분야는 그간의 다수의 연구에서도 직접 언급된 적이 없으며, 그 비중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이는 박물관 건립 여건상 컬렉션을 보고서의 발간 시점부터 약 4년 사이의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 유물의 확보는 이 기간 동안 운영주체인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절차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와 건축계 및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가치있는 유물의 기증운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주제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 아카이브, 소장품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 1) 연구 배경                                                                       | 1  |
| 2) 연구 목적                                                                       | 2  |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  |
| 3. 연구방법                                                                        | 4  |
| 4. 용어 정의                                                                       | 6  |
| 제2장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과정과 정체성                                                        | 9  |
|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과정                                                             | 9  |
| 1) 개요                                                                          | 9  |
| 2) 도시건축박물관 1차 구상 : 행복청,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auri, 새건설)  | 13 |
| 2.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도시건축박물관(2011년-2019년)                                             | 17 |
|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도시건축박물관 : 국토부 방침(2015.5.18.)                                      | 17 |
| 2)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을 위한 도시건축박물관의 방향성 구체화 :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 19 |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행복청, 2020)                  | 24 |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정체성(2020년)                                                        | 29 |
|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                                                          | 29 |
| 2) 사업추진 의사결정 체계 및 주요 논의사항                                                      | 33 |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기능별 공간구성                                                         | 38 |
| 4)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주제                                                              | 41 |
| 5)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 42 |
| 4. 소결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                                                         | 44 |
| 제3장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 준비 고려사항                                                     | 49 |
| 1. 개 요                                                                         | 49 |
| 2. 유물에 관한 개념 검토 및 사례                                                           | 50 |
| 1) 유물에 대한 개념                                                                   | 50 |
| 2) 유물에 대한 사례                                                                   | 57 |



|                                            |            |
|--------------------------------------------|------------|
| 3. 기존 박물관에서의 건축 및 도시분야 유물 사례               | 63         |
| 1) 건축분야                                    | 64         |
| 2) 도시분야                                    | 66         |
| 4. 유물수집 및 관리                               | 69         |
| 5. 예산을 고려한 유물 수량 검토                        | 75         |
| 1) 개요                                      | 75         |
| 2) 유물 확보 사례검토 (구매, 경매, 기증 등)               | 76         |
| 3) 개관 이전까지 추정 연차별 수량 산출                    | 79         |
| 4) 도시, 건축분야 유물의 특수성 고려                     | 81         |
| 5) 임시수장공간 검토                               | 82         |
| <b>제4장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 기획</b>                 | <b>85</b>  |
| 1. 개요                                      | 85         |
|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 86         |
| 3. 유사사업을 통한 사업추진방안 검토                      | 97         |
| 1) 근현대사 쟁점별 수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97         |
| 2) 유물로서 등재 가능한 목록 조사 :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 | 100        |
| 4. 2021년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안)        | 106        |
| <b>제5장 결론</b>                              | <b>111</b> |
| 1. 연구의 성과                                  | 111        |
| 2. 향후 추진방향                                 | 114        |
| 참고문헌                                       | 118        |
| SUMMARY                                    | 122        |
| 부록1. 국립도시건축박물관법(안)                         | 127        |
| 부록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 134        |
| 부록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컬렉션 검토                      | 143        |
| 부록4. 건축 및 도시분야 주요사건 중 유관기관 유물 목록 조사        | 167        |
| 부록5.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유형 사례 : 모두의 건축 소장품       | 176        |

|                                                  |     |
|--------------------------------------------------|-----|
| [표 1-1] 선행연구 검토                                  | 3   |
| [표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자료'의 정의            | 7   |
| [표 2-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과정                          | 11  |
| [표 2-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일정(안) 2015년 기준              | 18  |
| [표 2-3] 개관전시 프로그램 전체 구성(안)                       | 27  |
| [표 2-4] 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                     | 30  |
| [표 2-5] 2009년-2020년 도시건축박물관 주요 논의내용 비교 - 비전 및 목표 | 32  |
| [표 2-6]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문위원회 주요논의사항(2020년)        | 34  |
| [표 2-7]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위원회                      | 35  |
| [표 2-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 36  |
| [표 2-9]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변화                           | 44  |
| [표 2-10] 도시건축박물관 공간구성 및 주제 비교                    | 46  |
| [표 2-11] 2015년-2020년 도시건축박물관 주요 논의내용 비교          | 47  |
| [표 3-1]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 유형                          | 54  |
| [표 3-2] 도시건축박물관에서의 연구                            | 56  |
| [표 3-3] 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                            | 58  |
| [표 3-4] 일반동산문화재 미술분야 가치 판단 기준                    | 59  |
| [표 3-5] 국립항공박물관 박물관자료의 정의                        | 61  |
| [표 3-6] 국립항공박물관 및 국토발전전시관 유물 관련 공고               | 62  |
| [표 3-7] 국립항공박물관 박물관자료 및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의 가치 기준        | 62  |
| [표 3-8]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입 사례(2018년)                   | 77  |
| [표 3-9]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시점 수집방식별 예산배정액                | 79  |
| [표 3-10]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시점 연도별 유물수집 계획 및 배정 예산액      | 79  |
| [표 3-1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연차별 유물수집 수량 (2021년-2025년)     | 80  |
| [표 4-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구입비용의 추정 근거                  | 87  |
| [표 4-2] 국립박물관단자 내 타 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 유물구입비           | 87  |
| [표 4-3] 소주제별 수집처 및 수집방법                          | 90  |
| [표 4-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조사 가치체계 수립 단계                | 91  |
| [표 4-5]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개관시점의 주제, 키워드, 전시의 관계         | 94  |
| [표 4-6] 도시건축박물관 유물 가치 판단 기준                      | 95  |
| [표 4-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 쟁점 주제 학술연구 사례(2013년-2017년) | 97  |
| [표 4-8] 문화재청 근현대 건축·시설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11년-2020년) | 101 |
| [표 4-9] 문화재청 근대 동산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06년-2020년)     | 104 |
| [표 4-10]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주제 관계                     | 108 |
| [표 4-11]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 기획을 위한 유산연구                | 109 |

|                                                        |     |
|--------------------------------------------------------|-----|
| [표 4-12] 도시건축박물관 주제, 키워드, 관련기관 예시                      | 110 |
| [표 5-1] 도시건축박물관 유물 가치 판단 기준                            | 113 |
| [표 5-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연차별 유물수집 목표량 및 수집방식(안) (2021년~2025년) | 116 |
| [표 5-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 117 |
|                                                        |     |
| [표 부록-1] 컬렉션 후보와 적정성 평가                                | 144 |
| [표 부록-2] 행복도시건설과정 수집자료 정리 일정(안)                        | 147 |
| [표 부록-3] 우표로 본 박람회 건축물                                 | 149 |
| [표 부록-4] 우표로 본 한국건축                                    | 150 |
| [표 부록-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0주년-남기고 싶은 이야기-영상 목록 중 참석자        | 154 |
| [표 부록-6] 건축 및 도시분야 잡지류 현황                              | 157 |
| [표 부록-7] 국토부 도시분야 연간 행사 현황                             | 159 |
| [표 부록-8] 국토부 건축분야 연간 행사 현황                             | 159 |
| [표 부록-9] 한국건축 100년전 건축소장자료전 주요 유물                      | 161 |
| [표 부록-10] 한국건축 100년전 건축소장자료전 중 소장자료전 2(김정동 소장자료) 주요 유물 | 162 |
| [표 부록-11]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가기록원                      | 168 |
| [표 부록-12]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대통령기록관 소장자료                | 168 |
| [표 부록-13]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70 |
| [표 부록-14]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토발전전시관                    | 171 |
| [표 부록-15]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토연구원 소장자료                 | 173 |
| [표 부록-16]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소장처 종합 정리                    | 174 |
| [표 부록-17]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품 목록 - 전통 건축, 사물의 편린          | 179 |
| [표 부록-18]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품 목록 - 건축 현장, 창작의 흐름          | 181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                                                           |    |
|-----------------------------------------------------------|----|
| [그림 1-1]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예시_제주국제공항 기본계획보고서(1967)         | 5  |
| [그림 1-2] 시대별 컬렉션 전시 사례: MOMA 1960s Collection             | 8  |
| [그림 1-3] 작가별 아카이브 사례: MAXXI Inventari                     | 8  |
|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건립예정지                       | 13 |
| [그림 2-2] 도시건축박물관 단계별 발전계획                                 | 15 |
| [그림 2-3] 도시건축박물관 시설확장계획                                   | 15 |
| [그림 2-4] 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빙 기준에 따른 아카이브 특성                      | 16 |
| [그림 2-5] 국토부 방침에 따른 전시구상                                  | 18 |
| [그림 2-6]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 20 |
| [그림 2-7] 도시건축박물관의 역할                                      | 21 |
| [그림 2-8] 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개념도                                 | 22 |
| [그림 2-9] 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브 기본구상                                | 22 |
| [그림 2-10]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공간구성(2016년)                         | 23 |
| [그림 2-11] 도시건축박물관의 3대 비전                                  | 25 |
| [그림 2-12]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과 6개의 전시 대주제                         | 26 |
| [그림 2-13] 개관 전시프로그램(안) - 기관 비전 및 대주제 간 관계도                | 27 |
| [그림 2-14]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면적표                                 | 28 |
| [그림 2-15]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 31 |
| [그림 2-16]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사업추진체계 및 주체                           | 37 |
| [그림 2-17]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 38 |
| [그림 2-18]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 39 |
| [그림 2-19]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면적 배분표                              | 40 |
| [그림 2-20]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공간 구상을 위한 주제                       | 41 |
| [그림 2-2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 43 |
| [그림 3-1] 유물수집과 아카이브수집의 개념 변화                              | 50 |
| [그림 3-2] 박물관학에서의 콘텐츠                                      | 51 |
| [그림 3-3] de Varine의 New Museology에서의 Museum Object의 개념 변화 | 52 |
| [그림 3-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 59 |
| [그림 3-5]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시스템 웹사이트                             | 63 |
| [그림 3-6] 건축계획 유물사례(e뮤지엄)                                  | 65 |
| [그림 3-7] 건축설계 유물사례(e뮤지엄)                                  | 65 |
| [그림 3-8] 도시계획 유물사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67 |
| [그림 3-9] 도시설계 유물사례(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설계보고서)                      | 67 |
| [그림 3-10] (좌)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건축 소장품展> 포스터, (우) 전시사례         | 68 |
| [그림 3-11]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의 문화재(동산) 구입 흐름도                 | 70 |

|                                                  |     |
|--------------------------------------------------|-----|
| [그림 3-12]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의 문화재(동산) 수증 및 감정평가 흐름도 | 73  |
| [그림 3-13] 경매를 통한 유물 사례(최소영, 부산영도다리)              | 78  |
| [그림 3-14] 건축소장품의 특수성 사례(모형·모바일렉 관리 사례)           | 81  |
| [그림 3-15] 국토발전전시관 수장고(위 : 1수장고, 아래 : 2수장고)       | 83  |
| [그림 4-1] 도시건축박물관 유물의 역사적 가치 인정 범위                | 89  |
| [그림 4-2] 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과 전시설계(콘텐츠)와의 관계도            | 92  |
| [그림 4-3] 개관 전시프로그램(안) - 기관 비전 및 대주제 간 관계도        | 93  |
| [그림 4-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 주제별 분류체계           | 99  |
|                                                  |     |
| [그림 부록-1] KBS한국방송 - 한반도통일디자인                     | 154 |
| [그림 부록-2] 김석철, 한반도희망프로젝트 브로셔                     | 154 |
| [그림 부록-3]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책자 표지                  | 156 |
| [그림 부록-4]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책자 표지                  | 156 |
| [그림 부록-5] 「한국의 현대건축, 건축가」, 「한국현대건축공람·건축가」 표지     | 166 |
| [그림 부록-6] 「건축장인의 땀과 꿈」 도록 표지                     | 166 |
| [그림 부록-7] 「한국건축 100년」 도록 표지                      | 166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최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유물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1차적으로는 2021년도에 유물수집과 관련한 예산으로 예비수장고 확보·유물수집·유물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시건축박물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추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운영방안 모색 등 박물관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국토부는 2019년 12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로 전숙희 건축사를 위촉하였다. 공공건축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완공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건립예산과 관련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였고, 국립박물관단지사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박물관투어·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립박물관단지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7년 국제공모를 통하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국립박물관단지사업은 국내 최초로 개별 박물관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사례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립박물관단지 내 관련부처는 국토부(도시건축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디자인박물관), 행정안전부(국가기록박물관),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관), 어린이박물관(행복청) 등이다.

그동안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하여서 전시, 유물수집과 관련한 콘텐츠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연구결과로만 제시되었을 뿐 관련 예산확보 등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반면, 2020년에는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관여되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사이의 정책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건립(하드웨어)은 행복청(공공건축추진단 박물관센터)에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소프트웨어)은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가 담당부서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다.

운영주체인 국토부는 2020년부터 운영준비를 시작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유물수집, 전시품 관련 예산 확보, 전담 팀 운영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는 국토발전전시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례 등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21년 국토부가 추진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 전략 마련’에 앞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사전기획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거나 도출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여 향후 진행될 유물수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핵심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유물수집전략 마련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사전에 문화시설의 운영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 국토부, 전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고, 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진행 과정에서 박물관의 성격·기능·공간 구성 등이 논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 및 도시분야를 고려한 ‘유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유물과 혼용되고 있는 소장품·아카이브·기록물·콘텐츠 등과 구분 짓는다. 이로써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명확한 범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표 1-1]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구 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1          | -과제명: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2020)<br>-연구목적: 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에 대한 구체화된 설명                                        | -전시 시뮬레이션을 위한 협력 연구<br>* 새건축사협의회<br>-인식조사<br>-홍보영상 제작<br>-전문가 자문단 및 소자문 회의, 리서치 포럼 운영 |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과 주요 콘텐츠 (건립필요성, 비전, 대상과 범위, 콘텐츠 구축방향)<br>-도시건축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전시방향, 전시대주제, 세부 전시프로그램)<br>-도시건축박물관 건축설계 기본방향 (마스터플랜과 도시건축박물관, 특화설계 기준, 건축설계지침 작성 기준 등) |
|            | -과제명: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19)<br>-연구목적: 건축 아카이브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br>-국내외 사례 비교 · 검토                                               | -개별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 검토<br>-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상<br>-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의 구축 프로세스 및 활용 방안                                                                                    |
|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2016)<br>-연구목적: 수집, 관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 및 매뉴얼 활용             | -국내외 아카이브 매뉴얼 사례조사 및 정리<br>-기록관리 단계별 사례조사<br>-관계자 자문회의                                |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선행연구 검토<br>-건축기록물 수집방안<br>-건축기록물 정리 및 관리 방안<br>-건축기록물 수집,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
| 3          | -과제명: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2016)<br>-연구목적: 국립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 차별화 방안 및 건축계획 요소 도출 | -문헌조사<br>-전문가 의견 수렴<br>-국내외 사례조사                                                      | -도시건축박물관의 기능·역할 정립<br>-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기본구상<br>-중장기 콘텐츠 확보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br>-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본구상<br>-도시건축박물관 운영방안<br>-도시건축박물관 개관준비 프로그램 기획                                    |
|            | -과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br>-연구목적: 유물수집 전략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 -문헌연구<br>-현장조사<br>-시범사업                                                               | -기 논의된 주요사항 검토<br>-수집대상 유물의 주제방향 설정<br>-수집 사례분석을 통하여 유물수집 단계에 준비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
| 본 연구       |                                                                                                                 |                                                                                       |                                                                                                                                                                    |



본 연구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의 현실적 실현 방안을 고려하고 연구의 결과로서 실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방향에 대한 대국민·전문가·관계부처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유물수집전략을 기획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일환으로 유물 구매 및 시범사업 등을 계획·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유물수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행 결과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분**된다.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2019)’은 유물 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아카이브를 위하여 관련 기관 소장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2016)’은 기록관리학적 관점에서 수집대상물을 건축기록물로 설정하고 수집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 3.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도시건축박물관 추진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추진과정 정리 및 주요 이슈 검토
- 기존 신규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유물수집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유물수집 추진전략 문헌 검토

#### □ 국토부 공공건축가, 전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

- 국토부 공공건축가는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였고, 공공건축가의 추천으로 건축, 도시, 전시,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위원회에 자문

####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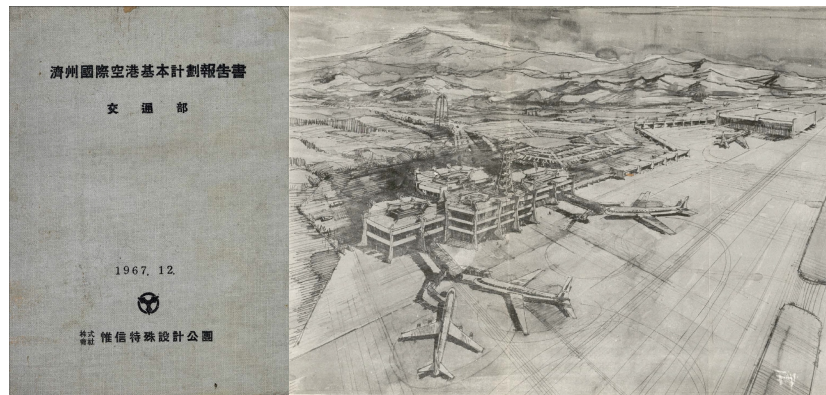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전시 및 유물과의 관계, 유물수집 자체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 진행
  - 국토발전전시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목천 김정식문화재단, 서울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

## □ 관련기관 협력 시범사업 기획

- 소장처와 시범사업 기획을 통한 기관 협력사업을 통한 수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진행
- 건축 및 도시분야 연구보고서 소장 기관 (공공기관)
  - 대통령기록관, 국토연구원 자료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실, 국토발전전시관, 서울시건축센터 아카이브 등
  - 도시건축박물관의 기본적인 대상으로 언급되는 건축, 도시분야의 각종 기본 계획·건설보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방안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사전 여건 검토

### ※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사례(예시)

- 국토연구원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의 '2019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디지털화하여 2019년에 총 2,000권을 공개하여 서비스 중<sup>1)</sup>
- 개관시점 이전에 소장되는 자료에 대해서 디지털화 지원사업, 혹은 디지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모델로 활용 가능
- 대부분의 소장품은 자료실, 도서관 등의 관점<sup>2)</sup>에서 제목, 발행처 정보와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해제작업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 1-1]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예시\_제주국제공항 기본계획보고서(1967)

출처: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RRR000003622649?metsno=000000028507&fileid=M000000028507\\_FILE000002](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RRR000003622649?metsno=000000028507&fileid=M000000028507_FILE000002) (검색일: 2020.5.18.)

1) 국립중앙도서관, 「2019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참여기관 모집」 안내, <https://nl.go.kr/NL/contents/N50601000000.do?schFld=0&schStr=%EB%94%94%EC%A7%80%ED%84%B8%ED%99%94&schM=view&page=1&ordFld=regdt&ordBy=DESC&viewCount=10&id=35662&schBdcode=&schGroupCode=> (검색일: 2020.5.18.)

##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립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현재에도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선행연구와 행정에서 혼용하였던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추진될 건축 및 전시 설계, 유물의 실제 수집 단계에서 사용될 용어를 제안한다.

### □ 유물(遺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전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의미한다.<sup>3)</sup>

### □ 도시건축, 도시와 건축

본 연구에서 ‘도시건축’은 ‘도시와 건축’을 의미한다. 서술상 도시건축이 언급될 때에는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건축과 도시’로 표현하였다. ‘도시건축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지칭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하여서 진행되었던 최초의 연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도시건축박물관 앞에는 (가칭)이라고 명시하였다. 영문은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에 사용되었던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를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연구 및 사업추진 과정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추후 용어의 적정성은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 □ 롱리스트(Long List)

롱리스트는 국토부에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속희 공공건축가에 의해서 제안된 용어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박물관에서 전시 및 유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잠정적인 목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물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의 목록으로 정의하였다.

---

2) 도서관적 관점이란, 도시건축박물관에서 수집 가능한 유물의 대다수는 보고서 등 책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과 관련하여서는 수집될 대상의 목록과 정보의 정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9329](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9329) (검색일 : 2020.5.12.)

## □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유물과 가장 유사한 용어는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이다.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는 ‘박물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표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자료’의 정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의 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 □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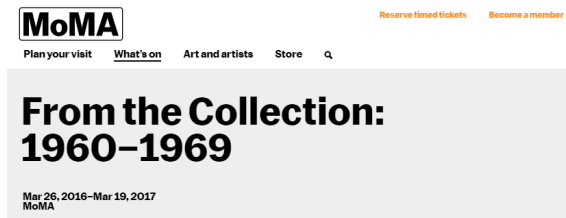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가 “가치가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면,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및 접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컬렉션(Collection)

컬렉션은 사전적의미는 수집품이나 소장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소장품들의 그룹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물관의 성격이 예술, 과학, 자연사, 문화사 등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컬렉션의 유형도 달라진다.<sup>4)</sup> 한국에서 통상적 박물관의 의미로 쓰이는 역사계 박물관은 ‘특정 시대를 컬렉션’으로 삼거나, ‘기증자의 유물’을 컬렉션으로 만든다. 반면 미술계 박물관은 예술품의 ‘특정 사조’ 또는 작가의 컬렉션을 갖기도 한다. 한국의 미술계 박물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정기용 컬렉션>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국립현대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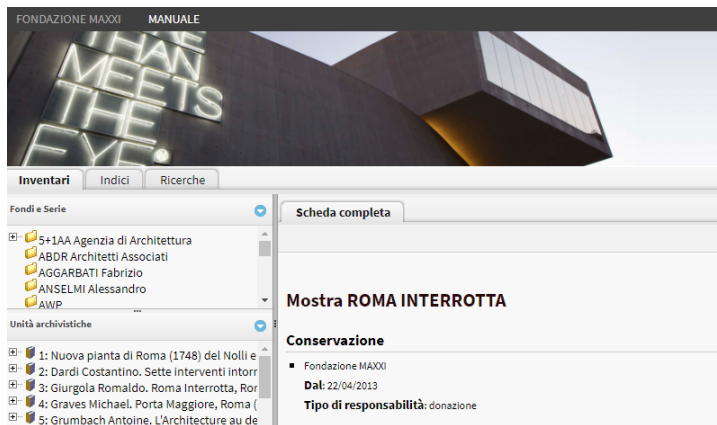
4) E.Verner Johnson, Joanne C. Horgan(1979), 「Museum Collection Storage」, UNESCO, p11.

관의 기관 목표 가치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건축가별 컬렉션이다, 따라서 컬렉션은 박물관의 박물관학적 가치(Museality)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컬렉션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림 1-2] 시대별 컬렉션 전시 사례: MOMA 1960s Collection

출처: MOMA,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1624> (검색일: 2020.10.25.)



[그림 1-3] 작가별 아카이브 사례: MAXXI Inventari

출처: Maxxi, [http://inventari.maxxi.art/AriannaWeb/main.htm?sessionid=CD3702EBCE233B82906F0FAEB94F77#152433\\_archivio](http://inventari.maxxi.art/AriannaWeb/main.htm?sessionid=CD3702EBCE233B82906F0FAEB94F77#152433_archivio) (검색일: 2020.9.25.)

최근 ‘소장품 없이’ 개관하는 박물관이 증가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박물관에서 유물을 통해 ‘역사’를 전시했던 경향이 현대적 개념이 박물관에서는 공공 역사(Public History)차원에서 ‘기억’으로 대체되는 점은 박물관에서 유물 중심의 컬렉션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sup>5)</sup> 한국의 국립도시건축계와 같이 기존에 타기관이나 협회, 학회 등에서 소유한 ‘기존 컬렉션(Existing Collection)’이 없는 경우, 박물관 설립 단계에서 컬렉션을 통한 박물관 정체성 확립은 불가하다. 따라서, 유물 외에 별도의 방식으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박물관이 수집하는 소장품의 범위가 20세기 이후 현대사에 집중한다면 컬렉션 구축의 필요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5) Ilaria Porciani(2016), “공공역사와 박물관 : 복합적 관계”, 『현대사광장』 제8호, p126-127.

---

## 제2장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과정과 정체성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과정
  2. 국립박물관단지와 도시건축박물관(2015~2019)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정체성(2020년)
  4. 소결
- 

###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과정

#### 1) 개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추진과정은 ‘연구’, ‘정책’,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의 성과와 정책의 반영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연구’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sup>6)</sup>된 것 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책’은 연구결과를 참고하되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다만,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독립적인 연구가 아니라 당시의 주요논의 사항을 담은 결과물로도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 및 정책과 별도로 ‘사업’은 설계공모 진행, 개발계획 변경 등 도시건축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첫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추진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차원의 문화기반시설로 독립 적으로 다루어진 시기(2007~2010), 2단계는 국립박물관단지로 통합하여 다루어진 시기(2011~2018), 3단계는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화된 시기(2019~)이다.

---

6) 본 연구에서의 연구란 건립주체인 행복청과 운영주체인 국토부에서 발주하거나 수행하였던 내용을 중 ‘국립박물관단지’ 및 ‘도시건축박물관’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과제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 및 도시분야 아카이브관련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검토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다.

1단계에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6.6.15.)에서 우수 건축문화에 대한 기술정보센터, 전시관, 교육 및 체험관 기능한 담당하는 ‘건축도시문화관’ 건립이 행복 도시에 건립이 제시된 것이었다<sup>7)</sup>. 2006년 기본구상 검토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실무 간담회, 자문위원회 개최 및 T/F구성 및 운영 등이 진행되었다.<sup>8)</sup> 이후로 「행정중심복합 도시(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연구」(auri, 새건설) (2007.11~2009.2)가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LH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관 재정악화로 건립이 보류되었다. 다만, 행복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도시건축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반영되었다.

2단계는 2011년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추진계획, 2012년 차관급 협약을 통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추진된다.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배치되었던 박물관을 중앙공원 부지 내에 박물관단지로 사업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행복청에는 건립추진TF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국립박물관단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수립과 관련한 국제공모와 당선작 선정 그리고 이와 연계한 박물관 단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한 연구는 2015년에 「도시건축박물관콘텐츠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를 통해서 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과 연계하여 박물관에 관한 구체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건립시설로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되었다.

3단계는 2차 건립시설 실행을 위하여 행복청에서는 박물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박물관 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7)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6.6.15.), 보고 및 토론회자료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안), p26.

8)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11.15.), 제4회 회의자료, p37.

9) 국토연구원(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241.  
“도시건축,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등은 중심행정타운 및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중앙 녹지공간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행정타운 국제공모’ 실시결과 당선작을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p261.  
“중합 박물관미술관은 도시건축, 역사민속, 국가기록박물관, 대통령기록관 등의 세부종류를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고 부지규모는 유사도시의 박물관미술관 사례를 고려하여 개소당 20,000㎡~50,000㎡로 계획”



[표 2-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과정

| 시기                                                              | 주요사항                                                                                                                                                               |
|-----------------------------------------------------------------|--------------------------------------------------------------------------------------------------------------------------------------------------------------------|
| <b>[1단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문화기반시설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시기(2007~2010)]</b> |                                                                                                                                                                    |
| 2006.6.15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전략 중 '건축도시문화관건립' 제안                                                                                                                                   |
| 2007.2                                                          | [연구]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수립 연구」(국토연구원) <sup>9)</sup><br>- 도시건축박물관이 제안되었으나 입지는 결정하지 않음                                                                                |
| 2009.1                                                          | [사업][정책] 행복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sup>10)</sup> 에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계획 반영<br>- 위치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부지로 결정                                                                |
| 2009.2                                                          | [연구] 행복청,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연구」<br>(auri, 새건협) (2007.11~2009.2)<br>[사업][정책]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과정에서 재정악화로 건립 보류                             |
| <b>[2단계 : 국립박물관단지로 통합 시기(2011~2018)]</b>                        |                                                                                                                                                                    |
| 2011.3                                                          | [정책] 행복청 5개 박물관 집적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추진계획(안) 마련                                                                                                                       |
| 2011.7~12                                                       | [연구] 행복청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건축가협회 컨소시엄)                                                                                                                   |
| 2012.6                                                          | [정책]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차관급 협약서 체결<br>- 국토부 1차관, 행안부 1차관, 문화부 1차관, 문화재청 청장, 행복청 청장<br>- 행복청 부지매입·건설 주관, 그 외 기관 개별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및 운영<br>- 초기 사업대상 부지는 현재, 박물관단지로 변경 |
| 2013.6~<br>2015.2                                               | [연구]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KDI)<br>- 단지화 사업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한 검토가 아닌 개별박물관별 B/C 등이 진행                                                                                   |
| 2015.                                                           | [정책] 국립박물관단지건립추진 TF구성, 운영<br>- 행복청 내에 관계부처에서 담당자를 파견하여 업무추진<br>- 관계부처 과장이 참여하는 총괄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
| 2015.5.18                                                       | [정책] 국토부 방침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추진방안                                                                                                                                    |
| 2015.10~2016.8                                                  |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auri)<br>-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 개발과 박물관 단지 내 타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
| 2016.3.~2017.2<br>2016.11                                       | [연구]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사업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관리」 (auri)<br>[사업]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 Office OU + 정림건축                                                                |
| 2016.                                                           | [연구]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시설 특화 및 운영 차별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16~2018.                                                      | [사업]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센터 설계                                                                                                                                            |
| 2017.                                                           | [연구]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를 위한 배치형태기준 및 분야별 설계 기준 등에 관한 용역」(정림건축)                                                                                                 |
| 2017.                                                           | [연구] 행복청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활성화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시기                                          | 주요사항                                                                                                                                                                                                                                                                                                                                                                                                             |
|---------------------------------------------|------------------------------------------------------------------------------------------------------------------------------------------------------------------------------------------------------------------------------------------------------------------------------------------------------------------------------------------------------------------------------------------------------------------|
| <b>[3단계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본격화 (2019~현재)]</b> |                                                                                                                                                                                                                                                                                                                                                                                                                  |
| 2019~2020                                   | <p>[연구] 「박물관 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 (국민대 산학협력단)</p> <p>[연구] 행복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auri, 새건설)</p>                                                                                                                                                                                                                                                                                                    |
| 2019.12.20                                  | <p>[정책] 국토부 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 선정 : 전숙희 건축사</p> <p>- 25년까지 박물관 건립 및 전시부문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p>                                                                                                                                                                                                                                                                                                             |
| 2020.                                       | <p><b>[사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 설계공모</b></p> <p>-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5월~11월)</p> <p>-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11월)</p> <p>[연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 설계공모 관리 용역(auri)</p> <p>[정책] 국토부</p> <p>- 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5월~)</p> <p>- 개관준비를 위한 준비팀 신설 및 전문 인력 확보 추진 중</p> <p>- 유물수집 및 전시계획 예산 확보 추진</p> <p>[법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1.27. 의안)</p> <p>[사업]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센터</p> <p>- 2020년 11월 착공, 2023년 상반기 개관 예정</p> |
| 2021 (예정)                                   | <p>[사업]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설치 용역</p> <p>[사업]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전문가 컨설팅</p> <p>- 개관준비를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p> <p>[사업] 행복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 완료 (12월)</p>                                                                                                                                                                                                                                                                 |

출처: 연구진 작성 \* 파란색 표기는 국립박물관단지, 볼드 표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19년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예산이 확보되면서 국토부에서도 운영준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숙희 건축사를 공공건축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도시건축박물관 관련 주요 정책방향은 국립박물관단지 일대로 사업성격이 변화된 이후로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국토부 장관방침, 2016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sup>11)</sup> 그리고 최근에 2019~2020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sup>12)</sup>이다. 2015년 당시는 국립박물관단지가 건립과정에서 국토부의 기본방향에 대한 방침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진행되었다. 2020년 행복청 연구는 가장 최근에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관한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 도시건축박물관 1차 구상 : 행복청,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auri, 새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는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2009년 2월에 완료되었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사업실행이 보류되었으나 도시건축박물관의 적정 규모와 프로그램 등이 최초로 제시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당시 제시되었던 연구자료는 2013년부터 진행된 박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건축규모,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건립예정지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09.2.),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p3.

### ① 미션 및 비전

#### □ 목적

박물관 목적으로 첫째, 일반시민의 도시건축문화수준의 향상, 둘째, 한국 도시건축의 위상 제고,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의 극대화, 넷째, 국가차원의 도시건축기록물 보존연구가 제시되었다.<sup>13)</sup>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한국의 건축 및 도시분야를

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09.2.),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p83.

세계에 홍보하며, 특히 박물관이 위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제시된 건축 및 도시분야에 대한 기록물 보존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도시분야에 대한 기록물이 보존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건축 및 도시분야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성격

도시건축분야의 복합문화공간, 도시건축분야의 전문연구시설, 시민 및 전문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국제 학술문화교류의 중심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한국 도시건축의 마케팅중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민문화공간, 지자체 유관시설의 네트워크허브 등으로 제시하였다.<sup>14)</sup>

## ② 추진체계

연구는 행복청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였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책임 : 유광흠, 오성훈)와 새건축사협의회(책임 : 박철수)가 수행하였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 ③ 기능별 구상

아카이브, 연구, 전시, 교육, 홍보, 교류별 기능구상에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와 연계하여서 전시 및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전시기획

전시는 도시부문, 건축부문, 행정도시 3가지 부문으로 제시하였다. 도시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상설전시로는 3개의 주제로 국내 신도시건설의 역사, 동양도시계획사의 흐름과의 비교, 서양도시계획의 흐름과 접점으로 설정하였다. 기획전시로는 대규모도시계획에서의 인프라시설, 통계 및 지표로 본 도시, 한국도시의 정체성 등을 제시하였다.

건축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상설전시로 ‘도시구조와 건축의 융합’, ‘사회상이 반영된 공공 건축’, ‘도시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건축’을 제시하였다. 기획전시로는 건축가와 건축사사무소, 아시아의 현대건축, 현대 세계건축담론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도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행정도시개념의 형성 과정’, ‘행정도시 개발의 진행과정’, 을 제시하였다.

---

14) 전게서, p89~95.

## □ 공간구성체계

공간구성체계 및 운영프로그램 분석을 위해서 해외의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4개 사례는 네덜란드 건축관, 21세기 국립예술박물관,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 캐나다 건축센터이다.



[그림 2-2] 도시건축박물관 단계별 발전계획

출처: 전계서, p313.

## □ 시설확장계획

4단계에 걸쳐서 확장하는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는 홍보 및 기획전시(컬렉션 및 아카이브 착수)를 시작으로 2단계에는 상설전시 및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3단계에는 컬렉션 및 아카이브를 확장하고 최종 단계에는 연구센터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초기단계부터 과도한 시설이나 전문성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목표설정정보다는 단계별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었다. 각 단계별로는 해외의 주요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2-3] 도시건축박물관 시설확장계획

출처: 전계서, p478.

## □ 아카이브

장기발전 전략으로는 ‘(가칭) 국가 건축도시 아카이브 사업과 연계’, ‘국제적 수준의 아카이브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카이브를 위한 3가지 방향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공공서비스가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의 기록을 위한 필요’, ‘(가칭)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의 질적 수준 확보의 기반’ 등이 제시되었다.<sup>15)</sup>

국가기록원 등의 공공기록물과 같이 공공사업, 도시개발 정책 수립 과정에 기록물을 제공,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당시 박물관 건립 목표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박물관의 공유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중점 아카이브 대상에서는 수집대상 및 수집목록도 잠정적으로 제시하였다.<sup>16)</su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건축 및 도시분야를 고려하여 예술적, 건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아카이브와 시대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아카이브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4] 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빙 기준에 따른 아카이브 특성

출처: 전계서, p236.

15) 전계서, p235-236.

16) 전계서, p247-266.

## 2.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도시건축박물관(2015년-2019년)

2011년 정책차원에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박물관단지화를 위한 기본구상이 검토되었고 2012년 6월 관련부처 차관급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박물관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으로 박물관단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5년에 행복청에 국립박물관단지건립추진TF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국토부의 사업추진관련 방침이 마련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도시건축박물관 : 국토부 방침(2015.5.18.)

2015년, 국립박물관단지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방침이 마련되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국토부 내부자료가 작성되었으나, 이 자료는 국토부장관 방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① 미션 및 비전

미션 및 비전은 문화적 기능과 관련분야의 경제적 기능에 효과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도시건축박물관을 국민의 **도시건축문화 의식 함양**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이자 국가적 거점시설로 조성”

#### ② 추진체계

- 국토부 : 전문가 TFT 구성 및 운영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으로는 건축정책관, 도시정책관 그리고 과장급으로 건축문화경관과장으로 구성
  - 민간부문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정곤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학회 추천한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
  - 주요 전시주제 및 설계공모 시 반영될 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 및 성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진행

- 행복청 : 국립박물관단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국립박물관단지 설계공모 추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전체계획 수립
  -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립 박물관단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2.6 .차관급 MOU를 근거로 '박물관단지건립추진단'을 조직, 운영

[표 2-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 일정(안) 2015년 기준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행복청 | 건설           | TF조직<br>단지계획<br>예산확보 | 단지설계<br>건축설계                        | 착공                   | 공사                                         | 준공   | 시설인계              |      |
|     | 전담조직         | 건립TF<br>(5개부처, 10명)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추진단 (직제반영)<br>(5개부처, 50명) |                      |                                            |      |                   |      |
| 국토부 | 전시소장품<br>확보  | 조사용역                 | 수집홍보                                | 수집                   | 수집                                         | 수집   | 수집                | 수집   |
|     | 전시 및<br>운영준비 | 전시기획용역               | 전시설계<br>(건축설계<br>에 반영)              | 박물관<br>운 영 방<br>안 확정 | 박물관 운영 세부<br>시행계획<br>(전시·연구·교육·<br>시설관리 등) |      | 개관준비<br>및<br>시범운영 | 개관   |
|     | 전담조직         | 건축문화경관과<br>(겸무)      | 도시건축박물관팀<br>(경관과 소속 전담팀)            |                      | 도시건축박물관운영과 조직<br>(직제반영)                    |      |                   |      |

출처: 국토부 내부자료

### ③ 기능별 구상 및 전시주제

도시건축박물관의 기능은 전시공간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고유 성과 관련한 유물, 교육 기능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2-5] 국토부 방침에 따른 전시구상

출처: 국토부 내부자료



- 상설전시관
  - (도시건축역사관) 시대별 흐름에 따라 도시건축 공간 및 문화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설명하고 세계 주요국가와 특성을 비교
  - (도시건축미래관) 도시와 건축공간에 미칠 새로운 변화요인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 도시건축공간의 모습을 가시화
  - (통일한국관) 현재의 남북 도시건축을 비교하고, 남북 통일 후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토·도시공간 및 건축공간의 미래상을 제시
  - (체험관) 일반인과 전문가 눈높이에 맞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체험프로그램 마련하되 일반 관람객에 대한 핵심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예시) 도시건축의 기초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개념 등/ 도시건축 형성과정-도시계획, 도시개발, 경관형성 등
  - (전문정보관) 관련분야 학생, 전문가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정보 전시
- 기획전시관
  - 다양한 국내외 도시건축 이슈 전시

## 2)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을 위한 도시건축박물관의 방향성 구체화 :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2015년에는 국립박물관단지의 국제공모가 개최되었다. 박물관단지를 총괄하는 행복청은 개별박물관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 개별 박물관의 콘텐츠와 건축단계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마스터플랜 차원이었기 때문에 개별 박물관의 구체적인 사항이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1차적인 자료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규모와 성격의 틀 속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행복청에 제시하여 설계공모 지침 등에서 제시되었다.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건축박물관의 구체화된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주요한 이슈로는 통합수장고와 개별박물관의 관계 설정이 첨예하였다. 단지 내 통합센터 및 통합수장고가 별도 운영기관에서 관리되고 박물관의 유인책인 어린이박물관도 별도로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 개별 박물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 임시수장고, 특화된 유물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수장고에는 보물급의 유물만 보관되고 대다수의 소장 자료가 전시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전략이 고려되었다.



## ① 미션 및 비전

### □ 미션 및 비전<sup>17)</sup>

앞서 방침에서 제시되었던 “도시건축박물관을 국민의 **도시건축문화 의식 함양**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이자 국가적 거점시설로 조성”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도시건축 이해와 문화의 성장을 이끄는 국립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설정하였다. 산업 활성화 보다는 이해와 문화를 중심으로 박물관의 기능인 전시, 아카이브, 교류, 교육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전시) 도시건축의 발전과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의 창
- (아카이브) 도시건축 정보와 자료가 기록되고 축적되는 보고(寶庫)
- (교류) 국내외 도시건축 기관과 학술 교류의 플랫폼
- (교육) 다양한 도시건축 체험과 소통의 마당
- (위치) 현대 도시건축의 선도도시, 세종시 문화창조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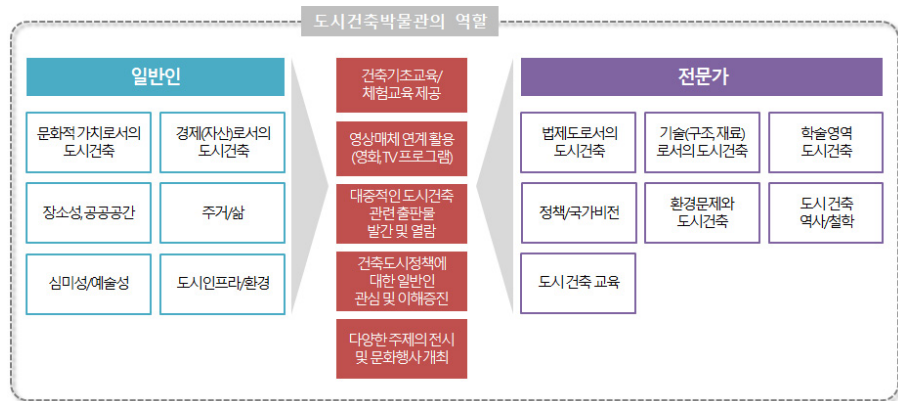
[그림 2-6]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3.

17) 미션과 비전은 앞선 2015년의 국토부 방침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사항을 확정하였다.

## □ 역할 : 일반인과 전문가 소통의 장

도시건축박물관의 역할은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 기초교육/체험교육제공, 영상매체 연계 활용, 대중적인 도시건축 관련 출판물 발간 및 열람, 건축도시정책에 대한 일반인 관심 및 이해 증진, 다양한 주제의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2-7] 도시건축박물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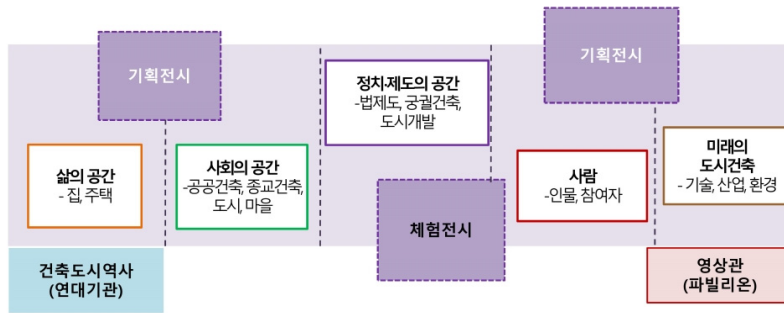
출처: 전계서, p48.

## ② 기능별 구상

### □ 전시기능

전시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연대기관과 주제관이었다. 2015년 방침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관으로 일반적인 박물관의 시대별 전시공간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논의과정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 연대기적 전시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청되었다. 조율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서의 연대 기관, 5개의 주제에 따른 주제관이 대략적인 역사적 틀 속에서 이해되도록 제시되는 것이었고, 매체와 관련한 영상, 체험관이 별도로 제시되었다.

주제는 삶의 공간, 사회의 공간, 정치·제도의 공간, 사람, 미래의 도시건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초기에 건축과 도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부문별로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전시의 주제에 따라 건축, 도시 각 분야가 강조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시설유형, 계획가, 시공자 등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대주제를 제시하는 틀로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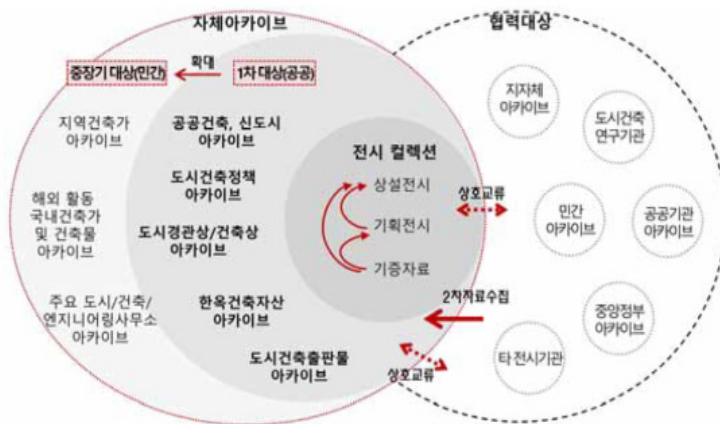


[그림 2-8] 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개념도

출처: 전개서, p103.

## □ 아카이브 기능

전시 콘텐츠를 위해서는 아카이브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었다. 기관의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체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유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획전시를 통해서 상설전시를 채워나가는 ‘전시컬렉션’을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1차 대상 자료는 공공부문의 자료로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건축 정책자료, 공공건축 및 주요 건축상 및 경관상 수상작, 도시건축 관련 전시 및 출판 자료 등이 검토되었다. 기증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민간부문에서 건축, 도시 분야의 정부정책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건축박물관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그림 2-9] 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브 기본구상

출처: 전개서, p61.

공간구성에 대한 방향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건축박물관의 적정한 모델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었다.<sup>18)</sup> 유사사례별 기능별 면적 등을 통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의 규모,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한 기능별 적정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규모 대비 기능별 배분의 적정성이 검토되었고 당시 제시되었던 기능별 배분은 [그림 2-6]과 같이 제시되었다. 당시 결과는 국립박물관단지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되었다.

| 구분           | MAXXI<br>(이탈리아)     | Cite'<br>(프랑스)      | 구. NAI<br>(네덜란드)   | CCA<br>(캐나다)         | 서울역사<br>박물관         | 국립현대<br>미술관<br>(서울관)  | 국립아시아<br>문화전당<br>(문화정보원) | 도시건축<br>박물관        |
|--------------|---------------------|---------------------|--------------------|----------------------|---------------------|-----------------------|--------------------------|--------------------|
| 전시공간<br>/연면적 | 11,291㎡<br>/23,816㎡ | 11,230㎡<br>/22,600㎡ | 1,800㎡<br>/13,345㎡ | 2,537 ㎡<br>/14,900 ㎡ | 6,501㎡<br>/20,882 ㎡ | 10,451 ㎡<br>/52,125 ㎡ | 10,789㎡<br>/21,386 ㎡     | 8,121㎡<br>/17,050㎡ |
| 전시실<br>비율    | 44.71%              | 43.58%              | 17.95%             | 18.2%                | 31.13%              | 20.05%                | 50.45%                   | 47.63%             |
| 비고           | 기획전시<br>중심          | 상설전시<br>중심          | 수장<br>중심           | 연구<br>중심             | 상설·기획<br>(2:1)      | 기획전시<br>중심            | 아카이브<br>전시               |                    |

| 공간구성   | 세부시설                                                                            | 면적(㎡)  |
|--------|---------------------------------------------------------------------------------|--------|
| 합계     |                                                                                 | 17,050 |
| 전시시설   | (전시) 상설전시(건축도시역사관, 5개 주제전시관),<br>영상관(파빌리온), 중앙홀                                 | 8,121  |
| 수장시설   | 임시수장고, 모형복원 수복실                                                                 | 349    |
| 교육시설   | (연구) 아카이브센터, 방문연구자 연구실<br>(교육) 세미나실, 체험공방실 등                                    | 1,590  |
| 사무시설   | (사무) 관장실, 학예사무실, 회의/세미나실, 다목적실, 자료실<br>등                                        | 1,449  |
| 편의시설   | (편의) 카페, 뮤지엄숍, 카페테리아, 물품보관소 등<br>(지원) 관람안내원실, 자원봉사자실 등<br>(공용) 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 4,092  |
| 유지관리시설 |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 1,449  |

[그림 2-10]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공간구성(2016년)

출처: 전게서, p109.

18) 다만, 구체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2014년의 KDI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었다. 개별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단지의 조성에 따른 상호 연계효과, 예산 절감 효과 등에 대한 검토는 다소 소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건축박물관의 온전한 목표, 기능 설정에서 타당성의 여부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 :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행복청, 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는 행복청 박물관센터에서 발주하여,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새건축사협회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와 동시에 당시 논의과정에서는 별도 보고자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각 주제에 따라서는 내부자료 및 협의, 보고자료 등도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에서 제시된 도시건축 분야별 전시기획(안)과 전시공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에 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전시 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전시기법을 적용한 전시기획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도시건축박물관 전시 공간 개념의 발전을 통해 향후 진행될 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설계지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 진행된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이후 중단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의 논의를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행하여 진행된 2개의 전시시나리오뿐만 아니라, 2018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기본설계비 및 감리비 예산 반영을 위해 작성된 자료 일체를 재검토하여서 2019년 사업설명 자료(그림 2-11)를 작성하여서 박물관 기본설계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다. 2019년과 2020년에 진행된 이 연구의 '전시 대주제'는 2018년도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기존 과업의 연속성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전시 대주제는 선행 시나리오를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문위원단<sup>19)</sup> 및 연구포럼을 조직하여 대주제와 연계된 키워드, 주제, 주요 콘텐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콘텐츠 구체화를 위한 소자문회의(2020.1.10.)>에는 기존에 자문위원 외에도 행복청 박물관센터와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가 참석하였다. 행복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건립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전시 대주제 및 세부 전시기획에 대한 각 부처와 전문가, 연구진 간 의견이

19) 연구자문위원단은 전봉희 서울대학교 교수,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용주 국립현대미술관 디자인기획관, 김태형 목천김정식문화재단 팀장,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소, 홍승모 (주)포스트미디어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4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전시 대주제의 적절성이 검토되었다.

교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시 대주제는 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아니며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과정에서 설립될 추진단 또는 위원회 등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전시의 모든 주제와 대상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sup>20)</sup>

#### ① 목표와 비전 : 컬렉션 + 큐레이션 + 인큐베이션<sup>21)</sup>

도시건축박물관의 목표와 비전을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아카이브 기능에 중점을 두는 ‘컬렉션’, 전시, 교육을 통한 ‘큐레이션’,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어나가는 곳으로서의 ‘인큐베이션’을 제안하였다.

- 컬렉션 : 사라져가는 도시건축 실물·원본·소품이 수장되는 박물관
- 큐레이션 : 도시건축문화를 기록·연구·전시하며 국민과 공유하는 장
- 인큐베이션 : 누구나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실



[그림 2-11] 도시건축박물관의 3대 비전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부자료(2019.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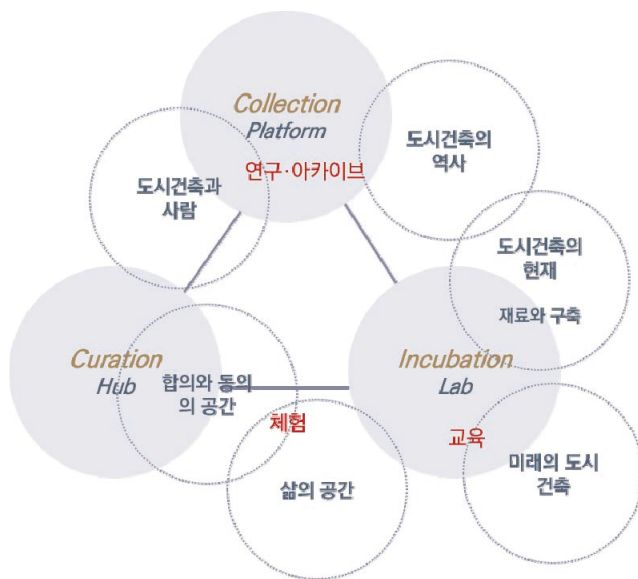
2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246-251.

21) 전계서, p17.

## ② 기능별 구상 : 전시

### □ 전시공간 구상, 전시대주제

도시건축의 역사,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 도시건축의 현재, 미래의 도시건축의 6개의 대주제가 제시되었다. 대주제가 즉각적으로 전시공간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의 컬렉션, 큐레이션, 인큐베이션의 기능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12]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과 6개의 전시 대주제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p42.

### □ 개관전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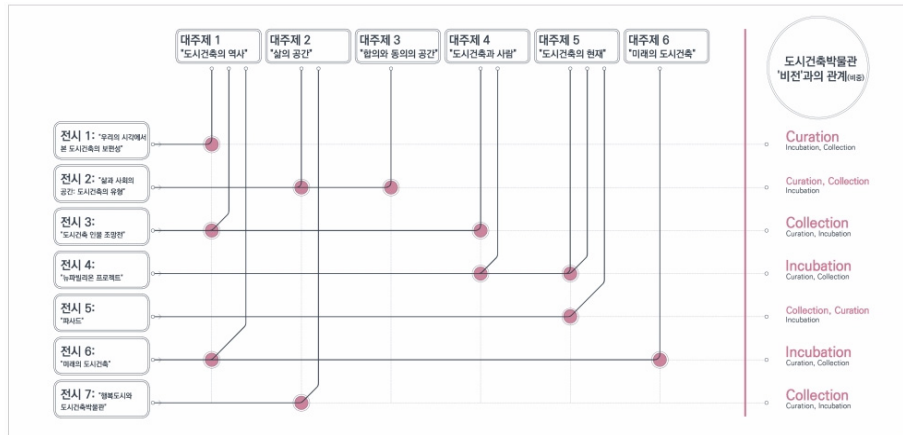
이 연구는 크게 6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3개의 상설전시 성격의 전시와 4개의 기획전시 성격의 세부 전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각 전시는 전시 대주제와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과 관계를 갖도록 기획되었다. 7개의 개별전시는 구체적인 전시공간의 구체적 구현보다는 향후 전주 세부 주제를 발전시킬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과 전시기법, 전시 기획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개별 전시공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도시건축박물관 홍보영상〉으로 대체되었다.



[표 2-3] 개관전시 프로그램 전체 구성(안)

| 전시명                     | 세부 구성                                                                                    | 주요 내용                                     |
|-------------------------|------------------------------------------------------------------------------------------|-------------------------------------------|
| 1.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도시건축의 보편성 | 1부: 짓는다는 보편성, 동양과 서양의 도시건축<br>2부: 근대의 시작, 조선의 목조 건축과 대한제국의 석조건축<br>3부: 건축재료를 통해 본 도시와 세계 | 고대·근대·현대의 동서양 건축의 유물과 재현 모형               |
| 2. 삶과 사회의 공간            | 1부: 도시건축 유형의 탄생<br>2부: 도시건축의 변천과 소멸<br>3부: 도시건축의 현재<br>-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 18세기 이후의 도시건축의 등장과 변천사, 도시건축의 미디어 기록      |
| 3. 미래를 위한 도시건축          | 1부: 변화의 도시<br>2부: 미래의 집<br>3부: 미래의 건축교육                                                  | Incubation Lab을 통한 도시건축 데이터 플랫폼과 교육·소통의 장 |
| 4. 도시·건축 인물 조망전 -       | -                                                                                        | 도시건축 아카이브, 건축가 등 한국 현대건축의 해석과 비평          |
| 5. 뉴파빌리온 프로젝트 -         | -                                                                                        | 산업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신재료·신기술을 적용한 파빌리온 건축      |
| 6. 파사드전 -               | -                                                                                        | 도시 파사드를 통해 읽어내는 도시풍경, 경관 그리고 사회상          |
| 7.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기록전 -     | -                                                                                        | 행복도시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과정과 세계의 수도               |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82., p86. 재구성



[그림 2-13] 개관 전시프로그램(안) - 기관 비전 및 대주제 간 관계도

출처: 전계서, p84.



## □ 시설별 면적 구성

| 영역<br>(비율%/ 면적m <sup>2</sup> )                     | 면적비율(%<br>/면적(m <sup>2</sup> )) | 프로그램            | 공간                      |
|----------------------------------------------------|---------------------------------|-----------------|-------------------------|
| 복합전시<br>_연구/ 교육/ 공용<br>(28%/ 4,773m <sup>2</sup> ) | 2%<br>/ 341m <sup>2</sup>       | 전시1 연계<br>: 연구  | 보존과학 처리실                |
|                                                    |                                 |                 | 보존수복 작업실                |
|                                                    |                                 |                 | 정보화 및 촬영실               |
|                                                    |                                 |                 | 보존 연구실                  |
|                                                    | 2%<br>/ 341m <sup>2</sup>       | 전시2 연계<br>: 연구  | 모형제작/수선 연구실             |
|                                                    |                                 |                 | 모형 작업실                  |
|                                                    |                                 |                 | 디지털 제작실                 |
|                                                    | 10%<br>/ 1,705m <sup>2</sup>    | 전시3 연계<br>: 교육  | 도서 열람실                  |
|                                                    |                                 |                 | 특별 열람실                  |
|                                                    |                                 |                 | 컴퓨터 이용실                 |
|                                                    |                                 |                 | 대 강의실                   |
|                                                    |                                 |                 | 소 강의실                   |
|                                                    | 7%<br>/ 1,193m <sup>2</sup>     | 전시4 연계<br>: 교육  | 강의 관리실                  |
|                                                    |                                 |                 | 대강당(300명 수용)            |
|                                                    | 5%<br>/ 852m <sup>2</sup>       | 전시5 연계<br>: 워크숍 | 전문가 창작/제작 공동 작업실        |
|                                                    |                                 |                 | 전문가 개인 작업실              |
|                                                    |                                 |                 | 장비/기계 작업실               |
| 전시<br>(25%/ 4,094m <sup>2</sup> )                  | 2%<br>/ 341m <sup>2</sup>       | 연구교육사무          | 어린이 창작교실                |
|                                                    |                                 |                 | 학예사실                    |
|                                                    |                                 |                 | 전시디자인실                  |
|                                                    |                                 |                 | 직원연구실                   |
|                                                    |                                 |                 |                         |
|                                                    |                                 |                 |                         |
|                                                    |                                 | 전시1             | Real Collection Room    |
|                                                    |                                 |                 | 전시2                     |
|                                                    |                                 |                 | Model Collection Room   |
|                                                    |                                 |                 | 전시3                     |
|                                                    |                                 |                 | Library Curation Room   |
|                                                    |                                 |                 | 전시4                     |
| 보관<br>(12%/ 2,046m <sup>2</sup> )                  | 10%<br>/ 1,705m <sup>2</sup>    | 매체별<br>아카이브     | Theater Curation Room   |
|                                                    |                                 |                 | Creator incubation Room |
|                                                    |                                 |                 | 행복도시와 도시건축박물관           |
|                                                    |                                 |                 |                         |
| 서비스<br>(19%/ 3,239m <sup>2</sup> )                 | 2%<br>/ 341m <sup>2</sup>       | 수장              | 실물류                     |
|                                                    |                                 |                 | 모형류                     |
|                                                    |                                 |                 | 지류/도서류                  |
|                                                    |                                 |                 | 필름/비디오류                 |
| 유지관리<br>(17%/ 2,898m <sup>2</sup> )                | 2%<br>/ 341m <sup>2</sup>       | 사무<br>행정        | 체험활동 콘텐츠류               |
|                                                    |                                 |                 | 임시수창고                   |
|                                                    | 15%<br>/ 2,557m <sup>2</sup>    | 유지관리            | 안내매표소, 각종보관실            |
|                                                    |                                 |                 | 수유실, 보육실, 의무실           |
|                                                    |                                 |                 | 유지엄살, 식당, 카페, 휴게공간      |
|                                                    |                                 |                 | 로비/복도/계단실/엘리베이터실        |
| 합계(연면적)                                            |                                 |                 | 관장실                     |
|                                                    |                                 |                 | 사무실, 회의실                |
|                                                    |                                 |                 | 자원봉사자실                  |
|                                                    |                                 |                 | 응접실                     |
|                                                    |                                 |                 | 락커룸, 휴게실                |
|                                                    |                                 |                 | 직원식당, 카페                |
|                                                    |                                 |                 | 비품실, 문서고, 창고 등          |
|                                                    |                                 |                 | 기계, 전기, 공조실             |
|                                                    |                                 |                 | 창고, 부속실                 |
|                                                    |                                 |                 | 17,050m <sup>2</sup>    |

[그림 2-14]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면적표

출처: 전게서, p181.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정체성(2020년)

앞서 살펴보았던 비전 및 목표, 공간구성,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2020년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논의사항을 비전 및 목표, 의사결정 체계, 기능별 공간구성, 전시주제 그리고 올해 새롭게 제시된 유물, 운영방안 등으로 살펴보았다.

####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와 관련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성격에 대한 것으로 각각 위원회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이 수 차례 제기되었다. 당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칭의 문제로 ‘도시건축’과 ‘박물관’의 문제이다. ‘도시건축’은 도시 분야와 건축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는 도시와 건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구의 도시건축(Urban Architecture)과 국내 학계와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시건축’이라는 용어의 쓰임, 그리고 도시건축 전시가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이 검토되었다.<sup>22)</sup>

다음으로 ‘박물관’은 그 의미가 현대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래된 유물이 보관된 엄숙한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영문으로는 Museum이 한국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오래된 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해외의 도시건축박물관의 범주에서는 Museum을 비롯하여 현대에 건축도시 이슈를 다루는 개념으로서의 Center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박물관의 성격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장, 서울도시건축센터 등은 Center의 개념으로 운영되면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적 상황으로 대입되었을 때 도시, 건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문화시설의 성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 상에 사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불리어진 ‘도시건축박물관’은 지금부터 그 성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21-22.

둘째, 국토부 소속의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는 ‘국토발전전시관’, ‘국립항공박물관’과 관계기관인 LH가 운영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박물관(진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의왕)’ 등 국토교통분야의 전문박물관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발전전시관이 국토전반을 다루는 곳이라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건축 및 도시, 분야’에 전문화된 기관으로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국토발전전시관이 공간 등의 한계로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일반인과 더불어 전문가를 고려한 연구기능 등이 강화된 전문박물관으로 차이가 있다.

앞서 제시된 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 향후, 기존의 연구과정에서 논의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과정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하거나 향후 ‘(가칭)도시건축박물관법’ 제정에 담겨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표 2-4] 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슈

| 주제                   | 주요내용                                                                                                                                                                                                               |
|----------------------|--------------------------------------------------------------------------------------------------------------------------------------------------------------------------------------------------------------------|
| 명칭의 문제               | 1) 도시건축<br>도시와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건축<br>- 영문을 고려하였을 때, city가 아닌 urbanism의 개념<br>2) 박물관<br>박물관은 단순한 호칭으로 ‘박물관’이며, 기능으로서의 ‘박물관’을 의미하지 않음<br>명확한 시설의 성격은 기능 및 운영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임                                       |
| 국토부<br>기존 시설과<br>유사성 | 1) 국토부 기존시설들 : 국토발전전시관, 국립항공박물관<br>국토발전전시관 - 국토분야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관 (서울 정동에 위치한 대중적 문화시설)<br>국립항공박물관 - 항공분야에 특화된 전문박물관 (공항과 인접한 대중적인 문화시설)<br>2) 도시건축박물관<br>건축 및 도시분야의 전문적 박물관으로<br>일반인과 더불어 전문가를 고려한 연구기능 등이 강화된 전문박물관 |

출처: 연구진 작성

## □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서 제시된 도시건축박물관

### • 1차 공모지침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sup>23)</sup>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은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세부적인 설명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어졌으나 회의 이전에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2020.6.30.) 등을 통하여 박물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간의 성격, 현실적인 상황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후로 서면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설계공모 운영 연구팀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컬렉션·큐레이션·인큐베이션이 연계된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을 염두하여서 제안된 것이다. 지침서 상의 ‘유물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이 아니라는 것’은 유물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 건축 및 도시분야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폭넓게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물은 현재적 가치로 끊임없이 논의되면서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공모지침에서 제시된 유물이란, 현재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유물을 대체하여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유산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번째 단락에서 기본적인 역할로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유산을 수집·연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3.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 ‘생동하는 박물관’

- 도시와 건축은 일상을 영위하는 토대로서 전문가와 사용자인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투영하는 시험지이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유산을 수집·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더 나은 도시와 건축 속의 삶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 [그림 2-15]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p12.

2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mua2020.org>, (검색일 : 2020.8.4.) 1차 공모 지침(2020.7.7.)의 주요내용을 정리

[표 2-5] 2009년-2020년 도시건축박물관 주요 논의내용 비교 - 비전 및 목표

| 구분           | 주요내용                                                                                                                                                                                                                                                                                                                                                                           |
|--------------|--------------------------------------------------------------------------------------------------------------------------------------------------------------------------------------------------------------------------------------------------------------------------------------------------------------------------------------------------------------------------------|
| 2009년 연구     | <p>[목적]</p> <p>일반시민의 도시건축문화수준의 향상, 한국 도시건축의 위상 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 극대화, 국가차원의 도시건축기록물 보존연구</p> <p>[성격]</p> <p>도시건축분야의 복합문화공간, 도시건축분야의 전문연구시설, 시민 및 전문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국제 학술문화교류의 중심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한국 도시건축의 마케팅중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민문화공간, 자자체 유관시설의 네트워크하브</p>                                                                                                                            |
| 2015년 국토부 방침 | <p>[목적] 국민의 건축문화 의식 함양, 도시·건축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인프라 조성</p> <p>[목적] 한국 도시건축 이해와 문화의 성장을 이끄는 국립 도시건축박물관</p>                                                                                                                                                                                                                                                                          |
| 2016년 연구     | <p>1) 국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건축공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건축 문화이해와 인식 함양”</p> <p>2) 도시건축정책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 “한국도시건축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p> <p>3)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기관 및 학술문화교류를 통한 “도시건축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p> <p>4) 박물관단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의 이미지 향상 및 세계 속의 세종시의 위상을 높임”</p>                                                                                                                               |
| 2020년 연구     | <p>[비전] 컬렉션 + 큐레이션 + 인큐베이션</p> <p>- 컬렉션 : 도시건축 실물과 원본, 소품을 수집/관리하기는 도시건축의 수집</p> <p>- 큐레이션 : 지역과 일상에 대한 도시건축 문화 공유/ 도시건축문화를 기록, 연구, 전시</p> <p>- 인큐베이션 : 교실이자 실험실로써의 박물관 기능 수행/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실</p>                                                                                                                                                                     |
| 2020년 설계공모지침 | <p><b>[비전] 생동하는 박물관</b></p> <p>- 도시와 건축은 일상을 영위하는 토대로서 전문가와 사용자인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투영하는 시험지이다.</p> <p>-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유산을 수집·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더 나은 도시와 건축 속의 삶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p> <p>- 따라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p> |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09.2),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국토부 내부자료(2015)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주요 내용 재구성

## 2) 사업추진 의사결정 체계 및 주요 논의사항

### □ 국토부

- 도시건축박물관 공공건축가·전문위원회

공공건축가는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2019년에 행복청 발주로 진행된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포럼 참여 등을 통하여 전시콘텐츠 구체화를 진행 (202.1.10. 자문회의), 연구포럼(2020.2.13.)<sup>24)</sup>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추진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안전을 최종 검토하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으로 전속회 공공건축가가 구성되어 국토부가 위촉하며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개관시점까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김정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태형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카이브 팀장,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원준 숭실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위원회에 매회 참여하여서 주요 논의사항을 확인하였다. 전문위원회는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차 전문위원회(6.18)에서 룱리스트 작업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여 사건중심의 주요 콘텐츠로 정리 필요성 제시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치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적절하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9차 전문위원회(9.24)에서 유물 목록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작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서 위원별로 잠정적인 유물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운영주체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건축, 도시의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김태영 안)과 건축도시분야의 물리적인 유물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재준 안)의 관점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10차(10.22.), 11차 회의(12.18.)를 통해서는 21년도 사업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 개관 이전에 준비될 유물, 전시분야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 결정 주체, 조직, 기구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251-257.

[표 2-6]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문위원회 주요논의사항(2020년)

| 회차   | 일시 및 장소                            | 주요 논의사항                                                                                                                                                                                                                                                           | 도시건축박물관<br>사업추진관련 주요일정             |
|------|------------------------------------|-------------------------------------------------------------------------------------------------------------------------------------------------------------------------------------------------------------------------------------------------------------------|------------------------------------|
| 제1차  | 5.7.목<br>10:30-12:00<br>화상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구체화</li> <li>•공모지침 기준 마련</li> </ul>                                                                                                                                                                           |                                    |
| 제2차  | 5.21.목<br>10:30-12:00<br>화상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박물관 공간구성 (스페이스 프로그램)</li> <li>- 전시계획</li> </ul> </li> </ul>                                                                      | 국토부 1차 추진위원회 (5.29)                |
| 제3차  | 6.4.목<br>10:30-12:00<br>화상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박물관 공간구성 (스페이스 프로그램)</li> </ul> </li> </ul>                                                                                      |                                    |
| 제4차  | 6.18.목<br>09:30-12:00<br>국립항공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항공박물관 답사</li> <li>•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박물관 공간구성 (스페이스 프로그램)</li> </ul> </li> </ul>                                                                 | 국토부 2차 추진위원회 (6.19)                |
| 워크샵  | 6.30.화<br>15:30-19:30<br>목천김정식문화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카이브 및 유물수집방안</li> <li>•국립도시건축박물관 공간프로그램</li> </ul>                                                                                                                                                                       |                                    |
| 제5차  | 7.9.목<br>10:30-12:30<br>노들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롤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수집유물 목록화 초안</li> <li>* 사건중심의 주요콘텐츠</li> </ul> </li> </ul>                                                                                  | 설계공모<br>1차 공모 공고(7.7)              |
| 제6차  | 7.23.목<br>10:30-12:00<br>홍건익 가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공모 관련 세부지침 논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공간의 구체적 방향</li> </ul> </li> </ul>                                                                                              |                                    |
| 제7차  | 8.7. 금<br>10:30-12:00<br>화상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공모 관련 세부지침 논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주제의 수정을 통한 최종 대주제 결정 필요</li> <li>- 수장전시는 유물의 크기를 지침에 제시하고 매체별 자료의 유형과 크기를 제시</li> <li>- 선택사항으로 전시기획자 참여</li> </ul> </li> </ul> | 설계공모<br>1차 공모 작품접수(8.20)           |
| 제8차  | 8.25.화<br>15:00~18:00              | 전시영역 세부 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를 위한 공간설계에 중점</li> <li>- 전시주제의 건축적 구현 방법과 다이어그램 제시 필요</li> </ul>                                                                                                                                          | 2차 공모 공고(9.8)                      |
| 제9차  | 9.24.수<br>10:00-13:00              | 21년 사업추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유물조사, 전시설계 연계방안 마련 필요</li> </ul>                                                                                                                                                                         |                                    |
| 제10차 | 10.22.목<br>13:00-15:30             | 21년 사업추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유물수집 조사 관련 연구</li> <li>- 운영관련 추진계획(컨설팅)</li> </ul>                                                                                                                                                      | 2차 작품 접수(10.22)<br>2차 공모 심사(10.28) |
| 제11차 | 12.18.금<br>14:00-16:00             | 21년 사업추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이전까지의 사업추진체계 (조직 및 사업방식 등) 마련 필요</li> </ul>                                                                                                                                                                 |                                    |

출처: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도시건축박물관 추진위원회

국토부 도시건축박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만희)는 도시, 건축, 주택 등 분야별 인사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설명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진행하였고, 4차 추진위원회에서는 향후 진행될 유물조사 추진계획과 관련하여서, 유물이라는 명칭 보다는 소장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목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2-7]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추진위원회

| 회차  | 일시 및 장소                | 주요 논의사항                                                         | 결과                                                                       |
|-----|------------------------|-----------------------------------------------------------------|--------------------------------------------------------------------------|
| 제1차 | 5.29.금<br>10:00~12:00  | •위원장 선출<br>•위원회 운영 방안 결정<br>- 건축, 전시, 소장품 관련                    | 위원회는 자문 기능 수행<br>의사결정은 국토부가 진행                                           |
| 제2차 | 6.19.금<br>14:20~15:25  | •국제설계공모 추진계획<br>- 공모 목적, 박물관의 철학 논의<br>-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간 공감대 형성 필요 | - 창의적 아이디어 선정<br>-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 제공<br>- 국내외 연계하는 건축, 도시 분야의 거점 박물관 |
| 제3차 | 9.2.수<br>10:30~12:00   | •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관련<br>- 1차 공모 결과 및 2차 공모 추진계획<br>- 국영문 명칭 관련      | 한글명칭은 유지하되 영문명칭 국제추세 고려                                                  |
| 제4차 | 11.24.화<br>16:00~18:00 | •도시건축박물관 당선작 보고<br>•유물조사 추진계획 보고                                |                                                                          |

출처: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 행복청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행복청의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국립박물관 센터장, 행복청 총괄건축가(민경식 소장), 전문가 1인(최혜정 교수)와 국토부에서 추천한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공공건축가(전숙희 소장), 전문가 2인(최원준 교수, 정다영 학예사) 8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에는 국토부의 전문위원회 중 3인(공공건축가, 전문가2인)가 참여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건립주체인 행복청과 운영주체인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 공간구성, 전시방향 등에 대해서 결정하였다.



[표 2~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 회차  | 일시 및 장소                        | 주요 논의사항                        | 내용                                                                                                      |
|-----|--------------------------------|--------------------------------|---------------------------------------------------------------------------------------------------------|
| 제1차 | 2020.5.8.(금)<br>15:30~17:00    | •공모 운영방식,<br>심사위원 후보 및 공모 일정 등 |                                                                                                         |
| 제2차 | 2020.5.20.(수)<br>10:00 ~ 12:00 | •공모 운영방식 결정,<br>심사위원 후보 추천 등   |                                                                                                         |
| 제3차 | 2020.6.3.(수)<br>10:00 ~ 12:00  | •심사위원 후보 추천,<br>설계공모 세부지침 검토 등 |                                                                                                         |
| 제4차 | 2020.6.17.(수)<br>10:00 ~ 12:00 | •설계공모 세부지침,<br>홍보 포스터 검토 등     | •공모의 기본방향과 비전 제시<br>•부문별 계획방향은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로 반영                                                           |
| 제5차 | 2020.8.20.(목)<br>14:00~17:00   | •1차 공모 심사계획,<br>2차 공모지침 검토 등   |                                                                                                         |
| 제6차 | 2020.9.2.(수)<br>13:30~15:30    | •1차 공모 심사결과,<br>2차 공모지침 검토 등   | •전시계획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도,<br>심사방식 및 제출물 등 간소화<br>•전시공간 구성 검토를 위한 기술위원 전문가<br>1명 추가<br>•기존 전시관련 연구결과를 요약하여서 제시 |
| 제7차 | 2020.11.12.(목)<br>16:00~18:00  | • 공모결과 보고                      |                                                                                                         |

출처: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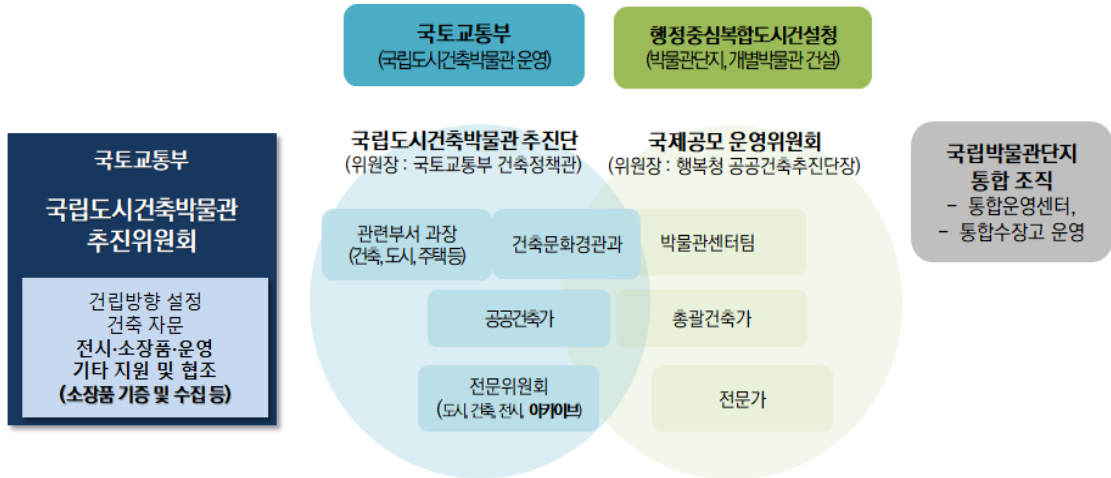
## □ 시사점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업추진 및 의사결정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기본적인 사업추진 체계는 운영주체인 국토부와 건립주체인 행복청이다. 두 주체에게 2020년에 주어진 과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운영준비와 설계공모 진행에 관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개관 및 운영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공공건축가 선임, 행정적인 업무 외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무조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행복청에서는 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진행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행복청의 공공건축가,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국토부와 공공건축가, 전문위원회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행복청이 협력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논의 안건은 사전에 국토부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주요내용을 논의를 진행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6]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사업추진체계 및 주체  
출처: 연구진 작성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의 유물수집을 위해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2020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구체성이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유물수집 및 전시설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체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운영주체의 장이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국립도시건축박물관장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개관 이전에 관장선임 및 운영조직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운영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물수집도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하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전략’이 마련되어서 수집과 더불어서 관리, 보존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가 조직 외에도 유물과 관련한 유물정책을 다룰 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전문위원회 내에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들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정책을 실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국토부가 확정할 필요가 있다.

### 3)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기능별 공간구성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제설계공모지침서에 반영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지침

기존의 문화시설에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전시, 연구·교육, 아카이브는 전시, 복합 전시, 수장전시의 영역으로 개념이 조정되었다. 즉, 전시영역 속에서 기존의 전시, 연구 및 교육, 아카이브가 통합된 것으로 전체면적 대비 공간구성 비율로는 약 60%를 차지한다.

2차~4차 전문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부문별 계획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2차 공모지침 작성단계에서는 아카이브 공간에 대한 사항이 일부 조정되었다.

#### 3.4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면적

- 1차공모에서는 제시된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면적을 바탕으로 계획개념과 설계지침에 부합하는 평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영역 및 프로그램별 면적은  $\pm 10\%$  범위 내, 전체 연면적은  $\pm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영역   | 프로그램 | 세부실                                                            | 면적(㎡)  |       |
|------|------|----------------------------------------------------------------|--------|-------|
| 전시   | 상설   | 상설 및 기획전시실                                                     | 3,200  | 4,200 |
|      | 기획   | * 전시공간의 세부사항은 2차공모에 제시                                         | 1,000  |       |
| 복합전시 | 다목적  | 컨퍼런스홀(300석 규모), 미디어랩                                           | 1,200  | 3,250 |
|      | 교육   | 대강의실, 소강의실, 강의 관리실, 도서열람실, 특별 열람실, 컴퓨터 이용실                     | 1,200  |       |
|      | 워크숍  | 창작·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 장비·기계 작업실, 어린이 창작교실                      | 850    |       |
| 수장전시 | 아카이브 | 아날로그(도면, 모형, 필름, 비디오, 문서 등 실물자료) 아카이브, 본디지털(Born-digital) 아카이브 | 2,200  | 2,550 |
|      | 보관   | 임시보관소                                                          | 350    |       |
| 소 계  |      |                                                                | 10,000 |       |

[그림 2-17]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p18.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박물관단지 내 통합수장고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내 수장 전시 공간에 대한 구분이 제시되었다. 통합수장고에 소장될 자료는 전시되지 않는 중요한 유물을 의미하며,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한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한 수집, 정리 작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아카이브 및 임시보관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수장전시 영역은 전시, 복합전시 등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도면, 모형, 필름, 비디오, 문서 등 실물자료)와 생산부터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본 디지털(Born-digital)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2차 공모지침에서 추가된 사항은 수장전시 영역 중 아카이브 공간(2,200㎡)의 성격 상 외부자료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개방된 대외공간과 폐쇄된 대내공간으로 구분한다. 대외공간에서는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합전시 공간의 교육 및 워크숍 공간과 연계되도록 구성하도록 제시하였다. 대내공간은 외부에서 유물이 반입될 경우, 보관 공간(임시보관소)을 통하여 반입되며 유물 등의 하역, 해포 공간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7) 수장전시 영역

- 장기보관 유물은 통합수장고에 보관되지만, 아카이브 및 임시보관 등을 위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의 수장영역을 별도로 계획한다.
- 수장전시 영역은 타 전시 영역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아카이브 공간은 관람객에게 개방된 대외공간과 폐쇄된 대내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아카이브 공간 중 대외공간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며, 복합전시 공간의 교육 및 워크숍 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보관공간(임시보관소)는 유물 등의 하역, 해포 공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아카이브 공간의 대내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항온항습·보안·방재 등을 고려하고, 전시품 반입 및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전시물 반·출입 동선이 관람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그림 2-18]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9.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지침, p14.

| 영역    | 프로그램                   | 세부실                                                            | 면적(㎡)  |       |
|-------|------------------------|----------------------------------------------------------------|--------|-------|
| 전시    | 상설                     | 상설 및 기획전시실                                                     | 3,200  | 4,200 |
|       | 기획                     |                                                                | 1,000  |       |
| 복합전시  | 다목적                    | 코퍼런스홀(300석 규모), 미디어랩                                           | 1,200  | 3,250 |
|       | 교육                     | 대강의실, 소강의실, 강의 관리실, 도서열람실, 특별 열람실, 컴퓨터 이용실                     | 1,200  |       |
|       | 워크숍                    | 창작·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 장비·기계 작업실, 어린이 창작교실                      | 850    |       |
| 수장전시  | 아카이브                   | 아날로그(도면, 모형, 필름, 비디오, 문서 등 실물자료) 아카이브, 본디지탈(Born-digital) 아카이브 | 2,200  | 2,550 |
|       | 보관                     | 임시보관소                                                          | 350    |       |
| 소 계   |                        |                                                                | 10,000 |       |
| 학예연구  | 보존                     | 보존과학연구실, 촬영실, 성분 분석실                                           | 300    |       |
|       | 수복                     | 보존수복실, 수선실, 디지털 제작실                                            | 300    |       |
|       | 학예연구                   | 학예연구실, 회의실                                                     | 450    |       |
|       | 사무운영                   | 관장실, 행정사무실,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문서고, 창고                               | 300    |       |
|       | 소 계                    |                                                                | 1,350  |       |
| 서비스   | 안내 편의 휴게               | 안내 및 매표소, 각종 보관실, 수유실, 보육실, 의무실, 뮤지엄숍, 식당, 카페, 휴게공간            | 500    |       |
|       | 공용                     | 로비,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화장실                                       | 2,600  |       |
|       | 소 계                    |                                                                | 3,100  |       |
| 유지 관리 |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창고, 부속실 |                                                                | 2,600  |       |
|       | 소 계                    |                                                                | 2,600  |       |
| 합 계   |                        |                                                                | 17,050 |       |

[그림 2-19] 도시건축박물관 기능별 면적 배분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p61.

#### 4)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주제

- 2차 공모(2020.9.8)

| 대주제                                                | 키워드                                                                     | (참고) 전시 콘텐츠 예시                                                                                                                                                                                                                    |
|----------------------------------------------------|-------------------------------------------------------------------------|-----------------------------------------------------------------------------------------------------------------------------------------------------------------------------------------------------------------------------------|
| 도시·건축의 역사<br>(건축과 도시에 대한<br>통시적·공시적<br>전시기획)       | 건축역사, 도시역사, 도시·건축 해석,<br>도시·건축 비평, 건축물 보존, 도시<br>기록, 도시·건축 유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의 연대 자료</li> <li>- 역사적 도시·건축 재현 콘텐츠(설치물 중심)</li> <li>- 보존이 필요한 도시·건축의 전체 또는 일부</li> <li>- 도시·건축 관련 도면, 모형, 사진, 행정자료 등 건축 생산 부산물</li> </ul>                                          |
| 소주제                                                | 키워드                                                                     | (참고) 전시 콘텐츠 예시                                                                                                                                                                                                                    |
| 살의 공간<br>(사회적 정점 속<br>주거건축과 주거문화)                  | 도시 사건·이벤트, 일상성, 주거<br>공간, 건축 공간, 공간감(Space<br>Percep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주거사 관련 자료와 시대별 주거공간 변천 유형</li> <li>- 인류학·민속학·지역학·지리학 조사와 연구 콘텐츠</li> <li>- 도시 공간 기록화 콘텐츠</li> <li>- 공간인지 체형 콘텐츠</li> </ul>                                                            |
| 합의와 동의의<br>공간<br>(법, 제도, 시설로서<br>변화하는 도시와<br>건축)   | 법, 제도, 사회 공간, 권력 공간,<br>시민참여, 건축유형, 공공건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 기억이 부여된 도시·건축 공간의 수집과 재현</li> <li>- 우수 공공건축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부산물, 공공이 함께<br/>만든 좋은 공간의 사례</li> <li>- 도시재생, 공공건축 등 일상에 변화를 끼친 도시·건축 정책</li> <li>- 법·제도 변화 차원에서 해석한 도시·건축 역사 콘텐츠</li> </ul> |
| 도시·건축과 사람<br>(도시·건축의 주요<br>인물 또는 단체<br>재조명)        | 건축가와 계획가, 연구자, 운동가,<br>기획자, 사용자, 도시건축 관련<br>단체 및 협회, 건축·도시 관련<br>사무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 관련 인물의 생애자료, 이론가의 연구자료</li> <li>- 스케치, 도면, 모형, 작가노트, 사진, 필름, 편지, 브로슈어 등</li> <li>- 인터뷰 영상, 녹취 파일</li> <li>- 구술록을 포함한 도서자료</li> </ul>                                               |
| 도시·건축의 현재<br>(장소 또는 시대의<br>맥락과 함께 하는<br>도시·건축의 현재) | 건축재료, 건축요소, 건축유형,<br>도시·건축 화두, 도시·건축<br>공모전, 도시·건축 교육, 최신<br>도시·건축 정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 구성 원리를 표현하는 전시 콘텐츠</li> <li>- 도시·건축 공모전 모형 및 도면 등</li> <li>- 도시·건축 비평·담론·캠페인, 커미션 작가 콘텐츠</li> </ul>                                                                                |
| 미래의 도시·건축<br>(신기술 등 미래<br>도시·건축공간의<br>가능성과 방향성)    | 건축기술, 도시형태, 4차산업 혁명,<br>스마트 재료, 스마트시티,<br>신재생에너지, VR 등 공간 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 관련 신기술 및 신소재 라이브러리</li> <li>- 미래 도시 데이터 플랫폼(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등)</li> <li>- VR·AR, 로봇암,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도시·건축 공간, 스마<br/>트 빌딩 접목 콘텐츠</li> </ul>                                            |

[그림 2-20]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공간 구상을 위한 주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9.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지침」, p17.

## 5)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차 공모지침에서는 1차 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비전 및 공간구성 면적 등 주요내용을 준용하였다. 다만, 전시공간 구상과 관련하여서 전시공간 구상을 제안하기 위해서 전시주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시 수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대주제들을 유지하되, 도시·건축의 역사를 대주제로 하고 삶의 공간을 비롯한 5개의 주제들은 소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역사’를 중심으로 각 개별 소주제를 통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문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는 키워드와 전시 콘텐츠를 예시자료로 참고하도록 제안하였다.

다만, 설계공모 단계에서 설계자들에게 공통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주제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 2차 공모지침 : 설계공모 + 전시공간 구상

2차 공모지침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1차공모지침의 비전을 유지하되 전시공간의 구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전시공간의 구성이란 설계자가 생각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설계가 아닌 공간설계에 대한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공간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전시되어질 만한 것”을 고려하여서 박물관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제시된 전시공간계획에서는 건축가들이 생각한 다양한 유물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상설전시는 “소장품 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기획전시는 “전시주제 및 박물관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상설 전시 공간의 대주제는 “도시·건축의 역사”를 바탕으로 5개의 소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1차 공모지침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던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제화 연구 (2020, p43-81)”를 바탕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으로 성격을 제시하였다. 전시관련 운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시적인 수준에서 각 주제별로 가능한 전시 콘텐츠를 예시로 제안하였다.

---

25) 전문위원회 10차 회의(2020.10.22.)에서도 이러한 점은 다시 확인되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주제 속에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설계공모 당선작

2020년 11월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으로 ‘재활용집합체(Recycling Assemblage)’가 선정되었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건물 자체가 재료의 전시장으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외부공간을 통해 건축 파편과 모형을 전시하여 건축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건축이 도전해야 할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6)</sup>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은 2020년에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설계공모지침서가 추상화된 형식으로 기능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공모 참여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설계안을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설계자가 제시하였던 유물, 전시에 대한 해석이다. 건축 및 도시박물관이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모형, 사진, 패널 등도 있으나 설계공모 시점에 유물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가가 주목한 것은 “부재”였다. 이는 박물관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을 한국 근현대의 성장과정에서의 토목의 성과물들을 직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고, 회랑에 전시되는 것들도 다양한 건축물들의 부재들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그림 2-2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출처: 행복청, 국토부 보도자료(2020.1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6) 행복청, 국토부 보도자료(2020.1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4. 소결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비전 및 목표

2020년에 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는 “전통적인 박물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건축문화 의식 함양’ 및 ‘도시건축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서 확장하여서 2020년에는 설계공모에서 진행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주체인 국토부, 건립주체인 행복청이 동의한 비전으로서 의미가 있다.

### □ 기능별 공간구성

2020년 연구에서는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등에 따라서 조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후로 진행된 설계공모 지침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전시공간이 10,000㎡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되, 전시란 전시, 수장,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로 전시, 수장전시, 복합전시로 제시되었다. 이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비전에서 제시되었던 전통적인 유물 중심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생산하면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 활동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이다.

[표 2-9] 주요 기능별 공간구성 변화

| 영역   | 설계공모지침(2020) |       |       | 2020년 연구    |       |                | 2016년 연구 |       |
|------|--------------|-------|-------|-------------|-------|----------------|----------|-------|
|      | 기능           | 면적    |       | 영역          | 면적(%) |                | 영역       | 면적    |
| 전시   | 상설           | 3,200 | 4,200 | 매체별         | 3,200 | 4,094<br>(25%) | 전시       | 8,121 |
|      | 기획           | 1,000 |       | 전시<br>1~6   | 1,000 |                |          |       |
| 복합전시 | 다목적          | 1,200 | 3,250 | 전시연계<br>1~5 | 1,200 | 4,773<br>(28%) | 교육       | 1,590 |
|      | 교육           | 1,200 |       |             | 1,200 |                |          |       |
|      | 워크샵          | 850   |       |             | 850   |                |          |       |
| 수장전시 | 아카이브         | 2,200 | 2,550 | 매체별<br>아카이브 | 2,200 | 2,046<br>(12%) | 수장       | 349   |

| 영역   | 설계공모지침(2020)   |       | 2020년 연구      |       | 2016년 연구       |      |       |
|------|----------------|-------|---------------|-------|----------------|------|-------|
|      | 기능             | 면적    | 영역            | 면적(%) | 영역             | 면적   |       |
| 학예연구 | 보관             | 350   | 수장            | 350   | -              | 사무   | 1,449 |
|      | 보존             | 300   | * 복합전시 공간에 포함 |       |                |      |       |
|      | 수복             | 300   |               |       |                |      |       |
|      | 학예연구           | 450   | *유지관리 공간에 포함  |       |                |      |       |
|      | 사무운영           | 300   |               |       |                |      |       |
| 서비스  | 안내편의<br>휴게     | 500   | 안내편의<br>휴게    | 341   | 3,239<br>(19%) | 편의   | 4,092 |
|      | 공용             | 2,600 | 공용            | 2,898 |                |      |       |
| 유지관리 | 기계,전기,<br>공조 등 | 2,600 | 사무행정          | 341   | 2,898<br>(17%) | 유지관리 | 1,449 |
|      |                |       | 유지관리          | 2,557 |                |      |       |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p6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 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18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109. 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 개관이전의 준비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개관시점 직전에 구체적인 운영조직이 마련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연구,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경우에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복청,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는 다양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 □ 전시공간 구성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서 연대기적 전시방식과 주제별 전시방식을 혼용하여 기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전시 대주제는 명칭은 상이하지만, 연구단계별 연속성을 고려할 때 도시건축의 과거·현재·미래, 도시건축의 체험과 교육, 전시아이템별 기획전시의 구성은 동일하다.

가장 최근의 수행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에서 제시한 전시방향은 2016년도 선행연구의 VII장에서 제시한 전시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건축분야 전시에서는 ‘집의 시작’, ‘세계 각국의 집’, ‘한국의 집’, ‘미래의 집’을 제시하였고, 도시분야 전시에서는 ‘도시란 무엇인가?’, ‘역사속의 도시’, ‘한국의 도시’, ‘도시 그리고 건축’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건축유형으로서의 ‘집’

은 모든 건축의 범위이자 공간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 이 틀을 토대로 하여, 건축의 기원과 세계-한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건축과 세계건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요한 상설전시의 주제로 상정하였다. 도시분야와 건축분야의 전시를 통합하는 대안으로 '건축 유형학(Architectural Typology)'를 제안하였다.

2016년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의 요소로서 건축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의 연구에서는 도시를 사회로 확장하여 건축과 산업의 관계를 전시할 수 있는 주제로 '삶과 사회의 공간'이 제안되었다. '미래의 집'은 '미래를 위한 도시건축'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건축과 세계건축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의 최소 요소로 '건축 재료'가 제시되었다.

[표 2-10] 도시건축박물관 공간구성 및 주제 비교

| 전시공간구성 및 주제         |                                                                                                          |        |               |          |                     |          |
|---------------------|----------------------------------------------------------------------------------------------------------|--------|---------------|----------|---------------------|----------|
| [상설전시], 기획전시, 야외전시  |                                                                                                          |        |               |          |                     |          |
| 2015년<br>국토부 방침     | 도시건축역사관                                                                                                  |        | 도시건축미래관       | 통일한국관    | 체험관                 | 전문정보관    |
|                     | 기획전시관                                                                                                    |        | 야외특별전시관       |          |                     |          |
| 2016년<br>연구         | 건축도시역사관, [주제전시관], 기획전시관, 영상관(퍼블리온)                                                                       |        |               |          |                     |          |
|                     | 삶의 공간                                                                                                    | 사회의 공간 |               | 정치제도의 공간 | 사람                  | 미래의 도시건축 |
| 2020년<br>연구         | 전시공간구성 2가지 대안 제시 (기획전시센터형, 연구서비스센터형 *)<br>- 연구서비스센터형을 중심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br>- 기능별 연계를 통하여 전사-전시보관-연구교육 복합 |        |               |          |                     |          |
|                     | 도시건축<br>역사                                                                                               | 삶의 공간  | 합의와 동意的<br>공간 | 도시건축과 사람 | 도시건축의 현재<br>-재료와 구축 | 미래의 도시건축 |
| 2020년<br>설계공모<br>지침 | 전시, 복합전시, 수장전시                                                                                           |        |               |          |                     |          |
|                     | (대주제) 도시건축의 역사                                                                                           |        |               |          |                     |          |
|                     | (소주제)                                                                                                    | 삶의 공간  | 합의와 동意的<br>공간 | 도시건축과 사람 | 도시건축의 현재            | 미래의 도시건축 |

출처: 국토부 내부자료(2015)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9.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지침의 주요내용을 재정리

## □ 전시 주제

전시 주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구성에서도 전시 외의 아카이브, 교육 및 홍보 기능간 역할보다는 주제를 고려한 건축, 도시분야의 전문가 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시주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토론 보다는 전체 주제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전시계획가 등)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시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다양한 주제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던 논의들은 다양한 선택가능한 시나리오로 존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만 제시된다. 두 번째는 논의과정은 그동안의 협의와 동의를 과정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후자의 입장으로 사업 추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및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서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인식한다. 따라서, 유물수집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의 목표 및 방향, 일정부분 구체화된 전시 대 주제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상의 박물관 자료에 관한 기준이 되는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사업수행(전시)을 위한 증거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 시사점

기존의 논의에서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의 유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전시공간의 구성, 전시와 유물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의 진행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유물의 구체적인 수집전략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시주제와 연계하여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2020년 11월 현재시점에서 확정되어 있는 주제는 공모지침에서 제시된 주제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일부 조정을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11] 2015년-2020년 도시건축박물관 주요 논의내용 비교

| 구분              | 주요내용                                                                                                                                                                               |
|-----------------|------------------------------------------------------------------------------------------------------------------------------------------------------------------------------------|
| 2015년<br>국토부 방침 | [목표] 국민의 <b>건축문화의식 함양</b> , <b>도시건축산업 활성화</b> 에 기여하는 <b>문화인프라</b> 조성<br>[구성] 추진배경, 간접계획 및 전시기획(안), 추진체계, 향후 추진일정<br>[전시구성] 상설(도시건축역사관, 도시건축미래관, 통일한국관, 체험관, 전문정보관), 기획전시관, 아오팀별전시관 |
| 2016년           | [목표] <b>한국 도시건축 이해와 문화의 성장</b> 을 이끄는 국립 도시건축박물관                                                                                                                                    |

| 구분 | 주요내용                                                                                                                                                                                                                                                                                                                                                                                                                                                                                                                                                                                                      |
|----|-----------------------------------------------------------------------------------------------------------------------------------------------------------------------------------------------------------------------------------------------------------------------------------------------------------------------------------------------------------------------------------------------------------------------------------------------------------------------------------------------------------------------------------------------------------------------------------------------------------|
| 연구 | 1) 국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건축공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건축 문화 이해와 인식 함양”<br>2) 도시건축정책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br>“한국도시건축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br>3)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기관 및 학술문화교류를 통한 “도시건축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br>4) 박물관단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의 이미지 향상 및 세계 속의 세종시의 위상을 높임”<br><br>[구성] 기능·역할, 콘텐츠 기본구상, 중장기 콘텐츠 확보계획 및 홍보방안, 건축기본구상, 운영방안, 개관준비 프로그램<br><br>[기능별 구성]<br>전시- 한국 도시건축 형성 및 발전과정 그리고 미래<br>> ‘주 제전시’와 ‘시대별 전시’ 가 동시에 진행<br>* 주제 전시- 삶의 공간, 사회의 공간, 정치·제도의 공간, 사람, 미래의 도시건축<br>시대별 전시- 역사문화, 건축도시정책관, 미래기술관, 기획전시실, 영상관<br>> 연대기관, 주제전시관(주제+시대별전시), 영상관<br><br>아카이브- 한국 근현대 도시건축 국가자산 구축 (공공부문, 근현대자료)<br>연구 교육 및 홍보- 도시건축의 전문성과 대중성 확장 |
|    | [비전] 컬렉션 + 큐레이션 + 인큐베이션<br>- 컬렉션 : 도시건축 실물과 원본, 소품을 수집/ 사라져가는 도시건축의 수집<br>- 큐레이션 : 지역과 일상에 대한 도시건축 문화 공유/ 도시건축문화를 기록, 연구, 전시<br>- 인큐베이션 : 교실이자 실험실로써의 박물관 기능 수행/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실<br><br>[구성] 비전과 주요 콘텐츠,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건축설계 기본방향<br><br>[전시구성] 도시건축의 역사,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를 공간, 도시건축의 현재-재료와 구축, 도시건축과 사람, 미래의 도시건축                                                                                                                                                                                                                                                                                     |

출처: 국토부 내부자료(2015)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내용 재구성

주제 및 공간구성은 중요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0년도 진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모지침에서 대주제는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이외의 주제를 소주제로 설정하고 소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유물 조사는 과거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를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확보될 유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90%는 과거의 유물이 10%는 현재와 미래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장품이 가능할 것이다.

---

## 제3장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 준비 고려사항

1. 개요
  2. 유물에 관한 개념 검토
  3. 유물 사례
  4. 유물 수집 절차
  5. 예산을 고려한 유물수량 및 임시공간 검토
- 

### 1. 개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 개관 준비단계에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에 관한 개념, 둘째, 개관 이전에 수집되는 유물 보관을 위한 임시공간 마련 검토, 셋째, 예산을 고려한 유물수량에 대한 고려이다.

유사기관의 운영사례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개관 시점에 준비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례이지만, 해외사례 보다는 국내 박물관 건립의 여건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물에 관한 개념 검토를 통해서 기관 및 전시 등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장품의 사례들을 통해서 건축, 도시분야에서 소장품의 다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개관시점 이전에 확보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보관, 관리 할 수 있는 임시공간 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관시점 이전에 확보할 유물과 관련한 수량에 대해서는 총예산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 수량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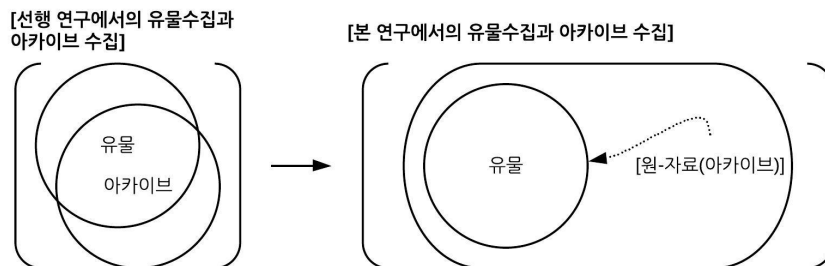
## 2. 유물에 관한 개념 검토 및 사례

### 1) 유물에 대한 개념

#### □ ‘유물수집’과 ‘아카이브수집’

유물수집과 아카이브수집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이다. 유물수집은 유물수집 ‘주체’가 정한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통하여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관련 사업 및 개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구입·수증 평가 위원회’에서 ‘희소성·탁월성·완전성·역사성·전시활용 가능성’ 등의 항목별 가치를 판단하여 유물을 수집한다.

반면에 아카이브는 가치판단을 최소화하여 ‘일단 수집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화하는 것이란, 수집 주체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범주에 대해서는 아카이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수집이 이루어진다. 국가기록원의 행정기록물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집 범위에 따라, 행정기록물을 수집한다. 이때 행정기록물의 가치평가는 최소화되고 보관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아카이브의 보존 및 폐기 등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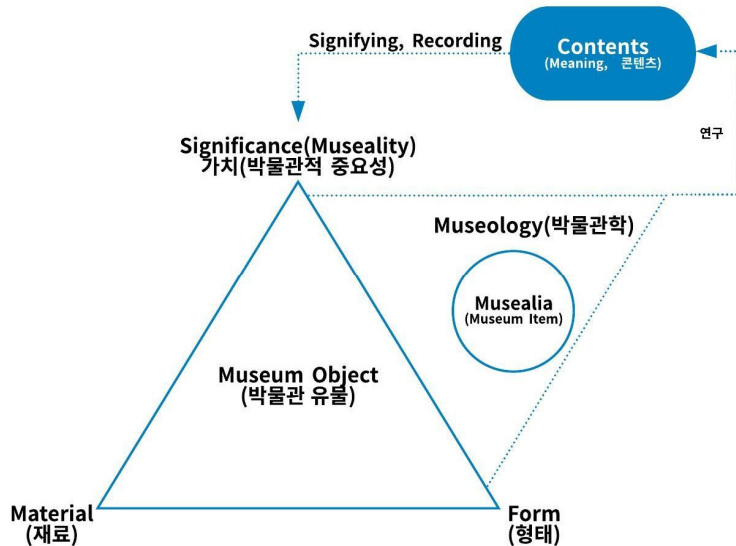
[그림 3-1] 유물수집과 아카이브수집의 개념 변화  
출처: 연구진 작성

기존의 도시건축박물관 관련 연구에서 진행된 아카이브의 개념은 전시·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원-자료로서의 유물’을 의미하였다. 즉, 최소한의 가치 평가에 의해서 수집해야 할 대상 자료인 아카이브와 유물을 혼용하여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유물수집’은 개관시점까지 확보되어야 할 유물로서 원-자료들 중 ‘1차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

제 유물수집을 위한 사전단계로 1차적인 수집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의 가치를 제시한다. 1차적 가치평가의 기준과 교집합을 이루는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아카이브수집’이라 칭한다.

#### □ 박물관 콘텐츠와 박물관 유물

콘텐츠(Contents)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복수의 것이 담겨진 상태, 특정 화제, 특정 요지(要旨), 의의나 중요성”<sup>27)</sup>을 뜻한다. 박물관학에서 단독 유물이나 아카이브를 콘텐츠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박물관에서도 유사하다. 반면, 도시건축 전시분야에서는 ‘콘텐츠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이는 도시건축분야의 전시와 도시건축박물관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다. 우선 박물관학(Museology)에서 의미하는 콘텐츠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2] 박물관학에서의 콘텐츠

출처: Ivo Maroevic(1998), 『Introduction to Museology: The European Approach』, Verlag Dr. Christian Muller-Straten, p138., p138의 내용과 같은 쪽 수 Figure 8의 내용을 본문과 합하여 재구성

박물관학에서의 콘텐츠는 박물관 유물을 연구·해석 또는 큐레이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물이 갖는 의미’를 뜻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유물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콘텐츠는 박물관 유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의미의 결과물이다. 2차적 의미의 결과물은 비단 단독 유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유물과 관련된 역사

27) Merriam-Webster 사전,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content> (검색일: 2020.5.19.)



적 사실과 유물 자체가 갖고 있는 재료나 형태로부터 의미가 도출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박물관협회의(ICOM) 박물관학 분과(ICOFOM)에서 정리한 「박물관학 역사(A History of Museology)」에서 그간 박물관에서 유물, 수집, 가치 평가 등의 행위를 용례로서 정의한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한다.<sup>28)</sup>

- Museum Object: 박물관 유물로 번역할 수 있으며, 박물관이 소장한 물리적 소장품의 의미부터 박물관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따라 의미를 부여 받은 소장품으로 이해할 수 있음. 박물관 유물은 연구 등 콘텐츠화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음.<sup>29)</sup> 전통적 박물관에서 유물은 컬렉션으로 의미가 제한되었으나, 박물관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유물의 범위는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유산(Heritage)단계로 확대됨<sup>30)31)</sup>

|                             |                   |          |                   |          |                  |
|-----------------------------|-------------------|----------|-------------------|----------|------------------|
| <b>MUSEUM FACT =</b>        | <b>MAN</b>        | <b>/</b> | <b>OBJECT</b>     | <b>/</b> | <b>SCENARIO</b>  |
|                             | ↓                 |          | ↓                 |          | ↓                |
| <b>Traditional museum =</b> | <b>public</b>     | <b>+</b> | <b>collection</b> | <b>+</b> | <b>building</b>  |
| <b>New museum =</b>         | <b>population</b> | <b>+</b> | <b>heritage</b>   | <b>+</b> | <b>territory</b> |

[그림 3-3] de Varine의 New Museology에서의 Museum Object의 개념 변화

출처: ICOFOM(2019), 「A History of Museology, Key authors of museological theory」, ICOM, p103.

- Museum Object에서의 Material과 Form : 박물관 유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유물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Form을 구분하며 유물의 보존과 가치 평가 등에 쓰이는 재료적 특징을 의미함<sup>32)</sup>

28) ICOFOM(2019), 「A History of Museology, Key authors of museological theory」, ICOM

29) 전계서 p82-83., p89., p96.

30) 전계서 p103.

31)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콘텐츠 구체화 연구」, p 228.’에 기록된 제2차 자문회의에서 “도시건축박물관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컬렉션”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되어있다.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박물관에서) 컬렉션을 통해 박물관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과 달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건축의 일련의 시나리오를 담아내는 박물관 설립 사업에서 컬렉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컬렉션 대상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되 전 세계로 확장하며 컬렉션이 구축되는 시점은 박물관의 실제 운영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32) 도시건축박물관 설립 단계에서는 유물의 재료와 형태는 향후 박물관의 유물수집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된다.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콘텐츠 구체화」와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자료08]로 제시된 “Real Collection”은 가치 있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미술품 또는 동산문화재 체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 유물 체계

- Musealia(Museum Item, 박물관화된 유물): Musealia 또는 Museum Item 등으로 불리며 박물관 유물 또는 박물관 소장품으로 번역할 수 있는 Musealia는 박물관 목록과 통상 구분되지 않음.<sup>33)</sup> 현대적 의미로는 박물관에서 재-맥락화(Re-Contextualized)되거나 해석된(Interpreted)<sup>34)35)</sup>된 유물을 말하며,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과정, 즉 연구와 전시 등에 의한 큐레이팅 과정 속에서 유물의 가치가 새롭게 부여된 상태를 의미
- Museality(Significance, 박물관적 중요성): Museality는 박물관 유물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유물의 질(Quality)과 가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sup>36)</sup> 이는 일상적 공간의 놓인 유물이 박물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받는 의미를 뜻함, 따라서 박물관 유물은 Museality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 가치가 부여되며, 이 과정을 통해 박물관의 고유성이 증명됨<sup>37)</sup>

반면 최근 사용되는 콘텐츠는 박물관학에서 의미하는 콘텐츠의 의미보다 보다 광의적이다. 우선 콘텐츠를 국내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의 재료와 형태, 유형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박물관 유물은 Museum Object와 Museum Item 화되는 과정에서 그 범주도 지속 변화할 여지가 있다.

33) ICOFOM, ICOM-CC(2019), “Four Waurá masks in the Indian Museum: a decolonial way to conservation practice and theory”, 「What is the essence of onservation?」, ICOM, p32.

34) ICOFOM, ICOM-CC. (2019), “Museality, Authenticity and Religious Reality: a Buddhist view on the conservation and exhibition of Buddhist objects”, 「What is the essence of onservation?」, ICOM, p134.

35) ICOFOM(1994), “Symposium OBJECT-DOCUMENT?”, 중국 베이징 심포지엄 자료, ICOM, p128.

36) ICOFOM(2019), 「A History of Museology, Key authors of museological theory」, ICOM, p81.

37) 이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0일 진행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콘텐츠 구체화 연구」 중〈미래를 위한 도시·건축 전시〉연구포럼2와 2020년 5월 7일 진행된 〈도시건축박물관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박물관의 고유성에 대한 논의로 다루어졌다. 박물관의 유물이나 컬렉션은 박물관 기관이 갖는 고유한 정체성에 따라 수집 대상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그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률적 개념으로 콘텐츠는 각종 미디어(매체)로 표현되는 자료와 정보를 의미한다. 최근 박물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콘텐츠라는 의미와 유사하다. 과거의 박물관은 물질적 자산-오브젝트(Object)를 중심으로 유물의 수집과 보존, 연구와 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박물관의 주기능을 토대로 문화적 콘텐츠와 같은 부수적인 콘텐츠가 재생산되었다.<sup>38)</sup> 여기서 콘텐츠는 유물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패널·영상·디오라마 등 모형·각종 디스플레이가 속하며, 유물이 없는 경우에 특정 이슈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설치물과 창작물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건축 전시분야에서 콘텐츠라는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유물의 수집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도시건축이 박물관 유물로서의 가치(Museality)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주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 3-1]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 유형

| 구분         | 콘텐츠 예시                                                                                                                                                                                                                  |
|------------|-------------------------------------------------------------------------------------------------------------------------------------------------------------------------------------------------------------------------|
| 원본         | 도시건축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의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장비) 또는 물건</li> <li>- 성과물로 완성된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 또는 부재, 설치물</li> </ul>                                                                              |
|            | 도시건축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의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 생산된 스케치, 도면, 사진, 모형 등의 기록물</li> <li>- 도시건축의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 건축가, 구조 및 시공 등의 기술자, 관련 관청 담당자 등이 작성한 행정문서</li> </ul>                                  |
|            | 기타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과 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적 기록: 전시회, 언론, 문헌 등</li> <li>- 도시건축과 관련 주제에 대한 개인의 기록</li> <li>- 도시건축과 관련된 유물: 기념품, 엽서 등</li> </ul>                                                  |
| 원본의 복제     | - 원본의 촬영 또는 스캔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기록물 및 유물의 복제                                                                                                                                                                                  |
| 새로운 콘텐츠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의 촬영 또는 스캔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가공, 도시건축, 도구, 설치물 등의 (축소)모형 제작</li> <li>- 건축가, 예술가 등의 전문가에 의한 전시 콘텐츠 생산</li> <li>- 공모전 등을 통해 수집된 콘텐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기획 행사의 성과물</li> </ul> |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p25-26.

38) 배기동(2019.10.), “다변하는 오늘날을 위한 박물관의 변화”, 박물관신문, vol.578.,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museum/sm-8/pt-post/nd-84> (검색일: 2020.5.19.)

이와 같은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까지 유효한 콘텐츠 범위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범위에 유물을 포함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유물과 기록물, 아카이브는 같은 위계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 대분류는 원본·원본의 복제·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구분하였다.

#### □ 박물관에서의 연구와 큐레이션

도시건축박물관에서의 연구기능과 기관 비전에서 제시된 큐레이션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다. 박물관에서의 연구는 통상 학예연구라 불리지만,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변화는 학예연구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도록 바뀌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관 고유의 성격에 적합한 학예연구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기관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20년 10월까지 진행된 도시건축박물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유물의 수집과 해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향후 박물관 고유 업무와 성격이 단편적 유물수집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생산을 위한 아카이브 수집과 생산에 이르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박물관에서의 ‘연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체지향적(Object-oriented) 연구는 도시건축박물관에 부여할 수 있는 정통적인 박물관의 연구의 한 줄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방식은 미술관에서의 미술사 연구, 도시건축박물관에서의 도시건축사 연구와 같이 단편적인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의 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박물관이 사회와 소통하는 지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학예인력, 소위 큐레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예연구는 큐레이팅 연구를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큐레이팅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시이고, 관람객과 상호 작용하는 작가 또는 기획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sup>39)</sup> 2018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미술관은 무엇을 연구하는가?>의 내용으로 미술관에서의 연구의 범주가 제시되었다. 범주는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첫째, ‘미술을 통한 연구’, 둘째, ‘미술에 관한 연구’, 셋째, ‘미술을 위한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는 소위 “R”esearch라고 부르며, 체계적이고 학문적 조사를 의미한다. 둘째는 미술사 및 미학을 포함하며, 미술 자체에 대한 연구와 양식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작품 제작으로 연결되는 작업으로, 비전문적 탐구활동인 Searching을 뜻한다. 이외의 대안적 방법론으로는 ‘탐문 또는 조사’, ‘프로젝

39) 송수정, 김성은(2018),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국립현대미술관, p13.

트', '실천과 작업' 등이 연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sup>40)</sup> 이와 같은 논의는 도시건축박물관에서도 유효하다. 건립이 추진되는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유물 중심의 박물관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규모의 유물·아카이브와 함께 미술관식 전시·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선행하여 연구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에서도 공유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커미션 작업·민속학적 전시·인류학적 전시·지리학적 전시·콘텐츠 생산 체계·파빌리온·다큐멘터리 아카이브와 같은 키워드가 도시건축박물관 전시프로그램에 담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시 시스템은 '연구'에 기반을 둔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박물관 '연구' 기능은 그간 구체화된 적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범위 밖에 위치하지만, 향후 등장할 용어 정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 선행하여 제안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 도시건축박물관에서의 연구

| 구분            | 연구 내용                                                                                                                                                         |
|---------------|---------------------------------------------------------------------------------------------------------------------------------------------------------------|
| 건축과 도시를 통한 연구 | - 박물관에 수집된 유물과 아카이브,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도시건축 관련 자료와 현안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예: CCA, MAXXI의 아카이브 연구)                                                               |
|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연구 | - 박물관에 기 수집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건축역사 또는 동시대에 발생하는 도시건축 이슈와 현상에 관한 연구<br>- 도시건축분야의 일반적 연구방법론과 대상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민속학·인류학·지리학적 조사 방법론 및 도시건축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 (예: 서울역사박물관) |
| 건축과 도시를 위한 연구 | - 연구와 같은 위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커미션 작업, 파빌리온 건축 등 협력 작업<br>- 박물관의 유물과 아카이브를 대체하기 위한 창작물 및 설치물<br>- 도시건축 전시를 위한 전시 콘텐츠 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br>(예: 도시건축박물관 관련 auri수행 선행 연구)     |
| 탐문, 조사        | -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비평 또는 이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
| 그외            | 프로젝트 - 건축과 도시분야 인물과 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연구 중심의 작업                                                                                                                 |
| 실천, 작업        | - 건축과 도시분야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사회문화적 운동 등                                                                                                                     |

출처: 연구진 작성, 연구의 구분은 제임스 엘킨스(2018), 「미술관에서 연구란 무엇인가?」,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국립현대미술관, p24-28.의 미술사 연구의 분류를 따르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2019~2020년에 수행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의 성과물 또는 산물을 정리한 것임

40) 제임스 엘킨스(2018), 「미술관에서 연구란 무엇인가?」,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국립현대미술관, p24-28.

## 2) 유물에 대한 사례

### ①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유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령상 ‘유물’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유물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 박물관 및 부처에서 유물을 법적으로 범위를 정의한 경우는 문화재청 훈령인 「유물취급규정」<sup>41)</sup>이 확인된다. 이 규정은 문화재청이 소장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유물취급규정」에서 유물의 정의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라고 한정하고 있으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화류를 비롯하여 기타유물까지 총 1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물 구분은 ‘대분류·중분류·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외사항을 적어서 형식과 매체를 [표 3-3]와 같이 상세하게 구분하였다.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분야별 가치판단 방식으로 동산문화재 구분법이 바뀌었다.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서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서책류, 문서류, 서각류 등 ‘전적(典籍) 분야’,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조정하였다.<sup>42)</sup>

이와 연계하여서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인 “1. 회화류, 2. 조각류, 3. 석조물, 4. 공예류, 5. 전적류, 6. 고문서류, 7. 서간류, 8. 서각류, 9. 근대매체, 10. 고고자료, 11. 자연사자료, 12. 과학기술용구, 13. 민속자료, 14. 기타유물”의 구분이 폐지되었다.<sup>43)</sup>

이는 기존의 유물 분류체계가 개별 유형에 따라 구분된 한계점에 대하여 각 동산(動産)이 갖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sup>44)</sup> 자연사분야를 제외하고, 각 분야의 유물은 문화재 가치·상태, 제작연대를 공통기준으로 삼으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의 추가기준을 분야별로 각기 정한 기준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41) 「유물취급규정」, 시행 2019. 2. 22., 문화재청훈령 제488호, 2019. 2. 22., 폐지제정

4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4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44)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백현민, 2020.7.22. 전화 면담 중

[표 3-3] 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

|      |        |               |           |
|------|--------|---------------|-----------|
| 전통회화 | 산수화    | 불교공예          | 의식법구      |
|      | 인물화    |               | 공양구       |
|      | 풍속화    |               | 장엄구       |
|      | 기록화    |               | 사리장치      |
|      | 영모·화조화 |               | 복장품       |
| 근대회화 | 사군자    | 유교공예          | 기타        |
|      | 민화     |               | 제례용구      |
|      | 서양화    |               | 토·도기      |
|      | 동양화    | 도자공예          | 자기        |
| 불교회화 | 기타     | 전적류           | 필사본       |
|      | 괘불화    |               | 목판본       |
|      | 탱화     |               | 활자본       |
| 종교회화 | 경전화    | 고문서류          | 국왕문서      |
|      | 벽화     |               | 왕실문서      |
|      | 유교회화   |               | 관부문서      |
| 일반조각 | 무속화    |               | 사인문서      |
|      | 암벽조각   |               | 사찰문서      |
|      | 토우     |               | 서원·향교문서   |
|      | 십이지상   | 서간류           | 서예        |
| 불교조각 | 능묘조각   |               | 간독류       |
|      | 장승     |               | 시고류       |
|      | 여래     |               | 탁본류       |
|      | 보살     | 서각류           | 목판각류      |
|      | 천부     |               | 금석각류      |
| 근대조각 | 나한     |               | 인장류       |
|      | 명왕     | 근대매체          | 시청각류      |
|      | 기타     |               | 선사유물      |
|      | 인물조각   | 고고자료          | 자연사자료     |
| 석조물  | 종교조각   |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 자연과학유물    |
|      | 탑      |               | 생업기술용구    |
|      | 부도     |               | 천문지리기구    |
|      | 석등     |               | 계축교역 기술용구 |
|      | 당간지주   |               | 이동운송 기술용구 |
|      | 비석     |               | 공예기술용구    |
|      | 석조     |               | 음식제조용구    |
| 일반공예 | 기타     |               | 인쇄기술용구    |
|      | 목공예    |               | 놀이·유희용구   |
|      | 철공예    | 외국문화재         | 무기, 병기류   |
|      | 화각공예   |               | 도자        |
|      | 죽공예    |               | 공예        |
|      | 초고공예   |               | 조각        |
|      | 금속공예   |               | 회화        |
|      | 옥석공예   |               | 전적        |
|      | 복식공예   |               |           |
|      | 근대공예   |               |           |

출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별표 2], (2019년 12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표 3-4] 일반동산문화재 미술분야 가치 판단 기준

| 1. 미술 분야                                                          |           |                                                                             |
|-------------------------------------------------------------------|-----------|-----------------------------------------------------------------------------|
|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                                                                             |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공통<br>기준                                                          | 1) 문화재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 2) 문화재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가<br>기준                                                          | 4) 희소성    |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처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출처: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별표3],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그림 3-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519954>(검색일: 2020.9.4.)

박물관 등 유물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기관에서는 기관별 고유 특성에 맞추어 유물 등 소장품을 유물·소장품·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sup>45)</sup>은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4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시행 2019. 7. 2.,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23호, 2019. 7. 2., 일부개정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유물을 소장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고궁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세종대금박물관·국립세계문자박물관·기상박물관 등 다수의 국립 박물관에서 유물이라는 용어를 소장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규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유물을 소장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관련 법률의 변화 추이와 같이, 박물관이 수집해야하는 대상이 문화재적 가치를 지는 ‘유물’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역사계 박물관에서 역사적 가치의 범위를 동시대까지 확장하여 아카이브를 확보하고 있는 점도 이에 대한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최근 박물관 법제도 변화 : 형태중심의 유물에서 가치중심의 소장품으로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 개념의 확대 필요 (과거의 ‘유물’에서 현재의 ‘소장품’으로 개념 전환 필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유물과 박물관자료, 소장품 등 ‘수집해야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과 명칭은 향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물수집’을 단순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한정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박물관에서 ‘유물’을 ‘소장품’으로 확장하여 박물관 수집품을 통칭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의 거시적인 소장품 수집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건축기록물’의 개념은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넓게 설정하여 수집하고, 그것의 가치는 수집·평가연구전시 등 소장품을 둘러싼 전 과정에서 도시건축분야 전문 인력에 의해 가치가 판단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③ 국토부 소관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유물’의 용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국립항공박물관’과 ‘국토발전전시관’이다. 두 곳에는 각기 수집 대상을 ‘유물’과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별도의 「국립항공박물관법」<sup>46)</sup>과 동법 시행령<sup>47)</sup>,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sup>48)</sup>에서 ‘박물관자료’와 ‘유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부 훈령으로 전시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

46)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제정

47)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제정

48)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시행 2017. 5. 30., 국토교통부훈령 제853호, 2017. 5. 30., 제정

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유물과 자료의 범위를 국토부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정할 제도적 필요성은 없으나, 기관의 향후 유물과 자료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유효한 사례가 된다고 판단된다.

#### □ 국립항공박물관 : 법적 용어로서의 ‘박물관자료’와 유물구매 공고에서의 ‘유물’

국립항공박물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한 ‘박물관자료’를 준용하며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이라는 개념에 고고, 인류, 동물, 식물, 광물을 삭제하여서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으로 한정하였다.

[표 3-5] 국립항공박물관 박물관자료의 정의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1.,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제정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역사·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국토부 훈령인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sup>49)</sup>에서는 유물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자료의 수집·구입·수증·수탁 등을 위하여 ‘유물’을 정의하고 있다.

#### □ 국토발전전시관 : 규정에서의 ‘자료’와 유물구매 공고에서의 ‘자료(유물)’

국토발전전시관은 전시관이 다루는 아카이브의 시대적 범위가 근대 일부를 포함한 20세기 이후이므로, 유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현대의 시점에서 연구해석을 요한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갖는 유물의 특수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토발전전시관에서는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sup>50)</sup>에서 자료를 정의하고 있다. 국립항공박물관과 차이는 유물이라는 용어를 ‘자료’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료는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

49)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시행 2017. 5. 30., 국토교통부훈령 제853호, 2017. 5. 30., 제정

50)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10., 국토부훈령 제717호, 2016. 6. 10., 제정

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두 기관은 ‘유물’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지 않지만, 소장품의 수집과 기증 등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유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 소장품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두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3-6] 국립항공박물관 및 국토발전전시관 유물 관련 공고

| 공고일시        | 유물 관련 사항                             | 담당 부서  |
|-------------|--------------------------------------|--------|
| 2016.06.13. | 국토발전전시관 <b>자료(유물)</b> 구입 공고          | 수도권정책과 |
| 2016.07.01. | 국토발전전시관 <b>자료(유물)</b> 기증 홍보          | 수도권정책과 |
| 2016.11.22. | 국립항공박물관 <b>유물</b> 기증 운동 안내           | 항공정책과  |
| 2018.04.09. | 국립항공박물관 2018년 제1차 <b>유물</b> 공개 구입 공고 | 항공정책과  |
| 2018.06.01. | 국토발전전시관 <b>자료(유물)</b> 수집 구입 공고       | 운영지원과  |
| 2018.07.09. | 국립항공박물관 2018년 제2차 <b>유물</b> 공개 구입 공고 | 항공정책과  |
| 2018.09.19. | 국립항공박물관 2018년 제3차 <b>유물</b> 공개 구입 공고 | 항공정책과  |
| 2018.10.23. | 국토발전전시관 <b>자료(유물)</b> 제2차 구입 공고      | 운영지원과  |
| 2019.03.01. | 국립항공박물관 2019년 제1차 <b>유물</b> 공개 구입 공고 | 항공정책과  |
| 2019.06.18. | 국립항공박물관 2019년 제2차 <b>유물</b> 공개 구입 공고 | 항공정책과  |

출처: 국토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key=&search=%EC%9C%A0%EB%AC%BC&search\\_regdate\\_s=2013-07-01&search\\_regdate\\_e=2020-07-22&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Y&srch\\_usr\\_cntl=Y&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C%9C%A0%EB%AC%BC&cmspage=2](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key=&search=%EC%9C%A0%EB%AC%BC&search_regdate_s=2013-07-01&search_regdate_e=2020-07-22&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Y&srch_usr_cntl=Y&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C%9C%A0%EB%AC%BC&cmspage=2)  
(검색일: 2020.7.22.)

국립항공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법 상의 유물 개념의 기본적인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따르고 있다. 국토발전전시관은 학술적 조사 및 연구 등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 3-7] 국립항공박물관 박물관자료 및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의 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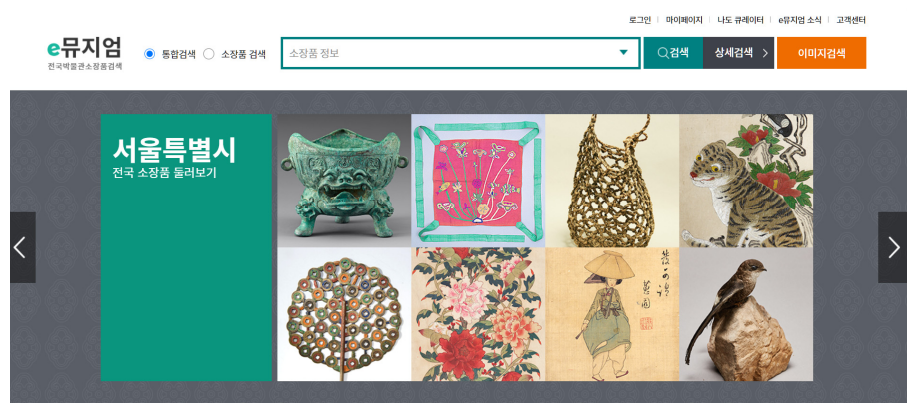
| 국립항공박물관 ‘박물관자료’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
|-----------------------------------------------|--------------------------------------------------------------------------------------|
|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한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에 관한 것 |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
|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                  |

출처: 연구진 작성

### 3. 기존 박물관에서의 건축 및 도시분야 유물 사례

#### □ 개요

e뮤지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국내 박물관으로 등록된 기관들의 소장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sup>51)</sup>’과 연계하여 서비스된다. 각 소장기관에서 소장품의 내용과 공개수준은 결정할 수 있어서 자료제공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20년 7월을 기준으로 총269개 기관에 1,882,414개 소장품이 있다.



[그림 3-5]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시스템, <http://www.emuseum.go.kr/main> (검색일: 2020.6.11.)

본 연구는 유물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물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건축, 도시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인 조사 차원에서 ‘건축’, ‘도시’를 키워드로 전체적인 소장품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목록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은 시사점이 없어서 전반적인 수량과 특이사항을 서술하였다. 키워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으로 유물사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활용하는 체계로 소장지역, 소장구분,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여부, 국적, 재질, 분류체계, 소장품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1)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소개 웹사이트,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relics\\_management\\_system](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relics_management_system)

## 1) 건축분야

### □ 건축

건축을 키워드로 확인되는 소장품은 총 508건이다. 국립기관 중 주요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체로는 유리건판사진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 고려시대의 일부 건축 부재(고적 1269), 철재 건축장식편(고적 923) 등이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총 68건이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고등학교와 건축 관련 교과서들이 다수 확인된다. 별도로 청년건축인협의회 창립총회 관련 자료(구입 7989, 7990, 7991), 북한에서 발간된 기념비적 건축물 우표첩(아고 9158), 서울올림픽건축 보고서(한국건축가협회, 한박 917) 등이 있다.

### □ 건축계획

건축계획이라는 키워드의 소장품은 총 20건으로 국립 17건, 공립, 법인/사립, 학교가 각 1건씩이다. 국립에 소장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이다. 공립기관은 부천교육박물관, 교과서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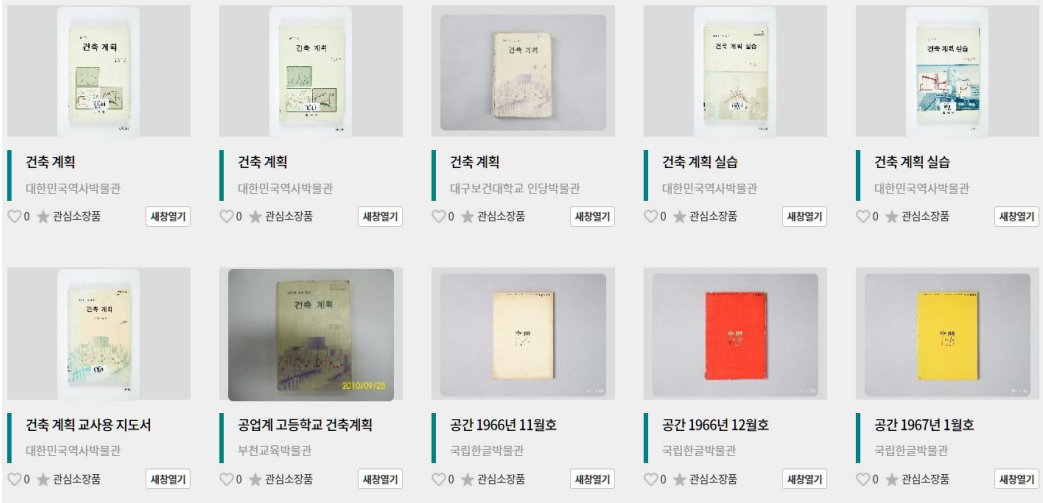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1970년대 공업계 교과서인 '건축계획'(이관 7520)이 년도별 다른 본(1979, 1987, 1989, 1990, 1996, 1997)이 소장되어 있다. '건축계획 실습'(이관 7564) 등도 있다. 표지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타 기관에 소장된 자료들도 교과서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건축계획 자료는 8건으로 1960년대 공간잡지로 창간호인 1966년 11월호(한기 2112)~1967년 5월호(한기 2118), 1967년 11월호(한기 2119)이다.

### □ 건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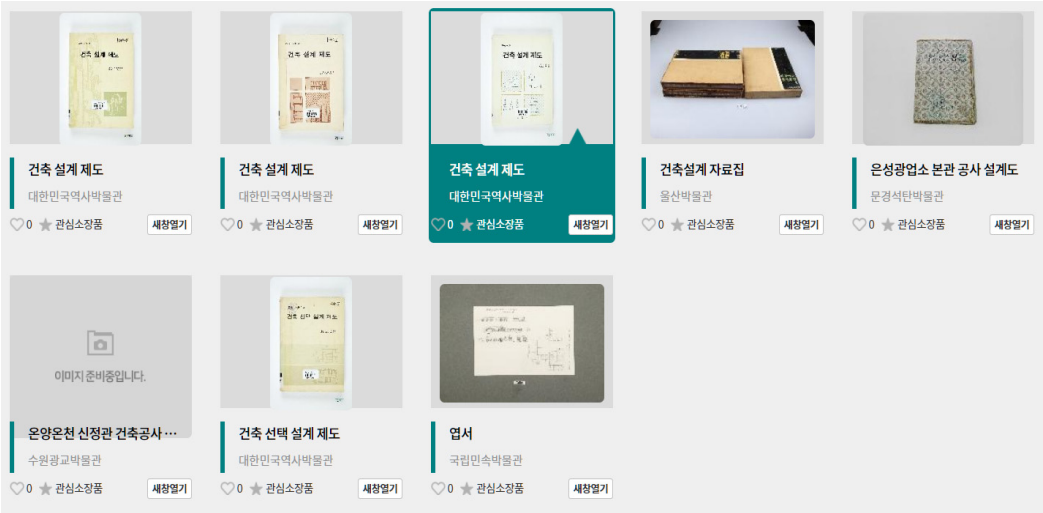
건축설계라는 키워드의 소장유물은 총 8건으로 국립 5건, 공립 3건이다. 국립에 소장된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공립기관은 문경석탄박물관, 울산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는 일제강점기의 엽서로 '온양온천 신정관건축공사설계안과 설계도'(민속25896)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자료(사운 57421)가 수원광교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1980년대 공업계 교과서인 '건축 설계 제도'

(이관 7531)와 1990년, 1996년 판 그리고 건축 선택 설계 제도(이관 7530)이 소장되어 있다. 울산박물관에는 ‘건축설계 자료집’(울산 9276),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광업소 본관 공사 설계도’(도면 815)등이 있다.



[그림 3-6] 건축계획 유물사례(e뮤지엄)  
출처: e뮤지엄, <http://bitly.kr/pRiperoBu4W> (검색일: 2020.6.11.)



[그림 3-7] 건축설계 유물사례(e뮤지엄)  
출처: e뮤지엄, <http://bitly.kr/kr9kfoSsxH2> (검색일: 2020.6.11.)

## 2) 도시분야

### □ 도시

도시를 키워드로 확인되는 소장품은 총 1,311건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 412건, 국립중앙박물관에 21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8건 등으로 확인된다. 건수로는 확인되지만 도시풍경(덕수 4481), 세계의 도시와 민족 제7권(구 5353)을 제외하고는 무관한 자료들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산업기지 및 신도시건설과 수자원개발 등'(한박 899) 등의 자료가 확인된다.

### □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는 키워드의 소장유물은 총 75건으로 국립 17건, 공립 58건이다. 국립에 소장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이다. 공립기관은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원주역사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등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1970년대 도시계획 교과서(이관 6930), 삼천포 도시계획재정비계획(한박 1767), 대서울 20년 도시계획 최신 서울특별시전도(한박 5965), 도시기반조성계획(수증 3690), 도시조경·식재계획(수증 3680), 도시기본구조계획(모형1)(수증 3682), 과천도시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한박 6053), 반월신공업도시개발기본계획 보고서(한박 874), 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설계 보고서(한박 880) 등이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는 총 8건으로 1960년대 공간잡지로 창간호인 1966년 11월호(한기 2112)~1967년 5월호(한기2118), 1967년 11월호(한기 2119)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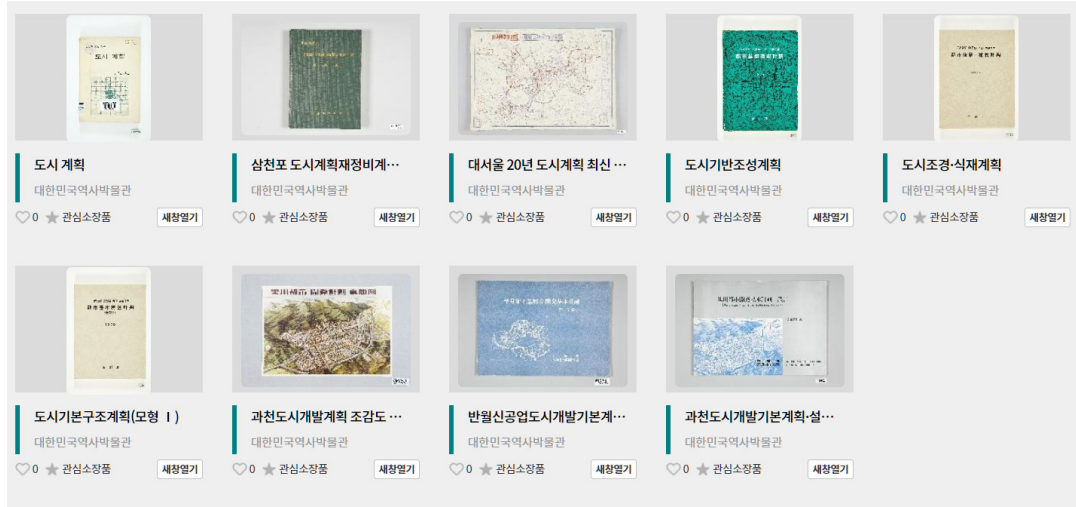
### □ 도시설계

도시설계라는 키워드의 조사결과물은 총 8건으로 국립 1건, 공립 7건이다. 국립에 소장된 1건의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설계보고서'(소장품번호 한박 880)이다. 공립기관에 소장된 자료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개소에 7건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대전도시설계 기초조사연구의 보고서' 시리즈 3종이 복본으로 존재하며, '2016년 대전도시 기본설계'가 있다.

'대전도시설계 기초조사연구 문화예술지구 도시설계'(소장품번호 010604(김수진)



2213, 2214), ‘대전도시계획 기초조사연구 도시설계 요약보고서’(소장품번호 010604(김수진, 2211, 2212), ‘대전도시계획 기초조사연구1 도시설계’(소장품번호 010604(김수진), 2208, 2209), ‘2016년 대전도시 기본설계(소장품번호 010604(김수진) 140))’이다.<sup>52)</sup>



[그림 3-8] 도시계획 유물사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출처: e뮤지엄, <http://asq.kr/VriipZDDXaf> (검색일: 202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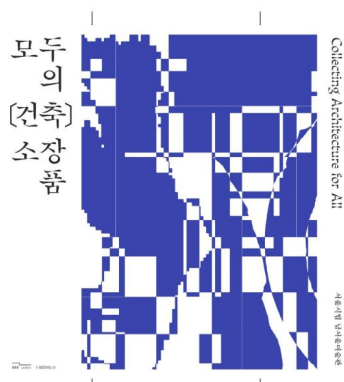


[그림 3-9] 도시설계 유물사례(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설계보고서)  
출처: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202500100088000000> (검색일: 2020.6.11.)

5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소장 자료는 김수진의 기증 자료이다. 김수진은 196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00년 충청남도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였다. 퇴직 후 관련 자료를 기증하였다. (2020.7.20. 담당자 인터뷰조사)



서울시립미술관의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사례의 경우, 다양한 매체들이 전시되었다. 전시 이전에 다양한 전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은 큐레이터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가지게 되었고,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주제로 제시되었던 전통, 현대의 창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소장품으로 다루고자 하였던 큐레이터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의 작가와 작품들 그리고 제작과정에 생산되는 다양한 매체들이 소개되었다. 설계 과정은 물론이고 설계이후에 작품이 다시 전시되는 과정에 생산되는 영상, 사진도 전시되었다. 전시에는 AURI의 보고서도 전시되었는데 다만, 이것은 전시품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아카이브의 체계와 관련한 도서들 속의 하나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전시되었다.



[그림 3-10] (좌)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건축 소장품 展〉 포스터, (우) 전시사례

출처: (좌)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ex/exDetail?exNo=463118&glolangType=KOR&searchDateType=CURR> (검색일: 2020.7.22.) ; (우)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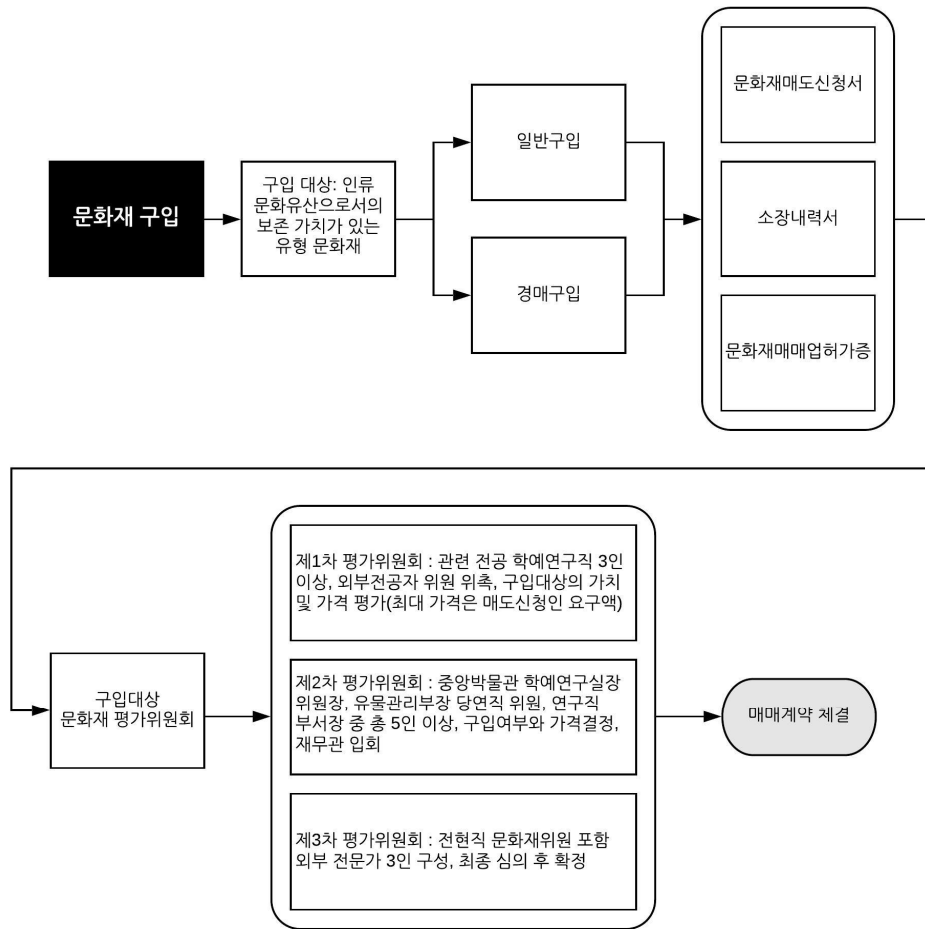
## 4. 유물수집 및 관리

### □ 구입

- 구입 행위를 위한 구입 대상품의 범주 설정(가치 판단 기준 설정)
  - 일반 구입과 경매로 구분
  - 매도를 원하는 자 또는 업체가 박물관에 매매 신청서와 소장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사례)
  - 구입대상에 대한 문화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회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함
  - 1차 평가: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가치 및 가격을 평가
  - 2차 평가: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
  - 3차 평가: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구입의 최종 결정

### □ 구매

- 공개구입
  - 유물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입 대상 주제와 대상시기를 공고하고 소장자가 매도의향서를 통하여 희망가격을 제시 후 평가위원회 평가 후 매매 계약 체결
  -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 구입예정 자료는 일정기간 공개하여 불법문화재 여부를 검증
-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한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공개구입 기간 외에 구입
-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
- 현지구입
  - 유물 접수가 어려운 국내외 유물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



[그림 3-11]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의 문화재(동산) 구입 흐름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시행 2020. 4. 7.,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35호, 2020. 4. 7., 일부개정, 법률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작성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 및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공고 사례

공고문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 제2차 구입 공고 |                                                                                                                                        |       |     |       |              |       |            |       |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 담당자 | 김상범 | • 연락처 | 02-3425-8910 | • 등록일 | 2018-10-23 | • 조회수 | 522 |
| • 첨부파일                   | <div>HWP</div> <div>HWP</div> <div>HWP</div>                                                                                           |       |     |       |              |       |            |       |     |
|                          | <div>국토발전전시관_자료(유물)_수집_2차_구매공고.hwp (45Kbyte)</div> <div>[첨부서식1]_자료매도신청서.hwp (16Kbyte)</div> <div>[첨부서식2]_매도대상자료명세서.hwp (10Kbyte)</div> |       |     |       |              |       |            |       |     |

공고 제2018-1366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 제2차 구입 공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립 국토발전전시관에서는 전시 및 소장품을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유물)구입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0. 23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5159](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5159)

| 국립항공박물관 2019년 제2차 유물 공개 구입 공고 |                                                                                                                 |       |     |       |              |       |            |       |     |
|-------------------------------|-----------------------------------------------------------------------------------------------------------------|-------|-----|-------|--------------|-------|------------|-------|-----|
| • 담당부서                        | 항공정책과                                                                                                           | • 담당자 | 박다정 | • 연락처 | 02-2064-0794 | • 등록일 | 2019-06-18 | • 조회수 | 131 |
| • 첨부파일                        | <div>HWP</div> <div>HWP</div>                                                                                   |       |     |       |              |       |            |       |     |
|                               | <div>붙임_1_국립항공박물관_2019년_제2차_유물_공개_구입_공고문_1부.hwp (27Kbyte)</div> <div>붙임_2_유물매도신청서_등_각_1부_붙임.hwp (21Kbyte)</div> |       |     |       |              |       |            |       |     |

공고 제2019-8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32호】

국립항공박물관 2019년 제2차 유물 공개 구입 공고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유물 공개 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7829](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7829)

※ 유물 구매 공고 내용 (전시물의 범위(주제, 사업명 등), 유형 등)

#### 건축 및 도시분야 사례

→ 유물전략, 개관시점에 전시계획과 연계하여 전시물 수집 공고하고  
예시로는 주요 사업 명칭을 제시하거나 수집하려는 자료 유형 등 제시(사진, 조감도, 도면)

공고 제2016-867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구입 공고 중 첨부 문서

□ 도시·토지 확장계획 & 주택, 건축 관련 전시품

\* 도시·토지 확장계획 관련

- 해방 직후~1960년대 도시계획 관련자료(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50년대 한국 전쟁 후 파괴된 도시, 마을, 언덕 위 판자촌과 언덕 아래 기와집, 개발이전의 한강, 노점과 행상 등의 생활상 관련자료, 50~60년대 공영 주택 단지(청량리 부흥주택) 관련자료
- 영동개발 관련자료  
예시) 원본사진, 개발계획 관련 조감도, 설계도면, 공사현장 근로관련 박물 등
- 한강변개발사업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 등)  
예시) 공유수면매립사업, 여의도개발사업, 잠실개발사업 관련자료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상계동/목동 신시가지, 개포 3단지 등) 관련자료
- 1990년~2000년대 이후 신도시 생활모습 관련자료  
예시) 서울-경기도 연결도로, 신도시로의 이사, 광역버스 출퇴근 관련 사진, 신도시 관련 뉴스, 크레인 사진, 신도시 전경, 단독주택단지, 땅콩주택, 주거양식변화관련 사진자료 등

\* 주택, 건축 관련

- 60~70년대 주택/아파트건설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종로 재개발, 세운상가 건립, 한강연안개발, 여의도 윤중제 공사, 시범아파트 설립, 잠실개발 관련자료, 강남아파트 단지, 반포 아파트 도면 및 생활모습 관련자료, 1960년대 마포최소단지형아파트, 70년대 압구정 현대 고층 아파트
- 80년대 아파트건설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임대주택, 상계동 초고층 아파트, 2000년대 브랜드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관련자료,
- 시대별 상징 건축물 관련자료  
예시) 58년 카톨릭회관, 67년 경향신문사옥, 71년 삼일빌딩, 87년 LG트윈타워, 99년 무역회관, SK사옥, 2014년 롯데월드몰,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한국건축문화대상·녹색건축대전·대한민국한옥 공모전·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수상 건축물 관련자료
- 주택은행 관련자료  
예시) 내집마련 관련자료, 주택청약, 국민주택기금 관련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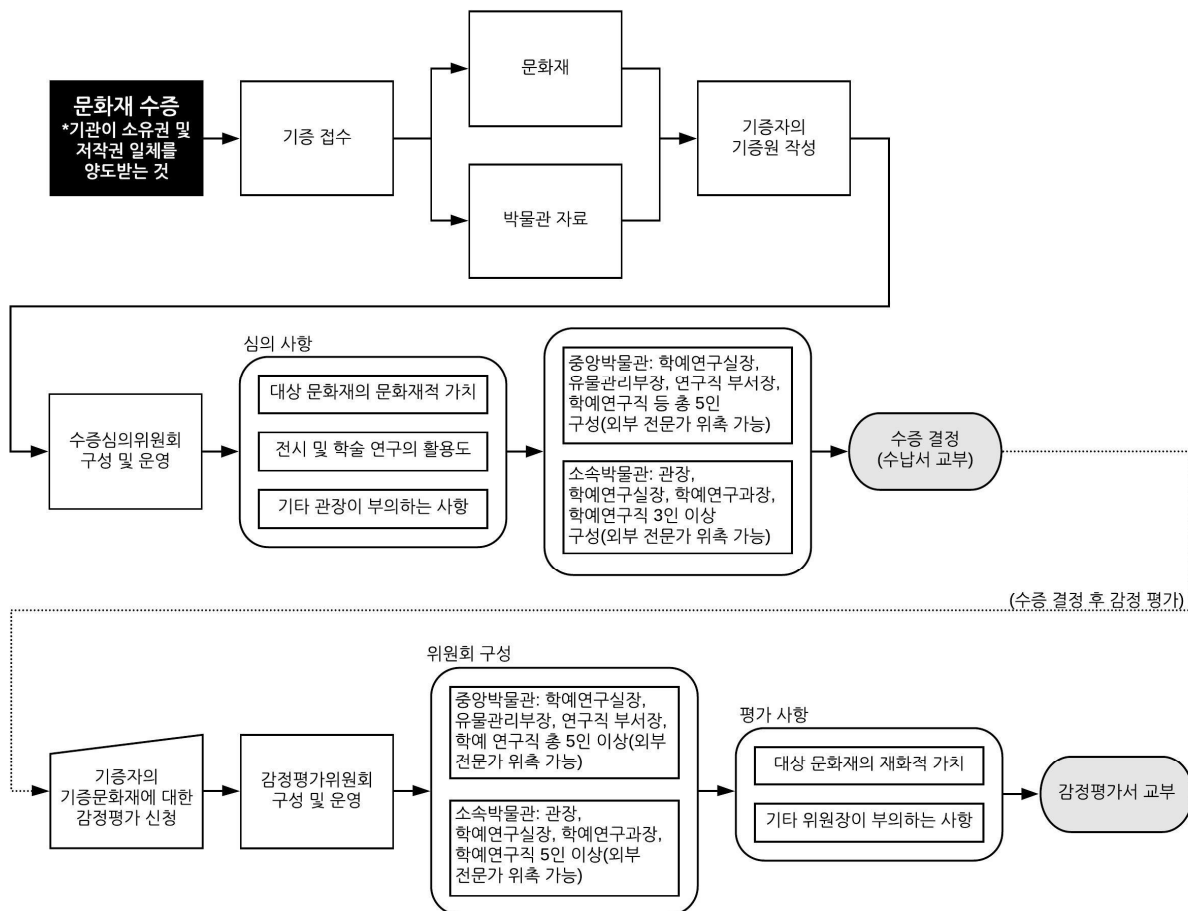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유물) 구입 공고(2016.6.13.)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26840&key=&search=&search\\_regdate\\_s=2015-06-17&search\\_regdate\\_e=2016-06-17&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n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ospag e=2\(접속일 : 2020.11.1.\)](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26840&key=&search=&search_regdate_s=2015-06-17&search_regdate_e=2016-06-17&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n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ospag e=2(접속일 : 2020.11.1.))

## □ 수증/기증

### • 관련 법령에 따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름
- 수증의 경우에도 유물수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수증 여부를 평가
- 수증 결정 후 감정평가는 기증자 요청이 있을 시 별도로 진행
-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증 대상의 문화재적 가치·전시 및 학술 연구 활용도 등을 심의
- 수증 결정 후 기증자 요청 시,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문화재의 재화적 가치 등을 판단함



[그림 3-12]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의 문화재(동산) 수증 및 감정평가 흐름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시행 2020. 4. 7.,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35호, 2020. 4. 7., 일부개정, 법률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작성

#### □ 자료관리

- 국토부 소속기관이 소요한 물품을 이관받아 소장 가능
-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음

#### □ 자료관리의 주체

- 국토부소속의 공무원이 자료관리관으로 임명
  - 수장고 출입 시 자료관리관 혹은 지정하는 자의 입회 또는 승인

#### □ 자료관리

- 국토부 소속기관이 소요한 물품을 이관받아 소장 가능
-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음

#### □ 자료관리의 주체

- 국토부소속의 공무원이 자료관리관으로 임명
  - 수장고 출입 시 자료관리관 혹은 지정하는 자의 입회 또는 승인

#### □ 위원회 구성

- 자료수집 선정위원회
  - 구입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 사항 심의
  - 실무적으로는 유물수집 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치되, 문화재급 자료의 경우 생략이 가능
-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 구입,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

## 5. 예산을 고려한 유물 수량 검토

### 1) 개요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 예산 및 유물 수량 : 10,000점, 216억원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산정된 예산규모와 유물 수는 기존의 유사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의 개관준비 단계의 사례를 참고로 10,000점에 218억원을 산정하였다.

당초, 사례로 참고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복제·대여 예산에는 복제까지를 포함한 것이었으나, 국토부에서 제시한 예산은 순수 유물의 구매예산과 관련한 예산으로 복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관이전까지 필요한 유물수집에 따르는 비용인 유물 관련 위원회 운영, 임시수장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별도 책정이 필요하다.

#### • 예산 관련

- 유물 확보와 관련한 예산으로 순수 구매와 관련한 예산과 구매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비용(관련 위원회 운영 등)과 구매 이후 유물에 대한 처리, 보존과 관련한 보험료, 운반비, 관리 인건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수집방식에 따라서는 구입, 기증, 대여, 복제 및 모형 등이 있어서 구입 및 기증에 대해서는 유물확보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전시설치 예산 등에 복제 및 모형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개관 시점 이전에 확보된 유물의 경우, 정리 및 연구를 통하여 소주제별 기획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야 함
- 도시건축박물관에는 기존의 문화시설의 예산과 다르게 수장전시, 복합전시 등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전시설치 예산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시공간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수장전시, 복합전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유물과 관련하여서는 수장전시라는 부분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서 원-자료가 박물관으로 반입 시에 해포, 정리 작업 등이 전시될 수 있는 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유물 확보 예산 외에도 ‘유물과 관련한’ 예산 확보로 보험, 운반, 보존처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명확한 업무범위 등을 고려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 2) 유물 확보 사례검토 (구매, 경매, 기증 등)

### □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구매 사례

통상적으로 박물관의 소장 유물 구매 가격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적인 유물 구매 절차는 매년 1~3회 정도의 공개구입 공고되면 유물 소장자(문화재매매업자, 개인소장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박물관에서는 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가하여서 소장자와 박물관 사이에 상호 합의되면 구매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같은 유물이라도 판매자의 희망가격이 다를 수 있고 박물관의 예산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물평가위원회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구입 유물에 대한 정보는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sup>53)</sup>」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소장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본 자료는 개관준비시점이 아니라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이 안정화된 단계에서 확보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즉,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정책 속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확보되어야 한다. 개관시점에는 기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필수자료는 확보될 필요가 있다.

목록 중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소장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유물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유물의 매체유형은 서화·지도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기관의 특성상 평가분야는 근대 자료·현대 자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 단일 물품인 경우와 철도 기념승차권 컬렉션과 같은 일련의 자료들이 모아진 것도 있다. 구입액에 있어서도 경희궁도(서궐도)의 경우, 1.8억원, 일제강점기의 사진은 70만원~300만원,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되었던 1960년대의 잡지 '주택'은 20만원 등으로 다양하다.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상태, 소장자 등 물품마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기 어려우며 관련분야의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

53) 서울역사박물관(2018),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https://opengov.seoul.go.kr/council/18409879> (검색일 : 2020.5.18.)

[표 3-8]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입 사례(2018년)

| 분과       | 평가분야 | 유물명칭                           | 시대           | 수량 | 구입액(천원) |
|----------|------|--------------------------------|--------------|----|---------|
| 서화류      | 서화류  | 경희궁도(서궐도)                      | 19세기 초반      | 1  | 180,000 |
| 현대-생활사   | 현대자료 | 철도 기념승차권 컬렉션(철도청,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1970년~2000년대 | 1  | 5,000   |
| 일제-지도    | 지도류  | 경성시기지계획평면도                     | 1935년        | 1  | 4,000   |
| 일제-지도    | 근대자료 | 경성용산시가도                        | 1911년        | 1  | 3,000   |
| 일제-사진    | 근대자료 | 사진-반도호텔                        | 일제강점기        | 10 | 1,200   |
| 일제-사진    | 근대자료 | 사진-조선호텔                        | 일제강점기        | 1  | 700     |
| 현대-문화예술  | 현대자료 | 서울올림픽 기념 우표칩                   | 1988년        | 1  | 500     |
| 현대-사진    | 현대자료 | 사진엽서-용산병영, 미도파 백화점 등           | 일제강점기~미군정기   | 4  | 300     |
| 현대-도시성장사 | 현대자료 | 주택 제19호 -대한주택공사 발행 잡지          | 1969년        | 1  | 200     |

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18),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https://opengov.seoul.go.kr/council/18409879> (검색일: 2020.5.18.), 일부 발췌

## □ 일반경매 사이트 등을 통한 잠정 유물 금액

국내에서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이 경매에서 다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간혹, 관련 단체들의 행사를 통해서 일부 진행된바 있다. 기존의 경매시장에서 건축, 도시분야의 유물은 지도류 정도이며, 도면, 스케치, 건축 및 도시분야의 인물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거래는 거의 없다.

기존의 박물관에서는 해외에 반출되었던 문화재급이나 해외의 건축, 도시에 관한 자료들은 경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국가차원에서 수집되는 자료이고, 해외보다는 국내의 건축, 도시 관련 자료의 유물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경우 경매를 통한 확보는 최소화하여 진행될 것이다.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 대상으로 건축 및 도시를 소재로 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참고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최소영의 작품을 참고할 수 있다. 최소영 작가는 데님을 재료로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작품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2013년의 '부산 영도다리'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74,473(약 2억874만원)에 거래된바 있다.



[그림 3-13] 경매를 통한 유물 사례(최소영, 부산영도다리)

출처: 크리스티, <https://www.christies.com/lotfinder/Lot/choi-so-youngb-1980-busan-young-do-bridge-5691469-details.aspx> (검색일: 2020.7.24.)

## □ 기증 및 수집공모

최근, 박물관 외에도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공모전, 아카이브 공모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한 <간척자료 수집 공모전>사례의 경우, 총상금 1천만원 규모로 수집자료 공모를 진행한바 있다. 주요한 자료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대국민에게 홍보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나 간단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물은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자료사진을 촬영하여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별도로 전시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로 관련 자료 수집 용역 등과 연계한 이벤트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2020 공원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민 사진 공모> 경우, 총상금은 100만원으로 진행하였다. 남산공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발굴하고 장소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각종 SNS를 통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서 접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 서울시, LH가 추진한 <2020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은 총상금 600만원으로, 용산기지에 관련한 물품의 사진, 사연, 미군부대와의 기억 등 공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 3) 개관 이전까지 추정 연차별 수량 산출

#### □ 유사사례 검토 : 서울역사박물관(개관이전 시점)

서울역사박물관은 연면적 20,166㎡ 규모로 도시건축박물관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관 이후로는 여러 분관들이 추가되어 규모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개관준비 시점에 설정하였던 유물 수량을 목표로 비교하였다.

[표 3-9]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시점 수집방식별 예산배정액

| 수집방식 | 구입   | 기증 | 대여 | 복제·모형 | 합계   |
|------|------|----|----|-------|------|
| 예산액  | 165억 | 3억 | 4억 | 28억   | 200억 |

출처: 서울특별시(1995),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지」, 서울특별시, p195.

[표 3-10]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시점 연도별 유물수집 계획 및 배정 예산액

| 구분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합계     |
|--------------|-------|------|-------|-------|-------|-------|--------|
| 예산액<br>(백만원) |       | 540  | 2,000 | 8,000 | 4,000 | 2,000 | 16,540 |
| 목표수량(점)      |       | 450  | 1,540 | 3,370 | 3,630 | 1,010 | 10,000 |
| 수집방식         | 구입    | 150  | 500   | 1,000 | 2,000 | 500   | 4,150  |
|              | 기증    | 300  | 800   | 2,000 | 1,000 | 500   | 4,600  |
|              | 대여    | 0    | 200   | 300   | 500   | 0     | 1,000  |
|              | 복제·모형 | 0    | 40    | 70    | 130   | 10    | 250    |

출처: 서울특별시(1995),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지」, 서울특별시, p195.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유물

2014년 국립박물관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산산출을 위한 자료로 수량 및 예산 등이 검토된바 있다. 당시 설정된 유물수량은 서울역사박물관을 참고로 하여서 총 10,000점으로 설정하였고 당시 예산은 200억원 규모로 잠정적으로 설정되었다.

설정된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자료이므로 향후 국토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의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기본방향
  - 임시수장공간은 관리 및 이동 등을 고려하여 서적, 도면, 스케치, 사진, 엽서, 지도 등을 중심으로 확보
  - 모형류(대규모 전시품, 전시패널, 건축도시분야 모형, 건축 도구 등)은 최소한으로 진행
  - 모형류는 연간 수집량의 7%로 잠정적으로 산정
- 개관시점 목표수량 : 10,000점(개관 2025년)
  - 서적, 도면, 스케치류 9,300점, 모형류 700점

[표 3-11]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연차별 유물수집 수량 (2021년-2025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유물수(건)          |      |       |       |       |        |
| 연간              | 450  | 1,540 | 3,370 | 3,630 | 1,010  |
| 누적              | 450  | 1,990 | 5,360 | 8,990 | 10,000 |
| 유물수(건)          |      |       |       |       |        |
| 서지류             | 419  | 1,432 | 3,134 | 3,376 | 939    |
| 모형류             | 31   | 108   | 236   | 254   | 71     |
| 임시수장공간 면적 추정(㎡) |      |       |       |       |        |
| 연간              | 40   | 80    | 160   | 320   | 200    |
| 누적              | 40   | 120   | 280   | 600   | 800    |

출처: 연구진 정리

## □ 임시수장공간 면적 추정

유물 수장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필요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독립적인 공간을 활용 시에는 유물포장, 해체, 분류 등 작업 공간도 소요된다. 현재 고려되는 대상 유물의 유형은 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급 수준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자료는 없을 것으로 산정하였다.

현재시점에서, 유물 유형은 일반적인 책, 바인더 등을 제외하고는 박스 등을 활용하여 유사한 유물을 공동으로 수장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2021년 확보 목표수량을 500점으로(서지류 465점, 모형류 35점) 설정 시 40㎡가 필요하다. 모바일렉 등을 활용하여 최소 5단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관시점에 수장공간은 최적의 수장 공간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임시수장면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임시수장공간으로 고려되고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의 수장공간 활용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4] 건축소장품의 특수성 사례(모형·모바일렉 관리 사례)

출처: (좌)경기관광공사, [https://ggtour.or.kr/story/travel.php?tmenu=&smenu=&style=&tsort=1&mst=8&board\\_code=5&board=5&s\\_category\\_name=&key=&no=64667&mode=newdetail&page=1&s\\_tag=안양가볼만한곳&s\\_admin\\_no=](https://ggtour.or.kr/story/travel.php?tmenu=&smenu=&style=&tsort=1&mst=8&board_code=5&board=5&s_category_name=&key=&no=64667&mode=newdetail&page=1&s_tag=안양가볼만한곳&s_admin_no=) (검색일: 2020.12.21.); (우)Archi-Depot, <https://archi-depot.com/en/> (검색일: 2020.12.21.)

#### 4) 도시, 건축분야 유물의 특수성 고려

##### □ 건축가, 인물들의 자료

해외의 아카이브는 건축가를 중요한 대상으로 다룬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건축을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당연히 예술가의 작업을 국가에서 다룰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를 소장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가들을 국가차원에서 아카이브를 진행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일부,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집을 진행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예전의 NAI는 자국의 건축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전략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료를 소장한다는 측면에서 건축물, 도시조성 과정에 대한 기록이 더 수집되고 있다.

##### □ 건축, 도시분야의 자료

건축, 도시분야의 자료는 물리적 결과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 체계에서 어떤 자료가 물리적 결과물의 생산 과정을 잘 보여주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택개발 역사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주택사(住宅史)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수 없다.

“도시건축박물관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건축, 도시자료



중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가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2014년 전시한 <아파트 인생>은 아파트 관련 전시이다. 이 전시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아파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소설·사진·그림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 5) 임시수장공간 검토

### □ 검토방향

일반적인 박물관 개관 이전에 소장품에 대한 확보를 진행할 경우 임시수장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기증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구매한 자료를 보관하고, 아카이브 자료에 대해서는 분류 및 정리 작업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크게 3가지 방향을 검토하여 볼 수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를 대여하는 것, 국토부 및 관련 기관의 공간 활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다.

수장공간은 임시적이지만, 유물에 준하는 수장고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즉, 항온·항습을 비롯하여 방충 처리 등이 이루어져만 한다. 유물 등록을 위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 □ 국토발전전시관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부 본청에서의 관계부서는 국토정책과이다. 국토발전전시관 내 수장공간은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1수장고에는 지류(도서류, 도면류 등)를 2수장고에는 박물관 자료(건축도구 등)를 보관하고 있다.

수장공간 내부는 전실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으며, 수장공간 내부에는 항온·항습·방충 관련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 유물은 모바일렉을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다. 전시관의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사항이어서 별도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등의 작업은 외부업체에 의뢰되고 있다. 현재 소장품은 18,000점 수준이며, 추가적인 유물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전시공간 개편 방안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장공간의 임시적 활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임시수장공간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서류, 지류 등 비교적 부피가 작은 유물을 중심으로 수집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규모대비 소장품 확보 측면에서 적정하다.

## □ 향후 방안

수집된 자료는 1차적인 방충 처리 등은 외부업체를 통해서 반입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부문에 대한 검토, 열람 권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단순 임시수장의 개념을 넘어서서 일부 자료는 개관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발전전시관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서 국토부 내부에서의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국토발전전시관 소장품 중 건축, 도시자료에 대한 해제작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관시점 이전에 유물확보 관련 사업추진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 등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5] 국토발전전시관 수장고(위 : 1수장고, 아래 : 2수장고)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2020.8.18.)





---

## 제4장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 기획

1. 개요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3. 유사사례를 통한 사업추진방안 검토
  4. 유물조사 연구 기획
- 

### 1. 개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해서 2장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유물수집과 관련하여서 주요 논의 핵심과 2020년에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021년에 진행되어야 할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당면해 있는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기획을 위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장품이 없는 상황에서의 박물관 개관 준비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둘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지 않은 근현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박물관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 셋째, 건축 및 도시분야의 특수성은 어떻게 고려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고민하였던 기관으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건축박물관이 다양한 근현대사의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성과물들은 박물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관련 연구자 및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주제 학술연구가 주제별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자료 측면에 집중한 사례로 문화재청의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작업에서는 주제별로 연표를 작성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목록을 조사하고 각 유산별로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과 유물구입비용 검토

역사계 박물관과 미술계 박물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기존의 박물관을 구분하는 체계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박물관의 유형이 구분되고 전시방식, 운영인력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이익(benefit)과 비용(cost)이 산출된다. 역사계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의 지방분관 박물관들(경주, 광주, 청주, 전주, 부여, 김해, 춘천)의 사례와 국립민속박물관 사례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국내의 유사박물관 사례에서 참고가 없어서 해외의 여러 박물관 사례의 기능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전시공간은 프랑스의 사례, 아카이브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는 형식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기준은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사례가 다양하지 않아서 통상적인 비용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박물관학적 관점에서는 역사계박물관은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계의 엄밀한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 기관의 이름으로 전시되는 것에는 기관의 책임이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에 따라서는 전시 주제, 내용을 검증하는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록관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록물은 생산주체가 생산해낸 자료를 의미하며 그것은 결재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소속원들의 검토와 승인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기록물이 생산된다. 이러한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될만한 가치가 있는 지의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영구히 보존, 관리되게 되는 것이다.

2015년도 국립박물관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시건축박물관 총사업비로 편성된 유물구입비는 총 216억(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제시 하였던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참고로 1점당 약 2,098천원으로 제시하였다. KDI에서는 2005년~2008년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구입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1점당 2,259천원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에는 도시건축박물관이 국보, 보물급의 유물을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sup>54)</sup>

54) 이종연, 김선경 외(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p214.

[표 4-1] 예비타당성 조사 시 도시건축박물관 유물구입의 추정 근거(국립민속박물관 사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유물밀도    | 전시수량   | 구입수량   | 구입총액      | 단가      |
|-------------------|---------|--------|--------|-----------|---------|
| 국립민속박물관<br>유물구입비용 | 1.09점/㎡ | 4,517점 | 4,856점 | 10,972백만원 | 2,259천원 |

출처: 이종연, 김선경 외(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p214.

[표 4-2] 국립박물관단지 내 타 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 유물구입비

(VAT 포함)

| 구분 | 개별박물관       |             |            |                | 통합시설<br>(어린이박물관) | 합계    |
|----|-------------|-------------|------------|----------------|------------------|-------|
|    | 국가기록<br>박물관 | 도시건축<br>박물관 | 디자인<br>박물관 | 디지털문화<br>유산영상관 |                  |       |
| 금액 | -           | 216억원       | 20억원       | -              | -                | 236억원 |

출처: 이종연, 김선경 외(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p219.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국립박물관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전시대상에 의한 박물관 분류에 따르면 도시건축박물관은 ‘인문과학계 중 미술계(4차, 건축)’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국내 건축분야 박물관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과 당시 국토부 답변자료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역사계 박물관’으로 분류<sup>55)</sup>되었다.

#### □ 소주제별 수집 유물의 점수(點數)<sup>56)</sup>와 유물의 다층적 개념 설정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9,561점과 국토부에서 초기수집목표로 제시한 약 10,000점의 유물수집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설립 비전과 목표, 공간구성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물수집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와 2020년 진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안에서 제시한 공간구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의 역사’를 대주제로 하여, 총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소주제 중 ‘도시건축의 현재’와 ‘미래의 도시건축’은 동시대성이 강조되는 주제이므로, 유물수집과는 다른 방식의 콘텐츠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55) 이종연, 김선경 외(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p127.

56) 유물은 점, 건으로 구분하여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명확한 정의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련의 자료가 집합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불국사 석탑 보수과정에서 발굴되었던 자료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무구정광대다리니경’등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는 등의 가치가 있으나 국보 제126호 1건에 포함된 1점이다.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 주제는 역사라는 대주제에 부합하는 소장품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초기수집목표로 제시된 약 10,000점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소주제로 한정하여서 2021년에 수집될 필요가 있다. 각 주제별 3,000점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널리 사용하는 ‘소장품’ 개념 또는 국토부 소관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1장의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컬렉션’이 구축되지 않은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비전, 목표, 또는 공간구성에 의해서만 박물관 유물(Museum Object)의 가치를 부여할 단서가 제공된다. 유사 박물관에서 통상 유물의 가치를 구분하는 박물관학적 가치(Museality)가 형성되어 있다면, 소장품 구성을 아카이브를 제외한 유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물은 그 자체로도 성립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간 도시건축박물관의 논의에서 제기된 ‘先운영조직’ 마련의 필요성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상 “각 부처는 문화 전시 연구형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 형태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추진한다.”<sup>57)</sup>에 따라 박물관을 계속 운영할 조직은 설립은 2년 전에 가시화될 수 있다. 따라서 KDI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 유물구입비의 실 집행은 박물관 실제 인력에 의해 집행이 불가하다. 다만, 운영예정 기관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담당 공무조직을 구성하여, 임시적으로 박물관학적 가치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는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유물수집에 있어서, 도시건축박물관이 가져야할 박물관학적 가치를 체계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 유물(Relic, Antiquity) 및 컬렉션(Collection) 수집 불가에 따른 대안적 수집 방법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설립 이전단계에 수집되는 소장품은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 약 10,000점으로 의미를 한정할 수 있다. 이 중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의 3대 주제만이 ‘역사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유물수집의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 약 10,000점은 각 주제별로 3,000점으로 분할하되, 그 가치의 첫째 척도는 ‘역사적 가치’로 한정한다. 통상 박물관에서 유물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 역사적 가치에 의해 부가적인 가치가 수반된다. 유물을 뜻하는 Relic, Antiquity는 그 의미 자체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시대의 기법이나 사회상을 반영한 소장품은 시대적 가치를 표명하나, 현대의 것(Things)에서는 그것이 갖는 시간

57)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안전부, p29.

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이 유물로서의 부가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에 기반을 둔 가치는 부여될 수 없다. 더욱이 국내에 도시건축 분야 소장품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연구 기반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 외의 다른 가치를 유물의 박물관학적 가치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① 1단계: 역사적 가치만 평가하는 아카이브 수집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물 수집의 대안적 방법은 각 주제별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를 주제별로 약 3,000점을 모으는 것이다. 이는 룰리스트로서 그 자체로 유물 후보군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역사적 가치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수집하는 대상이 갖는 역사상 지점을 연표로써 제시하여 아카이브가 속한 시간적 위치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연표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사건의 집합체로 전 시, 연구 주제에 따라 제시될 수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림 4-1] 도시건축박물관 유물의 역사적 가치 인정 범위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1. 재구성

#### ② 2단계: 역사가에 의한 통사 작업과 일상 기억을 수집하는 공공역사 작업 병행

역사의 기술 방법은 역사가에 의해 정리된 통사를 정리하는 방식과 비-역사가에 의해서 수집된 기억의 응집으로서 시간을 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현대사에서는 전자를 정치사 또는 구조사(構造史) 등으로 명명하며, 후자는 공공역사 또는 일상학, 민속학 내지 지역연구(Area Studies)로 불린다.<sup>58)</sup> 특히 후자의 경우는 박물관에서 그간 전시의

58) 이동기(2018), 「현대사 몸타주」, 돌베개, 서문; Ilaria Porciani(2016), “공공역사와 박물관: 복합적 관계”, 「현대사광장」 제8호, p125.; 김덕목(2019), “현대사회에서 민속학의 역할과 방법 모색”, 「한국민속학」 69, p49.; 홍석준(2010), “지역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 「石堂論叢」 46, p97. 각 내용으로 요약

원천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연구자, 아키비스트에 의해 수집된 사건 관계자의 자료나 전시과정에서 큐레이터에 의해 수집된 구술자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도시와 건축의 역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도시부문의 역사는 정부 기구나 공공기관 또는 역사가에 의해 서술된 사례가 많으며, 건축부문의 역사는 유명 건축가 중심으로 한 컬렉션 구축 또는 공공건축의 연대기로 정리되었다. 건축부문의 역사는 도시부문에 비해 오히려 현대사적 관점으로 기술된 역사이며 동시에 기억에 의존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건축전시의 주축을 담당했던 국립현대미술관과 베니스 비엔날레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인물과 사회가 갖고 있는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경향을 보여 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 이전의 수집하는 유물은 전시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역사가에 의한 ‘통사 작업’ 동시에 일상 기억을 축적하는 ‘공공역사 작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1단계로 역사적 가치만으로 수집한 주제별 약 3,000점 아카이브 중 ‘유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범주화(Categorizing)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역사가에 의해서 서술된 통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역사가에 의존한 전시 및 유물 조사는 불가하다. 따라서 일상에서 수집된 기억을 병치하여 자료에 사료적 가치를 발굴해야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각 소주제별 수집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3] 소주제별 수집처 및 수집방법

| 구 분        | 수집처                                                | 수집방법             |
|------------|----------------------------------------------------|------------------|
| 삶의 공간      | 통사 작업<br>LH 등 주택부문 공기업,<br>아파트 건설사, 도시재생<br>참여기업 등 | 문헌 발굴 및 정리       |
|            | 공공역사 작업<br>아파트 거주자, 건설 노동자,<br>일반 시민 등             | 면담조사             |
| 합의와 동의의 공간 | 통사 작업<br>국토부, 행복청등                                 | 문헌 발굴 및 정리       |
|            | 공공역사 작업<br>국토개발, 재개발지역, 신도시<br>거주자 등               | 면담조사             |
| 도시·건축과 사람  | 통사 작업<br>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br>엔지니어링 회사, 공무원 등           | 면담조사, 문헌 발굴 및 정리 |
|            | 공공역사 작업<br>건축가·도시계획가 등 관련<br>분야 인물과 주변 사람 등        | 면담조사             |

출처: 연구진 작성

### ③ 3단계: 아카이브에서 유물을 추출하는 방법

유물조사 과정은 3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아카이브수집 단계, 2단계는 아카이브 중 유물의 가치를 범주화하는 단계, 3단계는 아카이브 중 유물을 정리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이미 지어진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하거나 수증 받는 과정과 유사하지만, 컬렉션이 구축되지 않은 도시건축박물관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설계·전시설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시활용성’은 역사적 가치에 이은 2번째 가치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외의 가치는 2021년 예정된 유물조사의 조사자와 주무부처, 공공건축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문위원회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표 4-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조사 가치체계 수립 단계

|     |                           |
|-----|---------------------------|
| 1단계 | 역사적 가치 - 연표 등을 통한 역사성 평가  |
| 2단계 | 전시 활용성                    |
| 3단계 | 유물조사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를 통하여서 결정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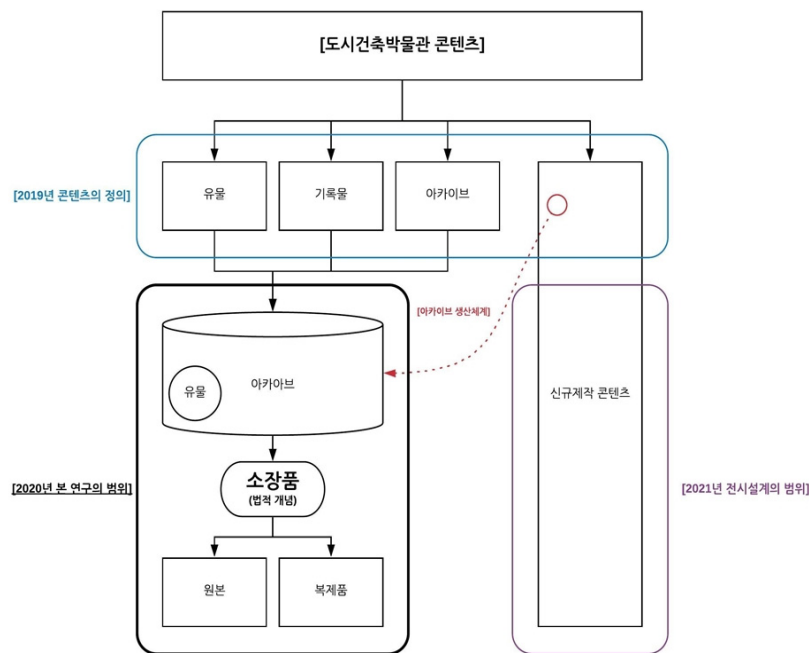
박물관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세팅(Display Setting)과 프롭스(Props, 소품)으로 각각 구분된다.<sup>59)</sup> 전자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서, 한국의 박물관에서는 통상 인테리어 영역에 속한다. 인테리어 외에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설치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는 공간 환경 속에 놓이는 유물과 같은 소품을 의미한다. 박물관 공간은 이 둘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현재 도시건축박물관은 후자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후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세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2021년 박물관 건립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시설계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소품의 일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의 10% 정도를 소품으로서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소품은 유물과 아카이브 모두가 속할 수 있는데, 이미 역사적 가치와 전시활용성이라는 가치로 평가된 아카이브는 실제 수집과정에서 유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아카이브에서 추출된 유물은 주제별로 약 300점 가량 제안되어야 한다.

300점의 유물과 그 외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도시건축박물관 개관 이전의 소장품 체계는 이에 대한 해석과 신규 콘텐츠 제작이 건립 이전 단계에서 병행된다. 도시건축박물관 설

59) 박재연, “한국미술이론학회 추계 콜로кви엄 2020”, 2020.9.26. 토론 중



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신규제작 콘텐츠를 잠정적 아카이브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박물관 운영방식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신규제작 콘텐츠 또한 소장품의 일환으로 유물의 가치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도시건축박물관이 유물 중심의 역사계 박물관으로 기능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이전단계까지 역사계 박물관과 미술계 박물관의 양쪽의 가능성은 모두 염두에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한 향후 추진 절차의 제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4-2] 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과 전시설계(콘텐츠)와의 관계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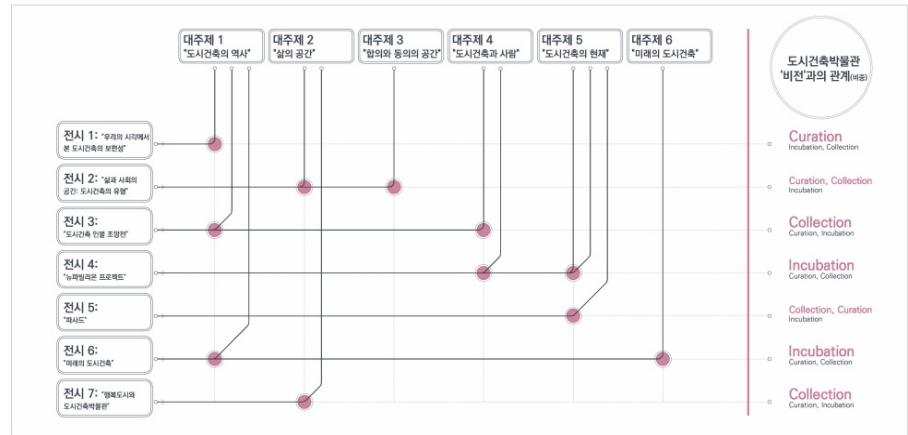
## □ 전시와 유물

2020년 11월 시점에서 개관시점에 도시건축박물관의 주제나, 전시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하여 확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시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전시와 유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sup>60)</sup>에서 개관시점에 전시는 7개로 제시된바 있다. 올해 진행된 설계공모 당시

6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84.

에 제시되었던 주제별 키워드의 관계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가치평가가 단계별로 설정된다. 전시주제의 설정은 개관 시점이전에 전시감독, 큐레이터에 의해서 설정될 것이다.



[그림 4-3] 개관 전시프로그램(안) - 기관 비전 및 대주제 간 관계도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84.

통상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관련한 교육 등을 통하여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명확한 유물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개관시점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개관전시를 중심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기단계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를 위한 유물 확보와 별도로 전략적인 컬렉션 작업을 통한 전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기록전, 도시·건축 인물 조망 시리즈 전 등은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한 전시가 가능할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유물조사를 통하여 결과물로 설정된 유물목록을 바탕으로 전시설계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기본설계와 완료되는 5개월 정도의 시점에는 전시설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설계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유물조사 과정에서도 건축 및 도시분야를 총괄하여서 포함하고 있는 주제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유물과 전시를 분리하여서 생각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성과물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개관전시

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유물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수집된 자료와 전시의 활용에는 차이가 있다.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건축 및 도시분야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는 개관 시점까지 확보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유물 목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건축의 역사를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를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이라는 주제와 연계하여서 수집되어야 한다.

[표 4-5]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개관시점의 주제, 키워드, 전시의 관계

| 주제             | 개관전시<br>키워드                                                     |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도시건축의 보편성   | 삶과 사회의 공간                   | 미래를 위한 도시건축                     | 도시·건축 인물 조망 시리즈 전 | 뉴파빌리온 프로젝트 | 파사드 | 도시건축 박물관 건립 기록전 |
|----------------|-----------------------------------------------------------------|------------------------|-----------------------------|---------------------------------|-------------------|------------|-----|-----------------|
| 도시 건축의 역사      | 건축역사, 도시역사, 도시·건축 해석, 도시·건축 비평, 건축물 보존, 도시 기록, 도시·건축 유형 등       | 짓는 것, 목조건축과 석조건축, 건축재료 |                             |                                 |                   |            |     |                 |
| 삶의 공간          | 도시 사건·이벤트, 일상성, 주거 공간, 건축 공간, 공간감(Space Perception)             |                        | 도시건축 유형의 탄생<br>도시건축의 변천과 소멸 |                                 |                   |            |     |                 |
| 합의와 동<br>의의 공간 | 법, 제도, 사회 공간, 권력 공간, 시민참여, 유형, 공공 건축 등                          |                        | 도시건축의 현재                    |                                 |                   |            |     | v               |
| 도시·건축<br>과 사람  | 건축가와 계획가, 연구자, 운동가, 기획자, 사용자, 도시건축 관련 단체 및 협회, 건축·도시 관련 사무소 등   |                        |                             |                                 | v                 |            |     |                 |
| 도시·건축의<br>현재   | 건축재료, 건축요소, 건축 유형, 도시·건축 화두, 도시·건축 공모전, 도시·건축 교육, 최신 도시·건축 정책 등 |                        |                             |                                 |                   | v          | v   | v               |
| 미래의 도시·<br>건축  | 건축기술, 도시형태,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재료,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VR 등 공간 체험         |                        |                             | 변화의 도시<br>미래의 집<br>미래의 건축<br>교육 |                   | v          |     |                 |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공모지침, p16.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86-168. 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음영표시는 전시 흐름도가 제시된 사례 표에 v 표시는 개관전시와 주제가 매칭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건축박물관건립기록전은 주제에 따르면 합의와 동의를 공간, 도시건축의 현재와 연결

## □ 도시건축박물관 유물에 관한 법 제도적 정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문화 및 산업과 관련한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에 관한 것으로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 ‘학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는 근대(개화기), 현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시기에 대해서도 수집한다.”

[표 4-6] 도시건축박물관 유물 가치 판단 기준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 공통<br>기준 | 1) 유물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 2) 보존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br>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가<br>기준 | 4) 희소성   | 형태 · 기법 · 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br>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 · 사건과의 관련성 등이<br>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출처: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별표3],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일반동산문화재 미술분야 가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 전략(안)

첫째,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어떻게 건축, 도시분야를 인식하고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건축 및 도시분야와 관련한 전시, 출판된 자료를 수집한다. 단행본, 잡지 등을 포함하여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정책수립, 홍보를 위해서 발간하였던 간행물도 포함하여 수집한다.

둘째, 건축 및 도시분야의 조성과정에 참여하였던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부 각 부처에서 공급하였던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공공건축물 혹은 각종 시설들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건축 및 도시분야 공공기록물 중 ‘도면류’, ‘모형류’에 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도면은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중요한 매체이자 표현의 수단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여 국가기록원 등 주요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류’자료를 수집하고 건축, 도시를 재현하여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매체인 ‘모형류’를 수집한다.

넷째, 건축 및 도시분야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창작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 사회의 산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의 스케치, 도면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건축물의 일부(부재)를 수집한다. 또한, 건축 및 도시를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도 수집의 대상에 포함한다.

### 3. 유사사업을 통한 사업추진방안 검토

#### 1) 근현대사 쟁점별 수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부터 유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현대를 시기로 한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과정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시작하였다. 근현대 시기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설립 준비 초기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다양한 논쟁적인 이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에 연구를 통하여 역사적인 해석과 관련한 유물들의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근현대박물관 협력망, 현대사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아카이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 현대사 쟁점 주제 학술연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현대사의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학계의 다양한 논쟁을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4-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 쟁점 주제 학술연구 사례(2013년-2017년)

| 년도   | 사업명                                 | 연구수행기관      |
|------|-------------------------------------|-------------|
| 2017 | 외환위기 이후20년, 한국사회 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 연구    | (사)한국사학회    |
|      | 을미사변 관련 국제관계 컬렉션 구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베트남에 간 기업과 근로자 구술채록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소재 6.25전쟁 관련 자료 조사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한반도 냉전사의 재해석                        | (재)동아시아연구원  |
| 2016 | 대한민국 국방사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 (사)한국정치학회   |
|      |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와 극복                     | (사)경제사학회    |
|      | 그리스 소재 6.25전쟁 관련 자료 수집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 6.29 선언 관련 주요 인사 구술채록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년도   | 사업명                         | 연구수행기관           |
|------|-----------------------------|------------------|
| 2015 | 광복 70년, 냉전과 탈냉전의 한국사회       | 한국정치학회           |
|      | 사회·문화 주제로 본 광복 70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분단70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 북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 비교사적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미디어와 한국 현대사: 감성과 소통의 변용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4 | 한국 무역의 성장과 경제사회의 변화         | (사)경제사학회         |
|      | 한일국교정상화 연구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      | 한국과 세계:현대사와 합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구술채록 사업     | 한국구술사연구소         |
|      | 대한민국 교육 70년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3 | 태국 소재 한국현대사 아카이브 자료조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      | 필리핀 소재 한국현대사 아카이브 자료조사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외국인 유학생 인식조사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광부 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 2013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터키 소재 한국현대사 사진·동영상 자료 조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      | 주요 선진국의 역사 논쟁 사례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much.go.kr/museum/cnts/academicresearch1.do#> (검색일: 2020.9.9.) 정리하여 구성

## □ 근현대 박물관협력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이후에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근현대박물관의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방분관들에 대한 중앙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근현대박물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시에 각 박물관들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박물관 근현대 자료의 등록과 관리’ 등의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100여개의 박물관 등이 협력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록제작이나 협력망 기관 워크샵, 학습지개발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주제별 분류체계

자체적인 기록 작업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자체적인 기록 작업은 ‘현대사 현장기록’으로 2015년 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2018년 강원/경남/경북, 2019년 충북/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로 조사된 자료들은 콘텐츠화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 주요 건축물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수집자료로는 사진작가 전민조 기증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부산역사문화대전, 경향신문사 소장자료, 청도군새마을운동, 김대중평화센터 소장자료, 김영삼민주센터 소장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 소장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대사에 대한 분류체계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환경, 교육과학, 문화예술 등의 대분류 속에 세부항목들을 마련하고 있다.

| 정치행정   |       | 경제산업   |     | 사회환경 |      | 교육과학 |    | 문화예술 |    |
|--------|-------|--------|-----|------|------|------|----|------|----|
| 정치     | 법률    | 경제     | 산업  | 사회   | 치안   | 교육   | 학술 | 문화   | 예술 |
| 행정     | 사법    | 건설(토목) | 금융  | 여성   | 환경   | 역사   | 과학 | 체육   | 종교 |
| 외교     | 군사    | 무역     | 재정  | 자연   | 사회운동 | 기술   | 의학 | 언론   | 방송 |
| 통일(안보) | 민주화운동 | 기업     | 공산품 | 환경운동 | 시민운동 | 통신   | 교통 | 문학   | 음악 |
| 독립운동   | 식민통치  | 노동운동   |     |      |      |      |    | 만속   |    |

[그림 4-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 주제별 분류체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archive.much.go.kr/cnts/cont01/page01.do> (검색일: 2020.7.21.)



## 2) 유물로서 등재 가능한 목록 조사 :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sup>61)</sup>

### □ 근현대 건축시설 분야 목록화 조사

문화재청에서는 근현대 자료의 조사와 관련하여서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법」에 근거한 문화재의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잠정적인 문화재로 관리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목록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나 주제별로 수집대상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방식은 주제별로 개관 및 주요 연표를 작성하여 역사적인 맥락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유물 현황 조사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각 주제별로 문화재적 가치평가 기준과 보존방안 제시, 문화재 등록세부기준(안)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전략 마련과 관련하여서도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부문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서는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주요 연구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주요 소장기관이나 개인을 아는 경우에는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략적으로 파악된 현황을 주제별로 정리하기에는 용이한 방식이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개 유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화 작업은 크게 ‘근현대 건축시설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11~2020년도)’과 ‘근대 동산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06~2020년도)’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행 주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근현대 건축시설 분야 목록화 조사’는 연간 2개 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건당 5천만원 규모로 진행하였고, 목록화는 200여 건 정도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조사를 살펴보면, 군 주둔지(2011), 태평양 전쟁유적(2013~ 2016)등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건축가와 건축물 유형-공공행정시설(2014), 체육시설(2015), 교육시설(2017), 산업시설(2018)등-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물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이 존재하는 현장이 존재하고 박물관에서는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유물-도면, 모형,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61)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2020.5.31.)을 바탕으로 재정리

출처: 문화재청 웹사이트(2020),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Id=76874&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Id=76874&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검색일 2020.7.19.)

[표 4-8] 문화재청 근현대 건축·시설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11년~2020년)

| 건명                                  | 기간                      | 금액<br>(천원) | 용역기관              | 건수    | 비고            |
|-------------------------------------|-------------------------|------------|-------------------|-------|---------------|
| 군 주둔지내 근대 건축·시설 목록화조사(웅산미군부대)       | '11.4.14<br>~'11.11.13  | 49,300     | (사)도코모모코리아        | 154   | 용역<br>(수의재공고) |
| 군 주둔지내 근대 건축·시설 목록화조사(경기 대구, 경남 부산) | '12.3.30<br>~'12.10.29  | 49,500     | 배재대학교<br>산학협력단    | 115   | 용역<br>(수의재공고) |
| 태평양전쟁유적 목록화조사<br>(부산, 경남, 전남지역)     | '13.3.11<br>~'13.11.5   | 43,636     | 연세대학교<br>산학협력단    | 178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br>연구용역(건축가작품)       | '13.2.13<br>~'13.10.10  | 56,000     | 충남대학교<br>산학협력단    | 277   | 용역(경쟁)        |
| 태평양전쟁유적 목록화조사<br>(지역)               | '14.2.13<br>~'14.10.10  | 48,878     | 건국대학교<br>산학협력단    | 146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br>연구용역(공공행정시설)      | '14.2.24~<br>'14.10.21  | 47,500     | 충남대학교<br>산학협력단    | 189   | 용역(경쟁)        |
| 근현대 체육시설 일제조사연구                     | '15. 3. 3<br>~'15.10.28 | 50,000     | (사)우리문화유산<br>연구원  | 113   | 제한경쟁          |
| 태평양전쟁유적 목록화조사                       | '15.3.10<br>~'15.11.4   | 50,0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402   | 제한경쟁          |
| 태평양전쟁유적 목록화조사                       | '16.3.14<br>~'16.11.8   | 49,5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721   | 제한경쟁          |
| 근대문화유산기행코스개발연구                      | '16.3.23<br>~'16.11.17  | 61,727     | (재)한국문화재정<br>책연구원 | 337   | 제한경쟁          |
| 근대문화유산기행코스개발연구                      | '17.5.15<br>~'17.9.11   | 32,750     | 주식회사 클콩           | 10    | 제한경쟁          |
|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br>용역(교육시설)        | '17.4.3.<br>~'17.11.28  | 46,500     | 충남대학교<br>산학협력단    | 167   | 제한경쟁          |
|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연구용역                   | '18.3.20.<br>~'18.12.14 | 74,1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221   | 제한경쟁          |
| 근대 서당 목록화 연구용역                      | '18.8.30.<br>~'18.12.14 | 9,7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7     | 수의계약          |
|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2차 연<br>구용역            | '19.8.29.<br>~'19.12.31 | 59,4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116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3차 연<br>구용역            | '20.3.19.<br>~'20.11.13 | 86,400     | 명지대학교<br>산학협력단    |       | 제한경쟁          |
| 계                                   |                         | 814,891    |                   | 3,153 |               |

출처: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2020.5.31.); 문화재청 행정자료

\* 음영은 건축 및 도시분야 관련 자료임

## □ 근대 동산 분야 목록화 조사

‘근대 동산 분야 목록화 조사’는 사업시행 초기인 2007년에는 총4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이후로 연간 2건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2천만원~1억원 정도로 다양한데, 이는 각 주제별로 업무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서 확보된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연구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학회 및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동산분야 목록화 조사 중 건축 및 도시분야와 관련된 자료들은 각 분야별로 목록화 조사 작업 중 건축 및 도시분야와 연계된 유물을 목록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대철도 분야 목록화 조사에는 주요역의 개축공사, 교량설계도 등이 조사되었다. 대부분은 철도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고 연구에는 한국철도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철도박물관 학예부장, 전시연구사가 참가하였다.

2008년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에서 건축과 도시분야 관련 유물로는 ‘광주제중원 머릿돌’, ‘1920년대 수술실’ 등이 조사되었다. 각 자료는 광주기독병원, 여수애양원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각각 건축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당시 건물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유일한 유물로서의 의미와 1920년대의 수술실 상황을 보여주는 오래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평가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조사 대상자가 건축분야 전공자인 경우에는 주로 건축 분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2013년 주생활분야 목록화 조사는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현대주생활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주요한 기관 및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거와 관련하여 ‘개관’, ‘연표 작업’과 ‘유물 선정 기준과 범위’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연구원으로는 김란기(역사문화정책연구원), 권기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김종영(단국대학교 강의를수), 고주환(주)티엠새한 대표이사, 최병화(계명대학교 객원연구원,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여하였다.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는 1장 분량의 조사카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정보는 조사에 관한 일반정보, 명칭,소재정보, 특징, 제작사용정보, 수집관리사항, 유물내용에 관한 서술, 사진, 등급평가 등이다.

|                   |                                                                                                                                                                                                                        |                              |              |              |           |             |     |     |
|-------------------|------------------------------------------------------------------------------------------------------------------------------------------------------------------------------------------------------------------------|------------------------------|--------------|--------------|-----------|-------------|-----|-----|
|                   |                                                                                                                                                                                                                        |                              |              | 번 호          | 5 - 1 - 1 |             |     |     |
| 구 분               | 조 사 관<br>련                                                                                                                                                                                                             | 조사일자                         | 2013. 05. 30 | 목 록 화<br>분 류 | 대 분 류     | 사회생활분야      |     |     |
|                   |                                                                                                                                                                                                                        | 조 사 자                        | 김 종 영        |              | 중 분 류     | 주(주거)       |     |     |
|                   |                                                                                                                                                                                                                        | 조사장소                         | 우리한글박물관      |              | 소 분 류     | 주택설계도면/관계서류 |     |     |
| 호 칭               | 현 재 호 칭 (1)                                                                                                                                                                                                            |                              | 옥인동 백미원주택 도면 | 현 재 호 칭 (2)  |           |             |     |     |
| 소 재<br>정 보        | 주 소                                                                                                                                                                                                                    |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235-4         |              |              |           |             |     |     |
|                   | 소 유 자                                                                                                                                                                                                                  | 김상석                          |              |              |           |             |     |     |
|                   | 관 리 자                                                                                                                                                                                                                  | 김상석                          |              |              |           |             |     |     |
|                   | 연 락 처                                                                                                                                                                                                                  | HP : 010-5224-5252           |              |              |           |             |     |     |
| 특 징               | 용 도                                                                                                                                                                                                                    | 주택건축용 도면                     |              |              |           |             |     |     |
|                   | 규 격 (MM)                                                                                                                                                                                                               | 가로 344, 세로434 / 가로600, 세로390 |              |              |           |             |     |     |
|                   | 재 질                                                                                                                                                                                                                    | 트레싱지, 청사진, 도화지               |              |              |           |             |     |     |
|                   | 보 존 상 태                                                                                                                                                                                                                | 보통                           |              |              |           |             |     |     |
| 제 작<br>용 보        | 제 작 연 도                                                                                                                                                                                                                | 1903, 1914                   |              |              |           |             |     |     |
|                   | 제 작 사                                                                                                                                                                                                                  | 프랑스, 일본                      |              |              |           |             |     |     |
|                   | 저 자                                                                                                                                                                                                                    | 프랑스인 J. Silbertstein 및 일본인   |              |              |           |             |     |     |
|                   | 참 고 사 항                                                                                                                                                                                                                | 축척:1/100, 총 20매              |              |              |           |             |     |     |
| 수 집<br>관 리<br>사 항 | 수 집 방 법                                                                                                                                                                                                                |                              |              |              |           |             |     |     |
|                   | 수 집 자                                                                                                                                                                                                                  | 김 상 석                        |              |              |           |             |     |     |
|                   | 관 리 사 항                                                                                                                                                                                                                | 개인소장                         |              |              |           |             |     |     |
| 유 물<br>내 용        | 인왕산 자락의 옥인동 47번지에 건축된 백미원(송석원)의 관련도면이다. 내력은 1903년 프랑스 공사에 부임한 "민영찬"이 프랑스인 저택의 설계도면을 복사 입수하고, 본인은 건축자금이 없어 건축의 실현을 못하던 중 윤덕영이 그 도면을 인수하여 1914년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도면의 일부를 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주요도면으로 건축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              |              |           |             |     |     |
| 사 진               |                                                                                                                                    |                              |              |              |           |             |     |     |
| 등급평가              | 역사성                                                                                                                                                                                                                    | ○○○                          | 학술성          | ○○○          | 보존상태      | ○○          | 희소성 | ○○○ |

[그림 4-5] 조사카드 사례(백미원주택 도면)

출처: 단국대산학협력단(2013.10.), 「2013 근현대 문화유산 주생활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문화재청, p246.

[표 4-9] 문화재청 근대 동산 분야 목록화 조사 현황(2006년~2020년)

| 건명                     | 기간                          | 금액<br>(천원) | 용역기관                              | 건수  | 비고             |
|------------------------|-----------------------------|------------|-----------------------------------|-----|----------------|
| 태극기분야 조사               | '06-'07.10월<br>(1년)         | -          | 문화재청                              | 40  | 자체수행           |
| 근대자동차분야<br>목록화 조사      | '07.6.25~10.25<br>(4개월)     | 17,500     | 한국자동차문화<br>연구소(전영선)               | 38  | 용역(수의)         |
| 근대철도분야<br>목록화 조사       | '07.7.18~11.18<br>(4개월)     | 22,000     | (사)철우회(한국철도<br>산업연구원)(이정구)        | 228 | 용역(수의)         |
| 근대전기통신분야<br>목록화 조사     | '07.7.18~12.18<br>(5개월)     | 20,400     | (사)한국정보통신역<br>사학회(김부중)            | 88  | 용역(수의)         |
| 근대회화분야<br>목록화 조사연구     | '07.8.17~12.17<br>(4개월)     | 38,000     | (사)한국근현대미술<br>사학회(김영나)            | 64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대공예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08.4.25~10.22<br>(6개월)     | 32,000     | (사)근대황실공예문<br>화협회(곽동해)            | 164 | 용역<br>(수의,재공고) |
|                        | '09.5.15~7.14<br>(2개월)      | 12,000     | 한국전통문화<br>연구소(최공호)                | 28  | 용역(수의)         |
| 근대의료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08.4.14~11.25<br>(7.5개월)   | 27,000     | 서울대학교<br>산학협력단(의사학<br>교실)(황상익)    | 113 | 용역(수의)         |
| 근대문학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09.4.13~10.10<br>(6개월)     | 38,900     | 서울대학교 산학협<br>력단(권영민)              | 160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대군사유물<br>목록화 조사 연구    | '09.3.30~8.29<br>(5개월)      | 28,000     | 육군사관학교화랑대<br>연구소(이내주)             | 118 | 용역(경쟁)         |
| 이화장 소장<br>유물 목록화       | '09.11.16~12.30<br>(1.5개월)  | 19,500     | (사)건국대통령 이승<br>만박사 기념사업회<br>(이주영) | 209 | 용역(수의)         |
| 근대음악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0.4.8~10.7<br>(6개월)       | 43,000     | 한국예술종합학교<br>산학협력단<br>(민경찬)        | 208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대신문·잡지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0.4.12~9.11<br>(5개월)      | 24,900     | 한국외국어대학교<br>연구산학협력단<br>(정진석)      | 141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대체육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1.2.24~8.23<br>(6개월)      | 40,750     | 서울대학교<br>산학협력단(나영일)               | 169 | 용역<br>(수의,재공고) |
| 근대조각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1.4.1~9.30<br>(6개월)       | 39,290     | (사)한국근현대미술<br>사학회(김현숙)            | 32  | 용역<br>(수의,재공고) |
| 한글 유물<br>목록화 조사        | '12.1~3월<br>(3개월)           | 3,000      | 홍윤표 전<br>연세대학교수                   | 28  |                |
| 근대인생현물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2.2.6~10.5<br>(8개월)       | 49,950     | 서울여자대학교<br>산학협력단(송미경)             | 225 | 용역(경쟁)         |
| 근대산업기술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2.3.5~11.4<br>(8개월)       | 49,821     | 전북대학교<br>산학협력단(김근배)               | 175 | 용역<br>(수의,재공고) |
| 현대시기 체육분야<br>주요사건 유물조사 | '12.4.12~'12.10.15<br>(6개월) | 30,447     | 강원대학교<br>산학협력단(박기동)               | 145 | 용역<br>(수의,재공고) |

| 건 명                                    | 기간                          | 금액<br>(천원) | 용역기관                 | 건수    | 비고             |
|----------------------------------------|-----------------------------|------------|----------------------|-------|----------------|
| 근현대종교분야(불교)<br>목록화조사연구                 | '13.1.28~9.24<br>(8개월)      | 70,000     | (재)불교문화재<br>연구소(정은우) | 81    | 용역(경쟁)         |
| 근현대주생활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3.2.4~10.1<br>(8개월)       | 66,818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김정신)  | 193   | 용역(경쟁)         |
| 김봉준 기문<br>유물 조사 연구                     | '13.3.4~6.3<br>(3개월)        | 18,390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한사준)  | 74    | 용역(수의)         |
| 근현대종교분야(천주교)<br>목록화 조사 연구              | '14.3.3~11.28<br>(9개월)      | 88,000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김정신)  | 194   | 용역(경쟁)         |
| 근대 항일독립운동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               | '14.3.5~10.30<br>(8개월)      | 85,800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한사준)  | 281   | 용역(경쟁)         |
| 근현대종교분야(개신교)<br>목록화조사연구                | '15.3.2~'15.10.27<br>(8개월)  | 79,000     | 근현대미술사학회             | 78    | 용역(경쟁)         |
| 근현대 식생활분야<br>목록화조사연구                   | '15.3.30~'15.11.24<br>(8개월) | 95,000     | 이화여자대학교              | 263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종교(민족종교)<br>분야 목록화 조사           | '16.2.23~'16.10.19          | 79,500     | 원광대학교<br>산학협력단       | 141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교육 분야<br>목록화조사연구               | '16.2.23~'16.10.19          | 66,000     | 인하대학교<br>산학협력단       | 107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사진 분야<br>목록화조사연구               | '17.3.13~'17.12.15          | 75,000     | 더랩 씨                 | 70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놀이 문화 분야<br>목록화 조사             | '17.3.13~'17.12.15          | 75,000     | 사단법인<br>무형문화재연구원     | 104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문학(육필)분야<br>목록화조사              | '18.6.21~'18.12.14          | 65,454     | (재)한국문화재<br>정책연구원    | 520   | 제한경쟁-)<br>수의계약 |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br>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 '18.6.4~'18.10.31.          | 40,000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       | 1,353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항일 의병 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19.5.14~'19.12.13.         | 95,000     | 충남대학교<br>산학협력단       | 1,000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여성 독립운동<br>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19.8.7~'19.12.13.          | 19,400     | 한국여성독립<br>운동연구소      | 359   | 용역<br>(수의재공고)  |
| 조소앙 유물 전수 목록화 및 서<br>찰 번역 연구용역         | '19.8.29~'19.12.13.         | 38,997     | 단국대학교<br>산학협력단       | 1,200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소방안전 분야<br>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20.3.6~'20.9.30.           | 48,638     | 사단법인<br>한국화재소방학회     |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br>록화 조사 연구용역         | '20.3.2~'20.9.30.           | 48,000     | 서울대학교<br>산학협력단       |       | 용역(경쟁)         |
| 근현대문화유산 6·25전쟁(한국<br>전쟁)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20.3.4~'20.9.30.           | 68,500     | 사단법인 한국국가<br>전략연구원   |       | 용역(경쟁)         |
| 계                                      |                             | 506.31     |                      | 8,391 |                |

출처: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2020.5.31.) ; 문화재청 행정자료

\* 건축 및 도시분야 관련 자료는 음영 표시

## 4. 2021년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안)

### □ 개요

제9차 전문위원회의에서는 2021년 전문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0년 국제공모를 통하여 건축사가 선정된 이후에 기본설계가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전시설계와 건축설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물수집 조사를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방향이 전시설계에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0차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본 연구가 유물수집전략 자체보다는 전시설계와의 연계를 위한 시점에서 정리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 □ 전제

개관시점까지의 확정된 유물의 목록의 수준은 아니며 전시설계 단계까지 필요한 유물을 1차적으로 10,000점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유물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건축, 도시분야에 대한 아카이브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주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관련된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분석을 진행하여서 유물수집 정책, 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 도출되어야 함
  - 선행연구들에서는 박물관의 방향성, 기능구성, 적정 면적 등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음
  - 또한, 유물 이전에 선행된 건축가, 건축물(수상작) 중심의 아카이브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음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 및 소장 가능한 유물현황 조사
  -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을 주제별로 3,000점 정도의 전체 목록을 작성



- 전체 목록 중 자체적인 가치평가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200점에 대해서는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200점 중 전시될 10점을 선정함
- 다만, 유물카드, 전시될 자료 등은 주제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유물카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관리체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기존의 박물관 체계에서 활용하는 유물등록시스템(e-뮤지엄), 문화유산관리체계(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등을 고려하여서 마련
- 유물 확보 방안 및 소요비용 분석
  - 각 유물 목록별로 향후 국토부에서 유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유물별 구매, 기증, 임대, 기탁, 복제, 복원 등의 방식을 제안
  - 구매의 경우에는 소장자가 희망하는 가격 등에 대한 사전조사 진행함으로써 향후 공개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확보된 유물의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조사된 유물과 상설 및 기획전시 공간에 대표소장품을 제시
  - 조사된 유물을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

#### □ 유물수집을 위한 주제 범위의 설정

2020년 설계공모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주제는 설계공모를 위한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이 주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제들이다. 변동 가능한 것은 주제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시간적 범위를 고대부터 확장하여서 현재까지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점까지를 고려하였을 때,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이야기 구조로서 주제별 개관 및 연표를 가져야 한다. 주제에 따라서 시대적 범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삶의 공간'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고대부터 현재까지를 설정할 수 있다. '합의와 동의를의 공간'은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어온 합의와 동의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근대시기부터 현재를 설정하였다. '도시·건축과 사람'에 있어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의 건축 및 도시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인물들과 관련하여서 근대시기부터 현재를 설정하였다.



[표 4-10]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주제 관계

| 전시 및 주제                                     |                  |                        |                      |          |                     |          |
|---------------------------------------------|------------------|------------------------|----------------------|----------|---------------------|----------|
| 도시건축박물관<br>건립 및 전시프로<br>그램 구체화 연구<br>(2020) | 도시건축<br>역사       | 삶의 공간                  | 합의와 동의의<br>공간        | 도시건축과 사람 | 도시건축의 현재<br>-재료와 구축 | 미래의 도시건축 |
| 국립도시<br>건축박물관<br>국제설계공모<br>공모지침             | (대주제) 도시건축의 역사   |                        |                      |          |                     |          |
|                                             | (소주제)            | 삶의 공간                  | 합의와 동의의<br>공간        | 도시건축과 사람 | 도시건축의 현재            | 미래의 도시건축 |
| 도시건축의 역사                                    |                  |                        |                      |          |                     |          |
| 본 연구                                        | 과거               |                        |                      | 도시건축의 현재 | 미래의 도시건축            |          |
| - 유물관련                                      | 삶의 공간<br>(고대~현재) | 합의와 동의의 공간<br>(근현대~현재) | 도시건축과 사람<br>(근현대~현재) |          |                     |          |

출처: 국토부 내부자료(2015)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내용을 정리

## □ 소요예산 및 기간

유사연구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주제별 연구는 5,000만원, 총 1.5억원 정도가 적정하며, 기간은 5~6개월이 적정하다.

-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 4개월, 총 2억원 규모로 진행
  - (연구수행)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우성호)
  - 박물관 개관 이전 유물조사로 현장방문 조사, 유물카드 작성, 전시자료 우선 순위 도출
  - (의미) 항공박물관은 세계항공산업과 한국의 항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 기관의 전시사례 및 유물확보 전략이 중요하여 해외조사 등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가 중요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의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 역대 대통령기록물 경제, 사회, 문화 3~5개 소주제를 대상으로 총설, 리서치 가이드, 중요기록 건별 개요 작성을 5개월, 총 6천만원 규모로 진행
  - (연구수행)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행정학 연구자 및 연구기관
  - (의미) 기존의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자료를 콘텐츠화 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기록물들을 재맥락화하는 작업 진행

[표 4-11] 유물수집전략 마련 연구 기획을 위한 유산연구

| 제목 (기간, 예산)                                       | 주제          | 특징                                                     | 발주처    |
|---------------------------------------------------|-------------|--------------------------------------------------------|--------|
|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br>(4개월, 약 0.5억원)                  | 근현대문화<br>유산 |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 문화재청   |
| 2020년 역대 대통령의<br>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br>(5개월, 0.6억원) | 대통령기록물      | 기록관리<br>기존 대통령기록물의 해제 연구<br>진행                         | 대통령기록관 |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br>유물조사 (4개월, 2억원)                 | 국내외<br>항공유물 | 박물관 개관 이전 유물조사<br>- 현장방문 조사, 유물카드 작성,<br>전시자료 우선 순위 도출 | 국토부    |

출처: 연구진 정리

## □ 추진주체 - 전문위원회

2020년 전문위원회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초안을 검토하여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실무적인 차원의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전문위원별로 담당 소주제를 설정하여서 유물조사에서 전시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도시건축박물관전문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매칭하고,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공유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가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개관준비단계에 전체 전시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커미셔너(디렉터)’ 선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가 전속희소장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부문별 연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커미셔너는 전시주제 설정 및 부문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일종의 개관준비 전단계의 관장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위원회에서는 정다영 학예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계획을 발주하는 국토부에는 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서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담인력으로 전체 사업을 일관된 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커미셔너 선정을 통하여 전시계획을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주제에 대한 전문위원회 담당자로는 기존의 유사사업 경험을 고려하여, ‘삶의 공간’-이재준 소장, ‘합의와 동의의 공간’-김상규 교수, ‘도시·건축과 사람’-김태형 팀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재준 소장은 집과 관련한 전시로 ‘즐거운 나의 집(아르코미술관, 2014)’, ‘집에 관한 사유(아르코미술관, 2006)’ 등 다수의 전시기획의 경험이 있다. 김태형 팀장은 목천김정 식문화재단에서 한국 1세대건축가의 자료수집의 경험, 1990년 이후 한국현대건축가 형가리 전시 참여 등의 경험이 있다. 김상규 교수는 ‘잠금해제’(민주인권기념관, 2019) 등 전시 경험이 있다. 김정빈 교수는 어반트랜스포머 컨소시엄의 총감독으로 노들섬 운영을 통하여 독립출판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책방 운영 등 ‘도시·건축의 현재’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계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 □ 건축공간연구원 각 센터별 연계

건축공간연구원 각 센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도시·건축의 역사’는 건축문화자산센터, ‘삶의 공간’은 마을재생센터, ‘합의와 동의의 공간’은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건축과 사람’은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와 미래의 주제와 연계된다.

[표 4-12] 도시건축박물관 주제, 키워드, 관련기관 예시

| 주제         | 키워드                                                            | 관련기관 및 학회<br>auri 관련 센터                                          |
|------------|----------------------------------------------------------------|------------------------------------------------------------------|
| 도시·건축의 역사  | 건축역사, 도시역사, 도시·건축 해석, 도시·건축 비평, 건축물 보존, 도시 기록, 도시·건축 유형 등      | 한국건축역사학회, 대한건축학회 등<br>건축문화자산센터                                   |
| 삶의 공간      | 도시 사건·이벤트, 일상성, 주거 공간, 건축 공간, 공간감(Space Perception)            | 한국주거학회 등<br>마을재생센터                                               |
| 합의와 동의의 공간 | 법, 제도, 사회 공간, 권력 공간, 시민참여, 유형, 공공건축 등                          | 정책연구기관 등<br>공공건축지원센터                                             |
| 도시·건축과 사람  | 건축가와 계획가, 연구자, 운동가, 기획자, 사용자, 도시건축 관련 단체 및 협회, 건축·도시 관련 사무소 등  |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학회 등<br>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
| 도시·건축의 현재  | 건축재료, 건축요소, 건축유형, 도시·건축 화두, 도시·건축 공모전, 도시·건축 교육, 최신 도시·건축 정책 등 | 전시, 출판, 행사 등<br>관련 단체, 협회 모두<br>건축정보센터, 경관센터, 고령친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 |
| 미래의 도시·건축  | 건축기술, 도시형태, 4차산업 혁명, 스마트 재료,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VR 등 공간 체험         | 한국도시설계학회, 스마트도시학회 등<br>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공모지침, p16.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 제5장 결론

- 1. 연구의 성과
  - 2. 향후 추진방향
- 

### 1. 연구의 성과

#### □ 주요 개념의 정리

- 아카이브, 유물, 콘텐츠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유물은 수집의 필요성만 판단된 대상자료를 아카이브로 설정하였다. 이들 아카이브 중 도시건축박물관의 가치평가 체계를 거쳐서 ‘유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아카이브와 유물은 전시, 출판,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재료로 다시 가공되는데 이것을 ‘콘텐츠’라 한다.

- 박물관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제시된 명칭으로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서 “박물관자료란 건축과 도시분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 컬렉션

컬렉션은 수집가 및 소장자에 의해서 자체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통해서 획득한 일련의 자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컬렉션은 전시, 출판 등을 통하여 부여된 가치에 대해서 사회에서 동의를 절차를 거치게 된다.

#### □ 도시건축박물관 유물에 관한 법 제도적 정의

시기는 근대(개화기), 현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시기에 대해서도 수집한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문화 및 산업과 관련한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에 관한 것으로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 ‘학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수집 전략(안)

첫째,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어떻게 건축, 도시분야를 인식하고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건축 및 도시분야와 관련한 전시, 출판된 자료를 수집한다. 단행본, 잡지 등을 포함하여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정책수립, 홍보를 위해서 발간하였던 간행물도 포함하여 수집한다.

둘째, 건축 및 도시분야의 조성과정에 참여하였던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부 각 부처에서 공급하였던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공공건축물 혹은 각종 시설들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건축 및 도시분야 공공기록물 중 ‘도면류’, ‘모형류’에 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도면은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중요한 매체이자 표현의 수단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여 국가기록원 등 주요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류’자료를 수집하고 건축, 도시를 재현하여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매체인 ‘모형류’를 수집한다.

넷째, 건축 및 도시분야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창작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 사회의 산물로써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의 스케치, 도면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건축물의 일부(부재)를 수집한다. 또한, 건축 및 도시를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도 수집의 대상에 포함한다.

##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 가치 평가 기준

현재 시점에 설정되어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목표 및 비전을 바탕으로 공통의 기준과 주제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세부화된 가치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나누어서 생각하였을 때, 시대, 유물의 성격은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겠으나 가치 판단은 기존의 박물관의 운영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1차적으로 유물수집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작성된 검토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5-1] 도시건축박물관 유물 가치 판단 기준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 공통<br>기준 | 1) 문화재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 2) 보존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br>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가<br>기준 | 4) 희소성    |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br>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br>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출처: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별표3],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일반동산문화재 미술품 분야 가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

## □ 유물과 개관전시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건축 및 도시분야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는 개관 시점까지 확보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유물 목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건축의 역사를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이라는 주제와 연계하여서 수집되어야 한다. 개관전시는 전시감독, 큐레이터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 2. 향후 추진방향

### □ 2021년 : 유물수집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체 구축, 유물 기증

- (추진여건)
  - (설계) 2020년 설계공모 결과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2021년 말에는 설계업무가 완료될 예정
  - (전시) 국토부는 전시설계를 발주
- (부문별 추진방안)
  - (건축설계와 전시분야 연계) 건축물에 맞추어서 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방식 대신 건축설계와 전시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sup>62)</sup>
  - (유물수집) 유물수집을 위한 잠정목록화 작업은 우선, 5개의 주제를 기본으로 연대기(역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주제들과 관련하여서 연구자나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 수행이 필요
  - 5개의 주제는 ‘삶의 공간’, ‘합의와 동의의 공간’, ‘도시·건축과 사람’, ‘도시·건축의 현재’, ‘미래의 도시·건축’<sup>63)</sup>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앞의 세 개의 주제는 유물이 역사적인 가치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선행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고, 다른 두 개의 주제는 현재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획전시 및 교육, 연구 등을 통하여 동시대적 관점에서 수집되어야 함
- (유물수집 추진방안)
  - 목표수량 500점 (누적 500점)
  - 임시수장공간으로는 국토발전전시관의 임시수장공간 활용

62) 국토부 제9차 전문위원회(2020.9.24.) 논의결과

6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9.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지침서, p16.  
지침서에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국토부의 전문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도시건축박물관의 주제이다. 추가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키워드, 전시 콘텐츠는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의 연구 성과물이다.

□ 2022년 : 유물 구매 시작

- (추진여건)
  - (설계) 2020년 설계공모 결과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2021년 말에는 설계업무가 완료될 예정
  - (전시) 국토부는 전시설계를 발주
- (유물수집 추진방안)
  - 목표수량 1,540점 (누적 1,990점)

□ 2023년 : 개관 준비

- (부문별 추진방안)
  - (전시계획) 개관전시 진행
- (유물수집 추진방안)
  - 목표수량 3,370점 (누적 5,360점)

□ 2024년 : 개관 준비

- (유물수집 추진방안)
  - 목표수량 3,360점 (누적 8,990점)
  - 임시수장고에서 자료 이관 시작

□ 2025년 : 개관

- (추진여건)
  - 개관 최종 점검 및 보완 등 진행
  - (기획전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과정에 대한 컬렉션을 활용한 전시
- (유물수집 추진방안)
  - 목표수량 1,010점 (누적 10,000점)
  - 임시수장고에서 자료 이관 완료



[표 5-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연차별 유물수집 목표량 및 수집방식(안) (2021년~2025년)

| 구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유물수(건)                                                                      |                      |      |       |       |       |        |        |
|                                                                             | 년간<br>(A=a+b)        | 450  | 1,540 | 3,370 | 3,630 | 1,010  | 10,000 |
|                                                                             | 누적                   | 450  | 1,990 | 5,360 | 8,990 | 10,000 | 10,000 |
| (전시 개관 시점에 가까울수록 연간 수집 점수를 확대하되, 개관 전시를 고려하여 2024년 까지 전체의 약 90% 수집을 목표로 설정) |                      |      |       |       |       |        |        |
| 유물수(건)                                                                      |                      |      |       |       |       |        |        |
|                                                                             | 서지류(a)               | 419  | 1,432 | 3,134 | 3,376 | 939    | 9,300  |
|                                                                             | 모형류(b)               | 31   | 108   | 236   | 254   | 71     | 700    |
| (a=A×0.97, b=A×0.070)                                                       |                      |      |       |       |       |        |        |
| 수집방식<br>(A=a'+b'+c'+d')                                                     |                      |      |       |       |       |        |        |
|                                                                             | 구입(a')               | 150  | 500   | 1,000 | 2,000 | 500    | 4,150  |
|                                                                             | 기증(b')               | 300  | 800   | 2,000 | 1,000 | 500    | 4,600  |
|                                                                             | 대여(c')               | 0    | 200   | 300   | 500   | 0      | 1,000  |
|                                                                             | 복제 및<br>모형제작<br>(d') | 0    | 40    | 70    | 130   | 10     | 250    |

출처: 연구진 정리

[표 5-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유물 수집<br>단계  | 유물수집<br>사전 기획             | 유물 조사<br>(1월~5월)                      | 기증<br><br>구입                         | 기증<br><br>구입                       | 기증<br><br>구입                       | 기증<br><br>구입                       |
|              | -                         | 국토부<br>(개관준비)                         | 국토부<br>(개관준비)                        | 국토부<br>(개관준비)                      | 국토부<br>(관리감독)                      | 국토부<br>(관리감독)                      |
| 의사결정<br>주체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br>+유물수집위원회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br>+ 전시위원회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br>전시위원회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br>전시위원회 | 추진위원회,<br>공공건축가,<br>전문위원회<br>전시위원회 |
| 임시수장고        |                           | 임시수장고<br>확보(협의)                       | 임시수장고<br>운영                          | 임시수장고<br>운영                        | 임시수장고<br>운영                        | 박물관으로<br>이관                        |
| 소장품<br>보존처리  |                           | 소장품 임시<br>보존처리실 운영                    | 소장품 임시<br>보존처리실 운영                   | 소장품 임시<br>보존처리실 운영                 | 소장품 임시<br>보존처리실 운영                 | 전담조직 구성                            |
| 전시설계 및<br>시공 | 전시설계<br>발주 기획             | 전시설계 발주<br>(4월~)                      | 전시콘텐츠 제작                             | 전시콘텐츠 제작                           | 전시시공 및<br>콘텐츠 제작                   | 전시시공 및<br>콘텐츠 제작                   |
| 건축설계 및<br>시공 | 건축설계<br>공모 진행             | 기본설계 종료<br>(5월)<br>실시설계(6월~)          | 착공                                   | 시공                                 | 시공                                 | 준공                                 |

출처: 연구진 작성

[단행본]

-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1999), 「한국건축 100년」, 도서출판 피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건축 아카이브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09.2.), 「행정중심복합도시 (가칭)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새건축사협의회(2020),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토발전전시관(2020), 「국토발전전시관 소장자료 현황」, 국토발전전시관 내부 자료
- 국토연구원(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단국대산학협력단(2013.10.), 「2013 근·현대 문화유산 주생활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문화재청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6.6.15.), 보고 및 토론회자료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안)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11.15.), 제4회 회의자료
- 서울특별시(1995),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지」, 서울특별시
- 송수정, 김성은(2018),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국립현대미술관
- 이동기(2018), 「현대사 몽타주」, 돌베개
- 이종연, 김선경 외(201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제임스 엘킨스(2018), “미술관에서 연구란 무엇인가?”,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국립현대미술관

E.Verner Johnson, Joanne C. Horgan(1979), 『Museum Collection Storage』, UNESCO

ICOFOM(2019), 『A History of Museology, Key authors of museological theory』, ICOM

ICOFOM, ICOM-CC(2019), “Four Waurá masks in the Indian Museum: a decolonial  
way to conservation practice and theory”, 『What is the essence of  
onservation?』, ICOM

ICOFOM. (2019), 『A History of Museology, Key authors of museological theory』,  
ICOM

Ivo Maroevic(1998), 『Introduction to Museology: The European Approach』, Verlag  
Dr. Christian Muller-Straten

#### [논문]

김덕목(2019), “현대사회에서 민속학의 역할과 방법 모색”, 『한국민속학』 69

홍석준(2010), “지역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 『石堂論叢』 46

Ilaria Porciani(2016), “공공역사와 박물관 : 복합적 관계”, 『현대사광장』 제8호

#### [법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시행 2019. 7. 2.,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23호, 2019.  
7. 2.,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시행 2020. 4. 7.,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35호, 2020.  
4. 7., 일부개정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시행 2017. 5. 30., 국토교통부훈령 제853호,  
2017. 5. 30.,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19., 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유물취급규정』, 시행 2019. 2. 22., 문화재청훈령 제488호, 2019. 2. 22., 폐지제정

[웹사이트]

Archi-Depot, <https://archi-depot.com/en/>

e뮤지엄,

<http://asq.kr/kr9kfoSsxH2>

<http://asq.kr/pRjperoBu4W>

<http://asq.kr/VrijpZDDXaf>

Maxxi,

[http://inventari.maxxi.art/AriannaWeb/main.htm;jsessionid=CD3702EBCDCE233B82906F0FAEB94F77#152433\\_archivio](http://inventari.maxxi.art/AriannaWeb/main.htm;jsessionid=CD3702EBCDCE233B82906F0FAEB94F77#152433_archivio)

Merriam-Webster 사전,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content>

MOMA,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1624>

경기관광공사,

[https://ggtour.or.kr/story/travel.php?tmenu=&smenu=&stitle=&tsort=1&m-sort=8&board\\_code=5&board=5&s\\_category\\_name=&key=&no=64667&mode=newdetail&page=1&s\\_tag=안양가볼만한곳&s\\_admin\\_no=](https://ggtour.or.kr/story/travel.php?tmenu=&smenu=&stitle=&tsort=1&m-sort=8&board_code=5&board=5&s_category_name=&key=&no=64667&mode=newdetail&page=1&s_tag=안양가볼만한곳&s_admin_no=)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mua2020.org>

국립중앙도서관, 「2019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참여기관 모집」 안내,  
<https://nl.go.kr/NL/contents/N50601000000.do?schFld=0&schStr=%EB%94%94%EC%A7%80%ED%84%B8%ED99%94&schM=view&page=1&ordFld=regdt&ordBy=DESC&viewCount=10&id=35662&schBdcode=&schGroupCode=>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소개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relics\\_management\\_system](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relics_management_syste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519954>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시스템, <http://www.emuseum.go.kr/main>

국토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key=&search=%EC%9C%A0%EB%AC%BC&search\\_regdate\\_s=2013-07-01&search\\_regdate\\_e=2020-07-22&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e=Y&srch\\_usr\\_ctnt=Y&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C%9CA0%EB%AC%BC&lcmepage=2](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key=&search=%EC%9C%A0%EB%AC%BC&search_regdate_s=2013-07-01&search_regdate_e=2020-07-22&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e=Y&srch_usr_ctnt=Y&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C%9CA0%EB%AC%BC&lcmepage=2)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RRR000003622649?metsno=000000028507&fileid=M000000028507\\_FILE000002](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RRR000003622649?metsno=000000028507&fileid=M000000028507_FILE000002)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중 한국건축100년전 검색결과,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한국건축100년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pa.go.kr/portal/search/base/search.d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museum/cnts/academicresearch1.d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museum/nrms/list.d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archive.much.go.kr/cnts/cont01/page01.do>

도시TV\_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 남기고 싶은 이야기(학회 60주년 기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Z3bqyRM1eNEf54jubqdqBsmsMUGczGBw>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현황,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6874&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6874&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배기동(2019.10.), “다변하는 오늘날을 위한 박물관의 변화”, 박물관신문, vol.578.,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museum/sm-8/pt-post/nd-84>

서울시립미술관(2020),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소개,  
<https://sema.seoul.go.kr/ex/exDetail?exNo=463118&glolangType=KOR&searchDateType=CURR>

서울시립미술관(2020.5.6.),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전시리플릿  
<https://sema.seoul.go.kr/rd/getDetail?museumDataNo=506842>

서울역사박물관(2018),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https://opengov.seoul.go.kr/council/18409879>

표준국어대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9329](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9329)

#### [기타]

국토부. (2015),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추진방안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11.15.), 제4회 회의자료

박재연, “한국미술이론학회 추계 콜로키엄 2020”, 2020.9.26. 토론

이주현(1999), “건축에도 국제행사 하나는 있어야...”, 한겨레, 1월 19일 기사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7.7.),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차 공모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9.8.),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ICOFOM(1994), “Symposium OBJECT-DOCUMENT?”, 중국 베이징 심포지엄 자료, ICOM

---

# A Study on Pre-planning to Establish Artifact Collec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SUMMARY

Um, Woonjin  
Kim, Jongbum

---

This study is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collecting artifacts for the (tentatively named)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that is scheduled to be opened in 2025. The multiple studies conduct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useum of Urban and Architecture since 2007 were focused on the basic plans for the museum, construction feasibility, theme of the exhibit, direction of contents, and direc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his study was a more research as an extension of preceding studies in that it focuses mainly on arti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how the concept of artifacts during the course of pursuing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was carried out, and to provide preparations and basic directions for the collection behavior to be carried out prior to opening the museum. Generally, artifacts and archives in museums are determined by the vision and objective set for the by the museum operator and the direction presented by the museum's personnel or body of jurisdiction.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museum operator as of yet, the only other option is to check through the plans and research directions reviewed by the constructors and operating entities. Therefore, in the first half of the study, discussions related to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artifacts by modern museums and museology were arranged, and the concepts of artifacts used in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at has been tentatively designat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re are few museums in Korea specializing in artifacts in the urban architecture sector, so there were restrictions in configuring the artifact collection procedures based on cases of other institutes.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special traits of artifacts in the urban architecture sector that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s, the discussion procedures between the relevant entities, need for procuring temporary space, etc. prior to opening were reviewed. In this situation where transaction of artifacts in the urban architecture sector is inactive in many museums in Korea, a strategy of procuring artifacts simply by ‘purchasing’ does not have much meaning. Therefore, the direction for collecting artifacts in the future was suggested by also considering the method of donation, loans, etc.

There are a total of three studies for major decision-making and research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artifacts among the procedures for pursuing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First is the project policy materials of MOLIT prescribed in May 2015. These materials are composed of the missions and vision that the museum should pursue, and the structure of designs for each function. In particular, the policy for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was set as ‘establishing a national hub facility and cultural infrastructur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awareness on urban architecture culture and to promote the relevant industries.’ This served as the basic direction for the museum in inter-departmental discussions and multiple studies that were carried out later. The second is the ‘Study on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Contents Development and Exhibition Plans’ (2016)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and the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was joined by not onl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but also MOLIT to visualize the main exhibition theme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while also offering the opportunity to predict the blueprints for construction of the museum in the future. The third was the ‘Study on Construction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and Concretizing Exhibit Programs’ (2020) ordered by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carried out by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 and the Korea Architects Institute. This study



configured the concept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exhibits and presented directions for artifacts and archives to be collected in the future. In the same year, the foundation for the design guidelines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KMUA)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was provided. The major decision-making processes over three stages were not limited in meaning as simple policies and research, but are significant in that it concret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by gather opinions from experts in different fields in addition to mediating opinions of the relevant agencies.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flected the discussions held thus far and proposed an artifact collection method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the architectural overview arranged according to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design contents announced in July 2020 and the main themes of exhibits have received consent from the museum as of current.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is the first museum specializing exclusively on urban architecture in Korea and the MOLIT is expected to be the operating entity in the future. While there were a variety of art gallery exhibits and biennales related to urban architecture in Korea, there are no cases of museums focusing on the permanent preservation of such artifacts. While the aforementioned cases can hold exhibits only on contents without relying on artifacts, the latter is required by law to have a collection of at least 100 artifacts, and it is a norm to also hold exhibit plans together with the artifacts. However, in addition to the minimal number of artifacts that must be procured as a museum, there are still ongoing discussions on whether to establish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as a museum based on history or on art like art museums. Therefore, the basic preconditions is to collect approximately 10,000 pieces with an artifact purchase budget of 21.6 billion KRW present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National Museum Complex Establishment Project’ carried out by the KDI in 2015. Artifacts in the urban architecture sector have similarities and peculiarities distinguished by the moveable cultural heritag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collections of national museum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re, similarity is not limited to valuation restricted to the type and materials of artifacts as the scope of artifacts of modern museums are expanded to the so-called ‘collections,’ but occurs from the fact that it can accommodate various themes and mediums of artifacts from the point that extended values can be accommodated. For peculiarity, all byproducts such as models, drawings and sketches generated in the production, planning and management aspect of architecture and cit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facts that can be accommodated by a museum, but the historic value that generates the value of artifacts such as materials for architecture, urban scenery, daily life of citizens, etc. begin from the same era similar to art museums. From the aspect of recognizing such diversity, the museum and exhibit h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MOLIT were organized as a concept of artifacts as 'materials.' Furthermore, the trends in which 'artifacts' are expanded toward a concept of value-centered 'collections' in the systems related to museums recently have been confirmed.

Traditional museums are usually built with the purpose of properly organizing a collection that an artifact owner has already procured. However, many contemporary museums including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are placed in an environment of having to collect related artifacts according to the vision and goal that the museum aims to embody. They thus have the task of procuring the actual artifacts in advance for exhibitions needed at the time of opening. In this study, the number of artifacts per year up until the time of opening was computed to judge whether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Korea Territorial Development Museum repository under the MOLIT Seoul Regional Office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 addition to space, procedural plans for procuring and executing artifact purchase budgets were proposed. Considering the fact that purchasing of artifacts in the urban architecture sector is not active in Korea, the potential for auctions, donations, etc. in addition to purchasing of artifacts were taken into account. Furthermore, procedural matters such as operation of a committee needed for the method of procuring artifacts for each method were arranged to present procedures necessary prior to the opening of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in the future. Finally, potential artifacts in the architecture and urbanism sectors were listed. The scope of artifacts and keywords related to artifacts possess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national exhibits in other provinces were organized. Through this, the main theme of exhibits for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provided through earlier research and design contests were reverted as artifacts to seek out possibilities for artifact collections. The list for this was provided through an appendix.

I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plans for artifact collection strategies were presented. As major cases, an artifact collection strategy to be carried out in 2021 was presented taking reference to the modern history collection method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listing work of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ecause artifacts and archives have been constructed on contemporary history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in many

museums in Korea, the detailed expenses and procedures were referred to in order to provide collection strategies from 2021 to 2025 for its bibliography and models. In particular, the place of collection and collection method were systemized by limiting the main and sub-themes of the museum presented in the 2020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KMUA) international design contest to the three themes 'space of life,' 'space of consent and agreement,' and 'cities, architecture and people.' Regarding this, the opinions of the 2020 KMUA design contest operating committee, steering committee and expert committee operated by MOLIT and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were gathered. Aside from the syntax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directions for collections from the aspect of public history that can consider the daily nature was also presented. In addition, while the scope of recognizing historic value of artifacts should be proposed for all age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t was suggested that in the open preparation phase, artifacts from contemporary history to the present times should be collected preferentially.

The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is the first museum to be constructed within the national museum complex that is being pursu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addition, its main theme is on urbanism and architecture, which were not main themes among museums, to serve as the first institute built as a cultural complex that not only conveys history, but also acts for communication,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research for the nation. Therefore, this report took into consideration the normal museum construction procedures and restriction conditions according to domestic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ut it express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 strategy that can guarantee the future of the institute through sound opening of the museum exhibit. In particular, the artifact sector has not been directly mentioned in the numerous studies in the past, and its weight has not been presented in detail either. But this leads to the difficulty of having to procure the collection according to the museum construction condition within approximately four years from publishing this report. Hence, there are limitations in actual procurement of artifacts based only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operations of the MOLIT, which is the operating entity during this period, and it is necessary to begin a donation drive of valuable artifacts based on interest from the urban and architec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tire nation.

#### Keywords

Korean Museum of Urbanism and Architecture, Artifacts, Archive, Collections

## 부록1. 국립도시건축박물관법(안)<sup>64)</sup>

### □ 법안의 구성

박물관법(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가 제1장 제1조에 표현된다. 둘째, 박물관의 법적인 성격과 사업수행의 범위(제2조~제5조)를 규정한다. 우선은 국립항공박물관 사례를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화의 사례로 검토하였다. 셋째,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하여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과 예산, 재정구조(제11조~제14조)을 다룬다. 넷째, 박물관의 자료의 취득과 관련한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5조) 및 관련기관의 자료협조(제16조) 등 자료의 관리와 기타사항(제17조~제25조)으로 구성된다.

### □ 법(안)

#### [1. 박물관의 비전 및 목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설립하여 건축과 도시분야 문화와 건축과 도시분야 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건축과 도시분야 문화의 진흥과 건축과 도시분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박물관의 법인격 및 사업범위]

제2조(법인격)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64) 국토부 소관의 박물관 중 가장 최근(2020.7.7.)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법」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건축 및 도시분야 문화 및 건축 및 도시분야 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국립항공박물관법 사례)

1.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건축·도시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박물관의 의사결정 체계 및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사항]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문화와 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5. 기타사항]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국토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



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사례)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별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국토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토부장관이 부담한다.
- ⑦ 국토부장관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토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국토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 부록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sup>65)</sup>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박물관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건축과 도시분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을 말한다.

(국토발전전시관 사례)

1. “자료(資料)”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

65) 국토부 소관의 박물관 중 가장 최근(2020.7.7.)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의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국토부훈령 제853호, 2017.5.30.제정),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규정규정」(2017.5.30.제정)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추가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부훈령 제717호, 2016.6.10.제정)을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병행 표기하였다.

2. “수집(蒐集)”이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복제,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국토부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품을 국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품을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出納)”이란 소장품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박물관자료의 수집

제4조(박물관자료의 구입)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1. 박물관장(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박물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박물관자료가 박물관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매도 신청) ① 장관은 박물관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 1부
2. 매도대상 박물관자료 명세서 각 1부
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박물관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입 심의)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수집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평가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입을 결정한 박물관자료는 제28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수집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평가결과서를 작성한 후 평가결과서에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자필서명한 평가결과서는 영구히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건축목물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평가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8조(위원선임의 제한) 매도신청자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박물관자료 반환)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박물관자료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박물관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되 박물관자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구입 취소) ① 제10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한 후에 해당 박물관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는 구입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증 등) ① 장관은 박물관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부터 박물관자료 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증 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심의 등에 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박물관자료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자료의 수증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증서 교부) 장관은 박물관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박물관자료 기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이관) ① 장관은 국토부 소속기관에 박물관에 필요한 박물관자료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박물관으로 박물관자료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세부 박물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건축, 주택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

2. 제1호와 관련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영상, 모형, 패널 등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하여 전시·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지식 보급이나 홍보에 활용 가능한 박물관자료

③ 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박물관자료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박물관으로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이관 대상인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박물관자료를 박물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3장 박물관자료의 관리

제16조(박물관자료 관리기관) ① 장관은 박물관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박물관에 박물관자료의 출납 등 박물관자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박물관자료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둔다.

③ 관리관은 박물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박물관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7조(박물관자료관리 등) ① 박물관자료관리관은 박물관에 수집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박물관자료 목록과 박물관자료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박물관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자료 관리관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자료 관리관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유기질 박물관자료가 수장고 내부로 반입될 경우 방충방역을 하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박물관자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자료 관리관의 인사 등으로 박물관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전·후 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자료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박물관자료 관리관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임관리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박물관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박물관자료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박물관자료의 수리·복원 등) ① 박물관자료 관리관은 소장 박물관자료가 훼손 등으로 수리·복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박물관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훼손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리·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자료 관리관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소장 박물관자료가 분실·도난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박물관자료 출납) ① 박물관자료를 출납하려는 자는 박물관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박물관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자료 목록과 박물관자료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박물관자료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자료 관리관 부재시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박물관자료 관리관은 사후에 박물관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박물관자료관리관 및 분임관리관 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박물관자료관리관 또는 박물관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자료관리관의 부재시 박물관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박물관자료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박물관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제21조(기탁 신청) 장관은 박물관자료를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탁 심의 등)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여부를 심의하게 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박물관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에 재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박물관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관리·보존처리가 필요한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 박물관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前)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장관은 수탁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수탁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박물관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박물관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위원회

제26조(박물관자료수집 선정위원회) ① 장관은 구입 평가대상 박물관자료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수집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28조2항의 박물관자료수집 평가위원 후보군 중 3인 이상 4인 이내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전시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선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수집대상 박물관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구입 및 수증 대상 박물관자료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
3. 기탁대상 박물관자료의 수탁여부 및 수탁기간
4.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박물관자료선정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수집 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박물관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수집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군 30명을 정하고, 수집 평가시마다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국토계획 및 개발, 도시, 토지, 주택, 건축,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과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가운데 국·공립 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평가위원회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수집대상 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
2. 수집대상 박물관자료의 선정
3. 수집 및 수증 대상 박물관자료의 가격평가 및 보험평가
4. 기타 박물관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박물관자료 평가의 경우와 수증 및 수탁대상 박물관자료 평가에는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간사 및 회의록) ①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관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국토부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록3.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컬렉션 검토

---

### 1. 컬렉션 개요

#### 1) 유물과 컬렉션의 관계

유물수집 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의 덩어리들을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물의 관점에서는 행정적인 업무절차, 조직 등을 통해서 자료가 집적되는 것에 비해서 컬렉션은 어떤 수집가의 정책,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의 작업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1세대 한국건축가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의 컬렉션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집가는 아카이브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선정과정

사업방향은 기관협력사업, 유물구매 등에 관한 행정적인 작업과 건축 및 도시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상에 따라 건축물, 건축가 그리고 도시건축박물관의 특수성이 수집된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로의 박물관이 아니라 새롭게 자료를 수집해면서 성격을 구체화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시아카이브'의 틀 속에서 세부 사업을 도출하였다. 세부사업 도출은 1차적으로 예비 작업이 가능한 주제들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진행 중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언급되었던 자료들도 포함하였다. 각 사업별로는 진행 필요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으로는 '사업수행가능성', '시급성', '실효성

(기대효과)'등을 항목으로 상, 중, 하 3개 항목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검토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3개 사업-기관협력, 구매, 전시아카이브-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사업수행가능성은 소장자가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요청한 경우나 관련 분야 연구자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하였다. 시급성은 소장자가 폐기 및 훼손 가능성이 높거나, 도시건축박물관의 수집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적인 유물로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상'으로 평가하였다. 실효성(기대효과)은 컬렉션의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개관시점 전에 사전홍보 등의 가치가 높은 작업을 '상'으로 표기하였다.

평가는 향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연간 사업 추진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컬렉션 후보군

[표 부록-1] 컬렉션 후보와 적정성 평가

| 성격<br>(대상/방식)              | 사업명                                | 평가결과        |     |               |     |
|----------------------------|------------------------------------|-------------|-----|---------------|-----|
|                            |                                    | 사업수행<br>가능성 | 시급성 | 실효성<br>(기대효과) | 종합  |
| 도시,건축/<br>기록물-유물<br>기관협력   | 행복도시건설과정 수집자료<br>- 행복청, 행복도시 총괄기획단 | 상           | 상   | 상             | 상상상 |
| 도시, 건축/<br>기관협력<br>조사 및 연구 | 귀중도서<br>- 국토연구원                    | 상           | 중   | 상             | 상중상 |
| 기관협력/<br>조사 및 연구           | 도시건축박물관<br>건립과정                    | 상           | 중   | 중             | 상중중 |
| 인물/<br>기관협력사업<br>기증        | 우규승 아카이브                           | 상           | 중   | 중             | 상중중 |
| 인물/<br>임시수장                | 강석원 아카이브                           | 중           | 하   | 하             | 중하하 |
| 인물/<br>조사 및 연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아카이브                     | 하           | 중   | 중             | 하중중 |

| 성격<br>(대상/방식)      | 사업명                            | 평가결과        |     |               |     |
|--------------------|--------------------------------|-------------|-----|---------------|-----|
|                    |                                | 사업수행<br>가능성 | 시급성 | 실효성<br>(기대효과) | 종합  |
| 인물/<br>전시아카이브      | 건축큐레이터 아카이브                    | 중           | 중   | 중             | 중중중 |
| 건축물/<br>조사 및 연구    | 설계공모로 진행된<br>공공건축물 자료          | 중           | 상   | 중             | 중상중 |
| 건축물/<br>DB         | 지역건축상 수상 건축물 자료                | 상           | 하   | 중             | 상하중 |
| 건축, 도시/<br>구매      | 한국 우표류<br>- 건축 및 도시분야 도안       | 상           | 상   | 상             | 상상상 |
| 건축, 도시/<br>구매      |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수집                | 중           | 중   | 중             | 중중중 |
| 건축, 도시/<br>조사 및 연구 | 건축 및 도시분야 잡지류                  | 하           | 중   | 중             | 중중하 |
| 건축, 도시/<br>조사 및 연구 | 국토부 주요 건축, 도시박람회<br>행사 자료 아카이브 | 중           | 중   | 중             | 중중중 |
| 건축, 도시/<br>조사 및 연구 | 역대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br>관련 사료        | 중           | 중   | 중             | 중중중 |
| 건축, 도시/<br>조사 및 연구 | 한국건축 100년전 아카이브                | 하           | 상   | 중             | 하상중 |
| 인물(도시설계)           | 최종현 아카이브                       | 상           | 상   | 중             | 상상중 |
| 인물(건축계)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회<br>아카이브         | 상           | 상   | 중             | 상상중 |

출처: 연구진 작성

## 2. 행복도시건설과정 자료

### 1) 수집기획

#### □ 유관기관 협력사업

도시건축박물관의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잠정적인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는 기관 소장품을 상호 대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기존에 각 주제별로 운영되던 기관보다 이후에 시작되지만, 도시, 건축분야의 중심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 협력,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역할을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집대상기관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기획단 등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여서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기획 작업이다.

#### □ 행복도시건설과정과 관련한 유물의 유형

도시건축박물관이 위치하는 행복도시는 국내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행정중심의 도시의 특수성이 있다. 이 신도시의 건설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행복청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1차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건설과정에서 학예사가 잠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잠정유물은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잠정유물이란, 가치평가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단 폐기 등의 판단을 유보한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향후, 잠정적으로 보관은 하고 있으며 목록화 작업도 진행되지 않아서 가치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가 폐기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1단계로 유물의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잠정적인 기록화사업으로 사진 촬영가 개략적인 기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는 000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 □ 기록물 혹은 유물

행복도시건설과정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관리사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록물이 존재한다. 이와 별도로 학예사에 의해서 관리되는 유물이 존재한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록물은 아니지만, 필요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립박물관단지의 설계공모 과정에서 설계공모 과정의 주요단계에 대한 행정기안은 기록물로 모두 관리된다. 행정박물관이라는 용어도 있으나 행복청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중앙기관의 장 등 특수한 자료만 관리된다. 설계공모 과정에 설계자들이 제출 하였던 설계패널 및 설계 설명서 등은 파일, 출력물로 제출되었으나 심사 이후 폐기절차가 진행되었다. 기록관리차원에서는 권리 대상이 아니었고 학예그룹에서 일부 자료를 국립도서관에 소장하였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행복청(담당 학예사)과 사전조사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획회의를 진행한다. 잠정적인 자료 현황 등, 잠정 목록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최소한으로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

진을 위한 기획서를 마련한다.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서 시범적인 조사를 일부 진행한다. 예를 들면, 소장공간별 대략적인 유물현황을 조사하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사진촬영을 통한 자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업추진과정에 예시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자료 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부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부록-2] 행복도시건설과정 수집자료 정리 일정(안)

| 주요업무                | 내용                                                     |
|---------------------|--------------------------------------------------------|
| 행복청 기획 회의           | 학예사, 기록관리사와 행복청 건설과정의 자료 특수성 조사<br>- 잠정적인 자료조사 목록 등 확인 |
| 조사범위 협의,<br>현장방문 조사 |                                                        |
| 시범조사 진행             | 사진촬영 진행, 조사원 활용-목록화 진행<br>- 현장에서 작업 진행(국립세종도서관)        |
| 기획서 마련 및<br>시범조사 정리 |                                                        |

출처: 연구진 작성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정, 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과정은 도시건축박물관에서 주요한 콘텐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개관이전에 사전 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임시수장공간으로 활용 중인 국립중앙도서관도 지속적인 소장도서 증가에 따라 대체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건설과정에 행복청과 중요한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그리고 '행복도시세종 홍보관' 등과의 연계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 우표류 - 건축 및 도시분야 도안

#### 1) 기획의도

우표는 오래된 수집품으로 다루어져온 매체이다. 우표수집에는 다양한 수집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수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다.

한국의 우표 중 건축물의 도상이 그려진 것들에 대한 수집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우표가 발행되었던 시기와 주요건축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축 전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 □ 유물구매 평가 항목 중 높은 수집 가능성

- 수집가능성

유물수집과 관련하여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항목 중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수집을 원하지만 불가능한 것들보다는 “수집가능성”에서 시작한다. 유물자체의 가치가 높지는 않을 수 있으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유물의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잠정적인 수집이 존재

또한, 우표류는 잠정적인 목록의 작성이 가능한데 이것은 발행처가 우체국이라는 조직으로 명확하며 발간목록이 존재하며, 각 우표별로의 가격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매공모를 통한 소장자의 가격제시와 가격평가를 통한 구매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 □ 예비적인 차원에서 유물구매 관련 프로세스를 잠정적으로 진행

- 예비소장품평가위원회를 통한 수집가능여부 검토(심의)
- 유물구매, 구매이후 보관, 방식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예비작업 진행
-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볼 수 있으므로 구매 가능한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일부 구매 진행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 □ 다른 수집품

- (유물) 도시, 건축을 소재로 한국에서 발간된 건축책
- (가능한 해석) 한국에서는 도시, 건축을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가?

#### □ 구매방식 (구매가능대상류)

- 건축도시분야의 잡지, 도서 등
- 향후, 소장된 우표를 통한 다양한 재분류를 통한 해석의 가능성

#### ① (예시1) 우표로 본 박람회 건축물

[표 부록-3] 우표로 본 박람회 건축물

| 발행일                                                                                 | 의미 (연구등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는 정보, description)                                                                                                                                          |
|-------------------------------------------------------------------------------------|---------------------------------------------------------------------------------------------------------------------------------------------------------------------------------|
|   | 1964년 뉴욕세계박람회 참가기념<br>- 설계자 : 김중업<br>- 한국관은 두 개 동으로 계획되었는데, 전시관은 꼬르뷔제의 후 기작품과 유사한 곡선형 건물, 식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은 한옥으로 설계<br>- 국가별 착공기념식 행사가 진행되었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최초로 방문했던 당시 현장방문 |
|  | 1967년 캐나다세계박람회 참가기념 우표<br>- 설계자 : 김수근<br>* 공간지에는 최초의 건축물이 도안된 우표라는 소개글도 있으나, 이전에 다양한 건축물 도안이 이루어진바 있음                                                                           |
|  | 1968년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최 기념 우표<br>- 구로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무역박람회<br>- 설계자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br>* 201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주제로도 다루어짐                                                                        |
|  | 1970년 일본만국박람회<br>- 오사카 엑스포 70으로 알려짐<br>- 설계자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br>초기에는 한도용(홍익대) 교수가 실내장식 책임이었다가 김수근으로 변경 (중앙일보 1970.1.24.)<br>* 201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주제로도 다루어짐                           |

출처: 연구진 작성

## ② 우표로 본 한국건축

### [표 부록-4] 우표로 본 한국건축

| 시기                  | 유물(물리적인 실체)                                          |
|---------------------|------------------------------------------------------|
| 1950년대              | 국제기구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로 유엔관련 행사에 대해서도 기념우표가 발간되었다. |
| 1958년에 유네스코 본부청사 신축 | 기념우표가 발간되었다.                                         |



1948년 국회개원기념  
(중앙청)

1955년 체신의 날 기념  
(옛 체신청, 서울중앙우체국)

1958년 유네스코  
본부청사 신축

1960년대 : 1961년 경복궁미술관에서는 국전이 개최되었다. 이후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국전은 덕수궁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경복궁미술관은 철거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곳에서는 UN에서 주최한 전 세계 순회전시인 '인간가족 전시(THE FAMILY OF MAN)'가 개최되기도 하면서 국내외의 주요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취임기념에는 행정부의 기능을 상징하는 중앙청이 도안으로 활용되었다. 1948년 국회로 사용되었다가 국회가 1954년 6월부터 옛 부민관 건물로 이전하면고 1962년 11월 22일 중앙청 본청 개청식 후 정부서울청사 이전까지 정부청사로 활용하였다.

1967년대 김수근이 남산에 설계한 '반공회관'에서 개최된 세계반공연맹 1차 총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69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준공에는 김수근이 홍릉에 설계한 본관건물이 도안에 사용되었다. 1969년에는 현충사 종건 기념의 우표가 발간되었다.



1961년 제10회 국전

1962년 항공우표

1963년 제5대대통령취임



1966년 여성신교육  
80주년기념

1967년 세계반공연맹  
총회기념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  
소 준공기념

1970년대 : 1970년 남산에 이광노가 설계한 한국어린이회관이 개관하였다. 1971년 남북이산가족찾기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대한적십자사 건물이 도안에 등장하였다. 1973년 관광시리즈 우표로 경복궁을 상

징하는 건축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등장하였다. 특이한 점은 별도의 도안이 디자인되지 않고 사진을 활용하였다. 1975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되면서 기념우표가 발간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KBS), 세종문화회관, 한국종합전시장 등 주요 건축물의 준공과 관련한 기념우표가 발간되었다. 한국종합전시장은 정림건축과 김원이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현재는 COEX로 확장되었다. 서울시 개발과정에는 봉은사 부지를 상공부에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곳이었으나 청사 이전이 무산되면서 종합전시장이 조성되게 되었고 앞쪽에는 옛 한국전력본사가 위치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70년  
한국어린이회관개관기념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1973년 관광시리즈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1975년 국회의사당  
준공기념



1977년 한국방송50주년기념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1979년 한국종합전시장  
개장기념

1980~2000년대 : 대규모 문화시설 개관에 따른 기념우표가 발간되었고, 1990년대부터 대학들이 100년을 맞게 되면서 기념우표를 발간하여서 다양한 대학건축물을 볼 수 있다. 아파트가 우표의 도안으로 등장한 적은 없고, 2005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표도안에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도시개념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되었던 작품이 사용되었다.



1993년 예술의 전당  
개관

1994년 전쟁기념관  
개관기념

1997년 숭실학원창립  
100주년기념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1998년 성균관  
건학 600주년 기념  
(명륜당)

2005년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인촌기념관)



2010년~현재 : 기존의 대학 100주년과 옛 건축에 대한 우표들도 발간되고 있다.

궁궐시리즈(석조전, 창경궁 명정전, 창덕궁 부용정, 경복궁 자경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건축물,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송례문 복구 등의 기념우표가 발간되었다



2018년  
해외독립운동유적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인민회 총회관)

2018년  
해외독립운동유적지  
(중국 상하이 홍콩공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2018년  
해외독립운동유적지(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2020년  
덕성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



2012년 세계유산 특별우표  
(양동(향단))



2013년 송례문 복구 기념우표  
(송례문)



2020년 한국의 옛 건축(궁궐)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 행궁, 남한산성 동문)

## 4.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아카이브

### 1) 기획의도

최근의 건축정책 관련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다. 건축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 연구소의 기관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인물로서 위원장 아카이브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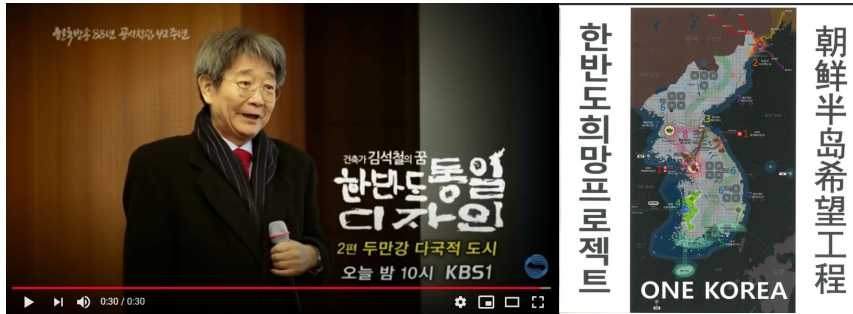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명원, 이상정, 김석철, 제해성, 승효상으로 이어져왔다. 위원회 이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진애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위원장으로서의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있어서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료로는 역대 위원회의 백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활동내역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자료로는 대통령위원회 자료로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관련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카이브의 주안점은 기록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들(사료, 유물들)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 2014년 김석철 위원장이 주요하게 추진하였던 ‘한반도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당시 KBS에 ‘한반도 통일 디자인’(2015.3.3.-2015.3.4.)으로 방송되었고, 대학로 위치한 아키반 스튜디오에서 전시도 진행하였다. 현재, 김석철 위원장은 작고하였고, 운영하던 아키반 스튜디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료실에는 당시 브로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보도자료 등이 확인된다. 당시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개최하는 것도 추진하였으나 국가차원에서 공감대가 없고 개인적인 제시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림 부록-1] KBS한국방송 - 한반도통일디자인

출처: 유튜브, <https://youtu.be/kETkEYBEJcM> (검색일: 2020.5.28.)

[그림 부록-2] 김석철, 한반도희망프로젝트 브로셔

초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자료들과 관련하여서는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였던 점에서 학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역대 임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sup>66)</sup>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표 부록-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0주년-남기고 싶은 이야기-영상 목록 중 참석자

| 일시 | 참석                                                |
|----|---------------------------------------------------|
| 1차 | 김민제(9대 회장), 김원(11대 회장), 조정제 (12대 회장), 최병선(16대 회장) |
| 2차 | 유완(13대 회장) 황희연(20대 회장), 김홍배(24대 회장)               |
| 3차 | 최상철, 장명수                                          |
| 4차 | 여홍구(14대 회장), 강양석(18대 회장), 이우종(22대 회장), 김원(제11대)   |
| 5차 | 서의택, 허재완(21대 회장)                                  |
| 6차 | 장택옥, 김창석(19대 회장), 원제무(18대 회장)                     |

출처: 유튜브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진 정리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정부조직에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방식들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건축, 도시분야의 주요 위원회에 관한 개인별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장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66) 도시TV\_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 남기고 싶은 이야기(학회 60주년 기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Z3bqyRM1eNEf54jubqdqBsmsMUGczGBw> (검색일: 2020.7.23.)

## 5.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 1) 기획의도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는 비교적 많은 양이 제작되어져서 단기간에 일제강점기의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주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이며, 건축 및 도시분야의 계획적 가치 등에 대한 평가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 □ 기존 자료에 대한 확인

-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소재로 발간된 엽서의 전체 규모에 대한 확인은 아직 진행되지 않음
  - 일본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에 한국을 소재로 발간된 엽서에 관한 아카이브가 있음
-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에 소장된 자료 :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 소장자료는 국내 민속원 출판사에서 부산근대역사관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으로 출판된바 있음
  - 전체는 7권으로 1권은 기념엽서 등, 2권은 명소엽서 : 경성1, 3권은 명소엽서 : 경성2·경기·충청·강원도지역, 4권은 명소엽서 : 평양·황해·평안·함경도 지역, 5권은 명소엽서 : 부산·경상·전라도 지역, 6권은 풍속엽서, 7권은 수학여행기 타엽서 등으로 구성
  - 이와 별도로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부산박물관, 민속원, 2009)’도 출판된바 있음. 주제는 도시, 관광, 풍속, 조선인, 관제엽서 등으로 구성하여 8권으로 발간
- (시사점) 유물수집전략에 있어서 관계 도서, 공공기관 소장자료 현황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
  - 소장품 대상 유물, 시기 등의 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에 따른 리드파일 마련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일본 경매 사이트 등 활용

- 일본 경매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엽서 등이 출품
  - 엽서, 시각자료를 생산하였던 주체들의 소장처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낱장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다수로 출품되는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자료의 맥락화가 필요
  - 그림에도 주요 건축물, 주요도시의 전경이나 상설전시의 주제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아카이브적 관점에서의 유물 가치보다는 전시를 위한 유물로서 구매가 가능



[그림 부록-3]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 책자 표지 [그림 부록-4]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책자 표지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 □ 시사점

-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며, 건축 및 도시분야의 협업을 통한 해석이 필요한 매체유형임
- 근현대 관련 박물관에서 관련 전시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시각매체로 다수 활용되고 있음
  - ‘근대 사진엽서로 보는 100년 대전’ 전시(대전시, 2011), ‘사진엽서로 읽는 근대수원’ 출판(수원박물관, 2009년), ‘개화기 사진엽서로 보는 인천의 건축물’ 전시(인천향토사회연구회) 등

## 6. 건축 및 도시분야 잡지

### 1) 기획의도

잡자는 한국의 건축 및 도시분야에 있어서 시대를 기록한 매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잡지의 경우, 1966년 11월 창간된 공간지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과 건축’, ‘건축조선’ 등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다수의 매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도시분야의 경우에도 도시문제 등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매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 □ 그동안 발간된 잡지들에 대한 조사

- 잡지류의 목록화 작업
  -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잡지들이 발간
- 책정된 예산 내에서 구매 가능한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우선 구매 순서를 통하여 구매 진행

[표 부록-6] 건축 및 도시분야 잡지류 현황

| 잡지명            | 개요                                                        | 비고                                              |
|----------------|-----------------------------------------------------------|-------------------------------------------------|
| 조선건축<br>(朝鮮建築) | 조선건축기술단 기관지<br>1947년 3월 창간호 발행~1949년 5월 제9호 절간            | 국가등록문화재 제575호<br>2013.12.20. 등록<br>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 朝鮮と建築          | 조선건축회 발간<br>1922년 6월 창간호 발행~1945년 2월 간행                   | 온라인을 통하여 전권 제공 중<br>(국립중앙도서관)                   |
| 공간             | 공간사에서 발간한 잡지로<br>1996년 11월 창간호 발행~현재까지 발간 중               | 온라인을 통하여 전권 제공 중<br>(vmospace.com)              |
| 건축문화           | 1981년 6월 창간호 발행~현재까지 발간 중                                 | 온라인을 통하여 전권 제공 중<br>(auric.or.kr)               |
| 도시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간한 잡지<br>1966년 발간~2018년                        | 온라인을 통하여 전권 제공 중<br>(kiss.kstudy.com)           |
| 주택             | 주택도시연구원 발간한 잡지<br>1959년 7월 창간<br>주택도시로 변경하여 2007년 3월까지 발간 | 온라인을 통하여 전권 제공 중<br>(auric.or.kr)               |

출처: 연구진 정리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 □ 시사점

- 건축 및 도시분야의 잡지에 대한 판단 기준자체도 매우 애매함
-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는 잡지 중 일부는 복간본 작업 등을 진행하기도 하나 저작권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 기대효과

-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로서의 잡지에 대한 논의 가능
  - 많은 잡지가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
- 출간된 자료에 대한 전체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각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잡지들에 대한 목록 작업 등 진행 검토 가능

## 7. 국토부 주요 건축, 도시박람회 행사 자료 아카이브

### 1) 기획의도

국토부에서는 다양한 건축, 도시 관련 정부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박람회 행사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수집 가능한 자료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연간 행사계획 확인을 통하여 주요 행사 확인, 매 행사 참여를 통하여 전시를 위하여 제작된 전시물 중 수집가능성, 수집가치, 소요비용 등을 평가하여 수집가능 대상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이전한다.

[표 부록-7] 국토부 도시분야 연간 행사 현황

| 시기    | 행사명                | 주요섹션                                                                                                                                                                                                                                  |
|-------|--------------------|---------------------------------------------------------------------------------------------------------------------------------------------------------------------------------------------------------------------------------------|
| 10월 중 | 대한민국<br>도시재생 산업박람회 | 컨퍼런스<br>- 도시재생 현안, 주제발표 및 토론<br>아이디어, 영상제작 공모전, 도시재생산업문화대상 시상식<br>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br>세미나<br>- LH, HUG, 한국감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프론티어테크협회<br><a href="http://criexpo.kr/">http://criexpo.kr/</a>                             |
| 9월 중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 컨퍼런스<br>- 정책, 기술 및 솔루션, 공유경제 및 지속가능성, 글로벌 조인트 스마트전시<br>- 전자정부, 에너지관리, 지능형교통, 정보통신기술<br>국민참여행사<br>- 어린이그림그리기,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토크살롱,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br><a href="https://www.worldsmartcityexpo.com/">https://www.worldsmartcityexpo.com/</a> |

출처: 연구진 정리

[표 부록-8] 국토부 건축분야 연간 행사 현황

| 시기    | 행사명/장소                 | 주요섹션                                                                                                                      |
|-------|------------------------|---------------------------------------------------------------------------------------------------------------------------|
| 9월 중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건축, 도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 상영 및<br>대화프로그램(GV)운영 및 부대행사 진행<br><a href="http://www.siaff.or.kr/">http://www.siaff.or.kr/</a>      |
| 10월 중 | 한옥문화박람회<br>(경주 화백문화센터) | 한옥정책, 한옥건축, 한옥자재, 주거문화, 한옥체험<br><a href="http://www.koreahanokexpo.kr/main.php">http://www.koreahanokexpo.kr/main.php</a> |
| 11월 중 | 한국건축산업대전<br>(COEX)     | 대한건축사대회와 동시에 개최<br>기념식, 교육 및 세미나, 문화전시, 산업전시회<br>-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전시                                                        |
| 11월 중 | 녹색건축한마당                |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개최                                                                                                         |

출처: 연구진 정리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는 도시, 건축분야의 정부 행사를 세종 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 도시건축박물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전시품은 박물관에 아카이빙한다. 여기서, 아카이빙이란 도시, 건축분야의 정부행사 전시에 활용된

자료 중 전시계획, 전시품을 도시건축박물관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된 자료는 박물관의 평가를 통해서 소장,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개최되었던 도시, 건축분야의 주요전시를 재현하는 전시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99년 한국건축10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었던 ‘한국건축 100년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시행사에 대한 메타전시를 통하여 한국현대 건축도시분야에 있어서 ‘건축, 도시’전시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방향 정책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향후, 운영될 문화시설의 정관, 법제정 과정에 주요사업이나 이관절차 등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출판물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및 납본제도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이 가능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8. 한국건축 100년전 아카이브

### 1) 기획의도

〈한국건축 100년〉전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여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문화행사 중 하나로 마련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9년 9월 31일~10월 28일까지 ‘건축 100년전’이 개최되었고 당시 도록이 출간되어서 주요 내용이 정리되었다.

### 2) 추진방안(수집기획, 수집실행)

〈한국건축 100년〉전 관련 기초조사를 통하여 당시 진행되었던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한다. 도록을 통하여 주요 전시품 및 참여자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유물의 현황을 추적하여서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리스트를 정리한다.

#### □ 기초조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1999년 건축문화의 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당시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67)</sup>

---

67)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중 한국건축100년전 검색결과,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한국건축100년전> (검색일: 2020.7.21.)

1999년 1월 15일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장 이광노 교수가 다양한 사업기획이 발표하였다. 주요사업은 건축문화엑스포, 밀레니엄 기념 조형물 건립, 건축문화운동, 건축문화 관광자원화 등의 사업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었고, 주요 행사는 '건축문화 엑스포'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하는 것이었다. '건축문화자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계획도 발표하였다.<sup>68)</sup>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건축 100년전'은 3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구문물의 타의적도입과 우리 건축의 변화'로 개항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건축사를 전시하였다. 도록에는 이 부분의 원고를 성균관대 윤인석 교수로 확인된다. 주요 전시품은 1930년대 정동과 한국은행 앞까지의 복원 모형, 해방 10주년 기념 '상계약도', '1920년 서울역 정거장 계획도', '우리나라 건축사 제1호 김재철 건축사 면허증' 등이다. 도록에는 건축소장자료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소장자들의 소장품이 소개되었는데 주요 소장자는 다음과 같다. 소장자료전 1은 김영준(시간여행 대표), 김기억(전 철도박물관장), 신인수, 고종호, 한국토지공사 박물관, 소장자료전 2는 김정동(목원대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up>69)</sup>

[표 부록-9] 한국건축 100년전 건축소장자료전 주요 유물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경성·인천 시가전도              | 1910년, 116cm x 109cm<br>한일한방을 기념하여 제작된 지도<br>앞면에는 경성과 인천의 가로와 주요건물이 표기<br>뒷면에는 일본 전도가 그려져 있음 | 김영준 |
| 해방 10주년 기념 서울           | 1956년, 109cm x 78cm<br>서울 4대문안의 주요 상정의 현황을 가로변의 표기                                           | 김영준 |
| 조선건축회 조선박람회<br>출품주택 설명회 | 1930년, 75cm x 54.5cm<br>시정 20주년기념 경북궁 조선박람회 출품된 주택 홍보용 팸플렛<br>우측에 조선건축회 개요 설명                | 고종호 |
| 미스코시 백화점<br>인테리어 도면     | 1938년, 80cm x 56cm, 1/30<br>미스코시 백화점 인테리어 도면, 총7매로 구성                                        | 고종호 |
| 경제기획원청사/<br>USOM시공사진    | 1960-62년, 25cm x 20.5cm, 53매<br>청사계획에서 시공 전과정 기록                                             | 김영준 |
| 연희전문학교<br>졸업사진첩         | 1922년, 30cm x 21cm<br>주요건물의 사진과 배치도 수록                                                       | 신인수 |

68) 이주현(1999), "건축에도 국제행사 하나는 있어야...", 한겨레, 1월 19일 기사

69)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1999), 「한국건축 100년」, 도서출판 피아, p121.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고려대학교 사진첩           | 1957년, 30cm x 21cm<br>박동진이 설계한 보성전문학교 건물의 내외부 전경 및 대학건물 수록                      | 김영준               |
| 조선총독부 준공사진첩         | 1926년, 36.5cm x 27cm<br>조선총독부 건립과정에 관한 종합보고서 형식의 사진첩                            | 김정동<br>신인수        |
| 경성교의 간선도로 개수공사 사진첩  | 1935년, 28.5cm x 19cm<br>경성부계에서 왕십리역, 경성부계에서 청량리역, 아현부근에서 마포구 간 도로 개수 공사내용 사진 기록 | 김영준               |
|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      | 1925년, 37cm x 28cm<br>1920년대 서울역, 동경대 건축과 교수 쓰카모토 야스시 설계관련 사진 및 도면 수록           | 김기억               |
| 일본지리풍속대계 -조선(상·하)   | 1930년, 20cm x 26.5cm<br>총 36권으로 간행<br>1930년대 도로, 도시계획, 주요건축물 사진, 개요 등 파악        | 김영준               |
| 재래식 추가 개선에 대하여      | 박길룡(1898-1943) 조선의 재래 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대안 제시                          | 김영준               |
| 서울지번안내도             | 1936년, 37cm x 53cm<br>총 15매, 주요건물의 배치와 건물명 표기                                   | 한국토지<br>공사<br>박물관 |
| 건축신축 허가 신청서         | 1939년, 20cm x 27.5cm                                                            | 김영준               |
| 건축 허가 신청서 (주택 설계변경) | 1959년, 17.5cm x 26cm                                                            | 김영준               |

출처: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1999), 『한국건축 100년』, 도서출판 피아, p122-133.

**[표 부록-10] 한국건축 100년전 건축소장자료전 중 소장자료전 2(김정동 소장자료) 주요 유물**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이상(김해경) 현상공모 당선 도안            | 1930년, 33cm x 40cm<br>조선과 건축 9집<br>조선총독부 기수 이상의 표지도안                                | 김정동 |
| 건축사면허증 1호                     | 1965년, 25cm x 33cm<br>건축사 1호인 김재철(1913년 6월 28일생) 1965년 취득<br>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역임 | 김정동 |
| 최신 대전시가 지도                    | 1933년, 116cm x 80 cm<br>1933년 대전중심부 주요가로와 건축물                                       | 김정동 |
| 충청남도 물산분포도 및 자동차 노선 안내도       | 1932년, 58cm x 30cm<br>충청남도 지역별 농축수산물에 대한 분포도 등                                      | 김정동 |
| 공주, 충청남도 청사 배치도               | 1930년경, 165cm x 55cm, 축척 : 1/300                                                    | 김정동 |
| 공주, 순사교습소 건물-여학교 기숙사 개조공사 배치도 | 50cm x 35cm, 축척 : 1/600                                                             | 김정동 |
| 철원감리교회 설계도                    | 42cm x 30cm 5매, 30cm x 42cm 1매                                                      | 김정동 |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제일은행 조선지점<br>평면도       | 27cm x 22cm                                                                                                                                                                                                                                                                                                                                                                                                                                                                                                                               | 김정동 |
| 송광사 건물 위치 및<br>평면도     | 56cm x 54cm, 1890년대                                                                                                                                                                                                                                                                                                                                                                                                                                                                                                                       | 김정동 |
| 금강산 장안사 호텔<br>개축공사 도면  | 배치도 70cm x 50cm, 축척 : 1/2,400<br>평면, 입면도 80cm x 60cm, 축척 : 1/100                                                                                                                                                                                                                                                                                                                                                                                                                                                                          | 김정동 |
| 건축관련 잡지 창간호<br>등 회귀도서  | 박길룡 <건축조선> 1940년 18cm x 25cm, 50%축쇄<br>도시와 건축(1941년)<br>조선건축, 창간호(1947.3) 조선건축기술단<br>건축(Architecture), 창간호(1955.6), 대한건축학회<br>향토서울, 창간호(1957년)<br>주택(House & Home), 창간호(1959년), 대한주택영단<br>Architecture Column, 창간호(1960.4), 한양대 공대 건축학회<br>한국건축가협회 뉴스, 창간호(26cm x 19cm, 1960)<br>현대건축, 창간호(1960.11)<br>금우건축, 창간호(1969.5), 금우회                                                                                                                                                                                                             | 김정동 |
| 관청청사건립 정부간행<br>건축관련 도서 | a. 정부종합청사 건설관련자료<br>- 정부종합청사, 총무처<br>- 정부종합청사, “슬립폭”에 의한 공법, 총무처, 1968년<br>- 공작도 취급절차, 총무처, 정부종합청사신축사무소, 1969년<br>- 정부종합청사 신축공사 관계자 편람(제2판), 총무처, 1969년<br>- 정부종합청사신축소개, 총무처, 1970년<br>- PA&E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경위, 총무처, 1970년<br>- 정부종합청사의 진동측정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서, 한국과학기술<br>연구소, 1974년<br>b. 청사건립도서<br>- 연금아스팔회관<br>- 국립중앙박물관준공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2년<br>- 어린이의 푸른궁전 어린이 대공원, 서울특별시, 1973년<br>- 남산 국회의사당 관련자료 스크랩 북<br>-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br>- 허피(HURPI), 건설부 주택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실, 1967년<br>- 허피(HURPI), 제6집, 건설부주택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실, 1968년<br>- 그린벨트 해설, 건설부, 1974년 | 김정동 |
| 주거관련 책자                | 대한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한 도서와 도시 및 농촌주거 설계<br>공모 결과 책자<br>- 주택<br>- 현대여성생활전서 주택, 여원사, 1960년<br>- 새로운 주택, 안영배, 김선균, 보음재, 1964년<br>- 주택, 대한주택공사, 1966년<br>- 누구나 필요한 주택설계도집, 대한건축사협회, 1969년<br>- 제2회 주택전 팸플릿, 11cm x 22cm, 1969년<br>- 월간 주택정보, 주택정보센터 한국주택사업협회, 1979년                                                                                                                                                                                                                                                                             |     |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건축가 정인국 집필도서             | <p>건축가 정인국 (1916.7.26.~1975, 아명 정인창)이 집필한 도서와<br/>         육필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건축사, 문화교육출판사, 1962년</li> <li>- 근대건축론, 문운당, 1965년</li> <li>- 건축양식 발전의 이원성과 주기성(19cm x 26cm), 1970년</li> <li>- 현대건축론, 아정문화사, 1970년</li> </ul>                                                             | 김정동 |
| 건축관련 협회 초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건축사협회 규약, 조선건축사협회, 1948년</li> <li>- 한국건축용어집 제4집 (단청, 정원, 건축일반), 장기인, 한국건축가협회, 1969년</li> <li>- 한국현대건축 1(주택), 한국건축가협회, 1970</li> <li>- 한국현대건축 2(사무소건축), 한국건축가협회, 1971</li> <li>- 회원명단, 한국건축가협회, 1976, 1978</li> <li>- 한국건축개론(1978년 건축사보수교육교재), 강봉진, 대한건축사협회, 1978</li> </ul> | 김정동 |
| 건축설계 및 교육관련<br>도서-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제도, 동경 길전공무소 출판부, 길전전삼, 1933년</li> <li>- 기초제도, 계림인서관, 실업재료 편찬회, 1947년</li> <li>- 제도, 대한공업교육연구회, 이원본, 1955년</li> <li>- 토론토대학 학습자료(The University of Toronto Engineering Society), K.C.Bunston, 1948</li> </ul>                                                             | 김정동 |
| 건축설계 및 교육관련<br>도서-저학년 공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서 제6학년(아동용), 문부성, 대판서0주식회사, 1931년</li> <li>- 초등공작 제6학년(남자용), 조선총독부, 1944년</li> <li>- 초등학교 제4학년(여자용), 조선총독부, 1944년</li> <li>- 초등과도서 제6학년(남자용), 조선총독부문부성, 1944년</li> </ul>                                                                                                    | 김정동 |
| 건축설계 및 교육관련<br>도서-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노트, 대전공업공업중학교 건축학과 2학년, 조사현</li> </ul>                                                                                                                                                                                                                                      | 김정동 |
| 건축설계 및 교육관련<br>도서-건축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재료학, 중앙공학회, 1942년</li> <li>- 일제 강점기 벽지 샘플</li> </ul>                                                                                                                                                                                                                        | 김정동 |
| 건축설계 및 교육관련<br>도서-설계자료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도목자료집람 후0 : 건축학회,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사회, 건축업학회, 일본건축사회, 건축업협회, 건축자료협회, 1937년</li> </ul>                                                                                                                                                                                            | 김정동 |
| 건축관계법령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회계법규, 조선총독부, 1920년</li> <li>- 조선시가지지계획령, 조선출판사, 1941</li> <li>- 경성부 방호계획서, 30cm x 21cm</li> </ul>                                                                                                                                                                           | 김정동 |
| 한일한방기념탑 사진첩              | <p>불국사 다보탑의 형상을 콘크리트로 재현한 기념탑<br/>         일본 도쿄 하루주쿠에 세워졌음</p>                                                                                                                                                                                                                                                        | 김정동 |
| 대한의원 개원식<br>기념사진첩        | <p>1907년 착공, 1908년 개관한 대한의원 본관 및 부속건물<br/>         대한의원은 탁지부건축소에서 설계</p>                                                                                                                                                                                                                                               | 김정동 |
| 조선, 전체안내 도서              | <p>철도여행과 관련한 안내서로 총독부 철도국에서 발간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만주여행안내</li> <li>- 조선철도 연선요람</li> <li>- 조선·만주·지나 안내</li> <li>- 반도의 근영, 조선총독부 철도국(1935년)</li> <li>- 관광지과 양식호텔, 철도성</li> </ul>                                                                                                            | 김정동 |

| 유물명          | 개요                                                                                                                                                                                                                                                                                                                                              | 소장자 |
|--------------|-------------------------------------------------------------------------------------------------------------------------------------------------------------------------------------------------------------------------------------------------------------------------------------------------------------------------------------------------|-----|
| 서울관련 도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성부사 제1권(1934), 제2권(1936), 제3권(1941)</li> <li>- 최근 경성안내기, 경성신문사, 1921년</li> <li>- 왕궁사, 이철원, 동국문화사, 1954년</li> </ul>                                                                                                                                                                                    | 김정동 |
| 지방별 안내도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각 지방의 건축자료들이 수록된 도서</li> <li>- 제물포 도면(11cm x 22cm), 영국공문서관 자료, 1896년</li> <li>- 지방행정구역명세일람, 조선총독부 내무국, 1932년</li> <li>- 부여명승고적도(41cm x 30cm)</li> <li>- 전남사정록, 1958년</li> <li>- 목포대관, 그년제, 대한건설문화사, 1960년</li> <li>- 충청남도 발전사, 호남일보사편</li> </ul>                                                      | 김정동 |
| 건축관련 기술자 인명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에 거주한 유명한 인물정보</li> <li>- 조선기술가명부, 조선공업협회, 1939년</li> <li>- 조선인명부, 고궁태평, 합자회사 경성일보사, 1942년</li> <li>- 한국인사록 제1권(내외, 재무, 전매, 산업편), 공시현, 흥론문화사, 1954년</li> </ul>                                                                                                                                         | 김정동 |
| 엽서           | 경성 37, 오산 1, 이리 5, 통영 1, 논산 8, 전주 6, 옥구 4                                                                                                                                                                                                                                                                                                       | 김정동 |
| 기타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World Fair Album 사본 (30cm x 21cm, 1893sus)</li> <li>- 제5회 신인예술상 미술건축인전 작품집(10cm x 25cm, 1966년)</li> <li>- 제15회 국전</li> <li>- 제7회 신인예술상미술건축인전 작품집</li> <li>- 신인건축전 팸플렛</li> <li>- 주한이태리대사관 도면</li> <li>- 건축가의 스케치/ 병원 + 노트</li> <li>- 건축가 이용재 사진</li> <li>- 김세연 선생 주요작품 사진첩(26cm x 19cm)</li> </ul> | 김정동 |

출처: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1999), 「한국건축 100년」, 도서출판 피아, p134-160. 재구성

2부는 건축의 본원적 가치의 추구, 한국 현대건축이라는 주제로 도록에는 한양대학교 정인하로 확인된다. 모더니티의 추구, 정체성의 모색과 지역성의 탐구, 도시화에 따른 주거의 변모, 건축의 다원화, 국제화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주요 작품과 건축가들이 소개되었다. 3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사고로 도록에는 김병윤으로 확인된다.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1999년 4월 28~6월 7일까지 ‘건축장인의 땀과 꿈’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전시에는 건축장인의 도구들이 전시되었고 일본의 건축 장인들의 도구도 비교 전시되었다.

한국건축가 협회에서는 한국건축 100년전 기념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한국의 현대건축’ 2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당시 건축가들의 주요작품들이 정리되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후로 10년 단위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부록-5] 「한국의 현대건축, 건축가」, 「한국현대건축총람·건축가」 표지

당시 연표도 제작되었는데 세계사, 세계건축사, 한국사, 한국건축상황, 한국현대건축물을 2.4m x 22m크기였다.



[그림 부록-6] 「건축장인의 땀과 꿈」 도록 표지

[그림 부록-7] 「한국건축 100년」 도록 표지

###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전시가 현재의 건축, 도시분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의 유물은 현재 남아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통하여 한국건축의 주요전시 이후에 관련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부록4. 건축 및 도시분야 주요사건 중 유관기관 유물 목록 조사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 1. 개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은 한국 건축과 도시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토계획,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당시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에 소장된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 유관기관별 유물에 관한 유형의 차이

각 기관별로 다양한 매체로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의 경우, 행정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상 공문서와 관련한 문서철이 주된 자료이다. 반면, 국토연구원 도서관에서는 책자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토부 국토발전시관 유물의 유형으로서 책자류가 확인된다.

#### □ 유물별 정보

소장 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물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크게는 도서관 관리체계, 박물관 유물관리체계, 국가기록물 관리체제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유물 등록 및 관리체계가 고려될 필요하다.

관련 업무에 따라서 시스템이 설계된다는 점에서 운영조직, 방식 등에 따라서 관리체계는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소장품에 대한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

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한 가치 평가, 수집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요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자나 기관의 학예인력의 판단보다는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의 평가절차를 통하여 소장될 것이다.

## 2. 소장처별 자료 현황

### □ 국가기록원 (1건)

[표 부록-11]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가기록원

| 순서 | 제목                               | 생산년도          | 관리번호            | 생신기관     |
|----|----------------------------------|---------------|-----------------|----------|
|    |                                  | 기록물유형         | 페이지             | 유형       |
| 1  | 도시기본구조계획(모형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1978<br>정부간행물 | C2M01330<br>156 | 미상<br>실물 |

### □ 대통령기록관 (37건)

[표 부록-12]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대통령기록관 소장자료

| 순서 | 제목                            | 생산년도   | 건번호               |
|----|-------------------------------|--------|-------------------|
| 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모형계획(Ⅰ)     | 197901 | 1A0061417502 9698 |
| 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본구조계획(모형Ⅰ)   | 197801 | 1A0061417502 9713 |
| 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본구조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711 |
| 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문제와대책         | 197801 | 1A0061417502 9714 |
| 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국토재편성의기본구상      | 197801 | 1A0061417502 9709 |
| 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외국신수도와행정수도계획의비교 | 197901 | 1A0061417502 9702 |
| 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의공장생산화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701 |
| 8  | 행정수도건설백지계획의특성                 | 197901 | 1A0061417502 9704 |
| 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모형계획(Ⅱ)     | 197901 | 1A0061417502 9699 |
| 1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민간기업의효율적참여방안    | 197801 | 1A0061417502 9716 |
| 1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모형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719 |
| 1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의특성연구(중간보고)      | 198001 | 1A0061417502 9729 |
| 1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제Ⅱ부)            | 198001 | 1A0061417502 9728 |

| 순서 | 제목                                   | 생산년도   | 건번호               |
|----|--------------------------------------|--------|-------------------|
| 1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재원조달방안                 | 197801 | 1A0061417502 9717 |
| 1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제 I 부)                 | 198001 | 1A0061417502 9726 |
| 1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토지제도의개선방안              | 197801 | 1A0061417502 9723 |
| 1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의대량생산화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721 |
| 1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724 |
| 1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행정수도광역권개발기본구상          | 197801 | 1A0061417502 9731 |
| 2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현지주민의이주대책              | 197801 | 1A0061417502 9732 |
| 2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새도시의유통구조               | 197901 | 1A0061417502 9694 |
| 2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중심지구조경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676 |
| 2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단계별건설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674 |
| 2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후보지선정에관한1차조사           | 197801 | 1A0061417502 9673 |
| 2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슬라이드보고용)               | 197711 | 1A0061417502 9671 |
| 2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안)-보충자료                | 197711 | 1A0061417502 9669 |
| 2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br>-교통체계분석과교통수단선정에관한연구 | 197801 | 1A0061417502 9678 |
| 2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696 |
| 2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조경,식재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679 |
| 3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금강본류부수문조사              | 197801 | 1A0061417502 9683 |
| 3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재원조달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693 |
| 3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반조성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691 |
| 3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지역냉난방및진개처리             | 197801 | 1A0061417502 9681 |
| 3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규모와도시비용              | 197901 | 1A0061417502 9689 |
| 3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이전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686 |
| 3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인력·자재수급및이전계획           | 197801 | 1A0061417502 9684 |
| 3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행정수도광역권개발계획            | 197901 | 1A0061417502 9687 |

출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pa.go.kr/portal/search/base/search.do#> (검색일: 2020.10.24. 검색결과 재정리)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8건)

[표 부록-13]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순서 | 명칭                    | 크기                                             | 소장품번호  | 작가         |
|----|-----------------------|------------------------------------------------|--------|------------|
|    | 국적/시대                 | 분류                                             | 재질     |            |
| 1  | 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의 특성       | 가로:22.2,세로:29.1,<br>높이:2.3                     | 수증3693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2  |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가로:21.6,세로:28.9,<br>높이:3.3                     | 수증3689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3  | 주택단지 모형계획(II)         | 가로:22.2,세로:29.6,<br>높이:0.7                     | 수증3694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4  | 주택단지 모형계획(III)        | 가로:21.4,세로:29.5,<br>높이:0.9                     | 수증3692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5  | 주택단지계획                | 가로:22.1,세로:29.2,<br>높이:1.3,가로:22.2,<br>세로:29.2 | 수증3691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6  | 도시기반조성계획              | 가로:21.8,세로:29.2,<br>높이:1.5,가로:21.8,<br>세로:29.2 | 수증3690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7  | 외국신수도와 행정수도계획<br>의 비교 | 가로:22.3,세로:29.1,<br>높이:1.4,가로:22.1,<br>세로:29.1 | 수증3688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8  | 이전계획                  | 가로:22.3,세로:29.1,<br>높이:1.7,가로:22.1,<br>세로:29.1 | 수증3687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9  | 도시규모와 도시비용            | 가로:22.1,세로:29.0,<br>높이:0.7,가로:22.1,<br>세로:29.0 | 수증3686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0 | 주택의 공장생산화계획           | 가로:22.2,세로:29.2,<br>높이:1.3,가로:22.1,<br>세로:29.2 | 수증3685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1 | 지역냉난방 및 진개처리          | 가로:22.0,세로:29.2,<br>높이:1.2                     | 수증3684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2 | 토지제도의 개선방안            | 가로:22.0,세로:29.2,<br>높이:1.9                     | 수증3683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순서 | 명칭               | 크기                         | 소장품번호  | 작가         |
|----|------------------|----------------------------|--------|------------|
|    | 국적/시대            | 분류                         | 재질     |            |
| 13 | 도시기본구조계획(모형 1)   | 가로:22.2,세로:29.1,<br>높이:1.3 | 수증3682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4 | 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가로:21.8,세로:29.0,<br>높이:1.2 | 수증3681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5 | 도시조경·식재계획        | 가로:22.2,세로:29.2,<br>높이:1.7 | 수증3680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6 | 수도01편의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가로:22.3,세로:29.6,<br>높이:2.0 | 수증3679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7 | 단계별 건설계획(부록)     | 가로:22.0,세로:29.3,<br>높이:0.7 | 수증3678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 18 | 인력·자재 수급 및 이전계획  | 가로:22.3,세로:29.0,<br>높이:0.8 | 수증3677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
|    | 한국 / 광복이후        | 산업/생업-관련도서                 | 종이     |            |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http://www.much.go.kr/museum/nrms/list.do> (검색일: 2020.10.24.) 검색결과 재정리

## □ 국토발전전시관 (41건)

[표 부록-14]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토발전전시관

| 순서 | 명칭                                           | 크기        | 분류 | 입수처 | 소장품번호        | 구분 |
|----|----------------------------------------------|-----------|----|-----|--------------|----|
| 1  |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23x30x3   | 지류 | 안경모 | 지-P089-08957 | 기증 |
| 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안)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1 | 기증 |
| 3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안)-보충자료-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2 | 기증 |
| 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의 특성연구-중간보고-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3 | 기증 |
| 5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행정수도광역권개발기본구상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4 | 기증 |
| 6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도시기본구조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5 | 기증 |
| 7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교통체계분석과 교통수단선정에<br>관한 연구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6 | 기증 |
| 8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현지주민의 이주대책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7 | 기증 |
| 9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후보지 선정에 관한 1차조사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8 | 기증 |



| 순서 | 명칭                                  | 크기        | 분류 | 입수처 | 소장품번호        | 구분 |
|----|-------------------------------------|-----------|----|-----|--------------|----|
| 10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문제와 대책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79 | 기증 |
| 1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지역냉난방 및 분개처리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0 | 기증 |
| 1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중심지구조경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1 | 기증 |
| 13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단계별건설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2 | 기증 |
| 1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민간기업의 효율적 참여방안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3 | 기증 |
| 15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국토재편성의 기본구상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4 | 기증 |
| 16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5 | 기증 |
| 17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재원조달방안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6 | 기증 |
| 18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조경 식재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7 | 기증 |
| 19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토지제도의 개선방안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8 | 기증 |
| 20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모형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89 | 기증 |
| 2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기본구조계획 (모형1)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0 | 기증 |
| 2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금강분류부 수문조사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1 | 기증 |
| 23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의 대량생산화 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2 | 기증 |
| 2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인력 주재 수급 및 이전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3 | 기증 |
| 25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이전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4 | 기증 |
| 26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재원조달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5 | 기증 |
| 27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기반조성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6 | 기증 |
| 28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단지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7 | 기증 |
| 29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단지 모형 계획(1)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8 | 기증 |
| 30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단지 모형계획 (2)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399 | 기증 |
| 3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행정수도광역권개발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0 | 기증 |
| 3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새도시의 유통구조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1 | 기증 |
| 33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외 국신수도와 행정수도계획의 비교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2 | 기증 |

| 순서 | 명칭                              | 크기        | 분류 | 입수처 | 소장품번호        | 구분 |
|----|---------------------------------|-----------|----|-----|--------------|----|
| 3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도시규모와 도시비용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3 | 기증 |
| 35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주택의 공장생산화계획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4 | 기증 |
| 36 | 업무상업지구건축물배치연구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5 | 기증 |
| 37 | 2000년대의 국토구상                    | 21X30X1.5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6 | 기증 |
| 38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21X30X2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7 | 기증 |
| 39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제1부)       | 21X30X2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8 | 기증 |
| 40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제2부)       | 21X30X2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09 | 기증 |
| 4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br>의 특성        | 21X30X2   | 지류 | 강권중 | 지-P091-09410 | 기증 |

출처: 국토발전전시관(2020), 「국토발전전시관 소장자료 현황」, 국토발전전시관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13건)

[표 부록-15]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국토연구원 소장자료

| 순서 | 유물명                                     | 발행년  | 저자                            |
|----|-----------------------------------------|------|-------------------------------|
| 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국사지구지질조사              | 1978 | 자원개발연구소 염상호 외                 |
| 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금강분류부 수문조사            | 1978 |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br>선우중호 외       |
| 3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단계별 건설계획(부록)          | 1978 |                               |
| 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새도시의 유통구조             | 1979 | 한국산업개발연구소 안원태 외               |
| 5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외국신도시와 행정도시<br>계획의 비교 | 1979 |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br>곽영훈 외        |
| 6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이전계획                  | 1979 | 한국산업개발연구소 안원태 외               |
| 7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주택단지모형계획(III)         | 1979 | 한양엔지니어링 홍정일 외                 |
| 8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중심지구공간계획              | 1978 | 홍익대학교 환경디자인 연구소<br>곽영훈 외      |
| 9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지역냉온방 및 진개처리          | 1978 | 한국화학연구소 서동수 외                 |
| 10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행정도시 광역권개발 기<br>본구상   | 1978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br>지역개발연구소 황용주 외 |
| 11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제1부                    | 1980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br>지역개발연구소       |

| 순서 | 유물명                    | 발행년  | 저자             |
|----|------------------------|------|----------------|
| 12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의 보완연구 | 1978 |                |
| 13 | 행정수도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1978 | 대한국토계획학회 박병주 외 |

출처: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library.krihs.re.kr, 검색하여 재구성

## □ 행정수도백지계획보고서 소장처 종합

행정수도백지계획 보고서의 경우, 공공기관에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기관별 목록조사는 주요 소장처에 소장된 자료를 정리하기 전 단계에 1차적인 수집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부록-16]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소장처 종합 정리

|    | 보고서명                             | A | B | C | D | E |
|----|----------------------------------|---|---|---|---|---|
| 1  | 행정수도건설백지계획의특성                    | · | √ | √ | · | · |
| 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                    | · | √ | √ | √ | · |
| 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슬라이드보고용)           | · | · | √ | · | · |
| 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안)                 | · | · | · | · | · |
| 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안)-보충자료            | · | · | √ | √ | · |
| 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제Ⅰ부)              | · | · | √ | √ | · |
| 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제Ⅱ부)              | · | · | √ | √ | √ |
| 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2000년대의 국토구상       | · | · | · | √ | · |
| 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교통체계분석과교통수단선정에관한연구 | · | · | √ | √ | · |
| 1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국사지구지질조사           | · | · | · | · | √ |
| 1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국토재편성의기본구상         | · | · | √ | √ | · |
| 1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금강본류부 수문조사         | · | · | √ | √ | √ |
| 1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단계별 건설계획(부록)       | · | √ | · | · | √ |
| 1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단계별건설계획            | · | · | √ | √ | · |
| 1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규모와 도시비용         | · | √ | √ | √ | · |
| 1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반조성계획           | · | √ | √ | √ | · |
| 1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본구조계획           | · | · | √ | √ | · |
| 1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기본구조계획(모형Ⅰ)      | √ | √ | √ | √ | · |
| 1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문제와대책            | · | · | √ | √ | · |
| 2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도시조경·식재계획          | · | √ | √ | √ | · |
| 2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민간기업의효율적참여방안       | · | · | √ | √ | · |

|    | 보고서명                           | A | B | C | D | E |
|----|--------------------------------|---|---|---|---|---|
| 2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새도시의유통구조         | · | · | · | · | · |
| 2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 | · | · | · | · |
| 2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업무상업지구건축물배치연구    | · | · | · | · | · |
| 2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외국신수도와 행정수도계획의비교 | · | · | · | · | · |
| 2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의 보완연구            | · | · | · | · | · |
| 2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의 특성              | · | · | · | · | · |
| 2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의특성연구(중간보고)       | · | · | · | · | · |
| 2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이전계획             | · | · | · | · | · |
| 3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인력·자재 수급 및 이전계획  | · | · | · | · | · |
| 3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 | · | · | · | · |
| 3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자원조달계획           | · | · | · | · | · |
| 3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자원조달방안           | · | · | · | · | · |
| 3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계획           | · | · | · | · | · |
| 3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모형계획(Ⅰ)      | · | · | · | · | · |
| 3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모형계획(Ⅱ)      | · | · | · | · | · |
| 3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단지모형계획(Ⅲ)      | · | · | · | · | · |
| 3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모형계획           | · | · | · | · | · |
| 3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의공장생산화계획       | · | · | · | · | · |
| 40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주택의대량생산화계획       | · | · | · | · | · |
| 41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중심지구공간계획         | · | · | · | · | · |
| 42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중심지구조경계획         | · | · | · | · | · |
| 43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지역냉난방 및 분개처리*    | · | · | · | · | · |
| 44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지역냉난방 및 진개처리*    | · | · | · | · | · |
| 45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토지제도의개선방안        | · | · | · | · | · |
| 46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행정수도광역권개발계획      | · | · | · | · | · |
| 47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행정수도광역권개발기본구상    | · | · | · | · | · |
| 48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현지주민의이주대책        | · | · | · | · | · |
| 49 | 행정수도건설을위한백지계획-후보자선정에관한1차조사     | · | · | · | · | · |
| 50 | 행정수도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 | · | · | · | · |

소장처 : A.국가기록원, B.대한민국역사박물관, C:대통령기록관, D:국토발전전시관, E:국토연구원  
 \* 분개처리, 진개처리 등 입력 작업의 오류로 추정되나 원본의 확인 등을 통해서 정리가 필요한 자료 등

---

## 부록5.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유형

### 사례 : 모두의 건축 소장품

---

#### 1. 개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개관준비과정에서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과 전시가 연계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박물관의 경험을 축적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시소개 홈페이지, 리플릿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구체적인 유물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에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에서 진행된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2020.04.16.-2020.08.02.)는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에 관한 다양한 유물 유형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소장품을 바탕으로 큐레이팅 과정을 거쳐서 전시, 교육, 출판 등으로 진행되는 박물관 시스템과 다르게 소장품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기관, 작가들을 통해서 전시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시소개에서도 “‘건축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전시”임을 밝히고 있다.

개략적인 매체의 시기와 다양성을 살펴보면, 전통건축의 부재에 대한 것으로 승례문의 부재에 대한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승례문의 해체수리의 교체, 화재수습 과정에서 수습된 부재, 잡상들 그리고 중수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도면이나 교육 및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모형 등이 하나의 승례문과 연계된 다양한 유물로 보여주었다.

현대건축에 있어서도 건축가가 사용하였던 도구(김종성의 제도기 세트)를 비롯하여 건축가 설계한 가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건축전시가 보여주었던 도면, 스케치 등에서 벗

어나서 건축, 건축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삼일빌딩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김중업의 도면, 사진을 비롯하여 보수과정에서 제거된 커튼 월, 시공과정에 참여하였던 동경철골교량제작소의 철골구조도면 등을 통해서 당시의 기술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상상하게 하였고 최근의 리모델링 도면들 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과거의 건축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시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2층의 전시공간은 195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설계실, 건축가의 방, 견본실, 모형실, 자료실의 이름으로 각각 건축소장품의 생산물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전시 등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소개된 자료는 소장처 등이 공개되어 있어서 향후 전시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장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아카이브 조사 등에서 시작되겠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서울시립미술관)의 조직과 인력(학예, 전시, 교육, 홍보, 행정 등), 전시협력기관(공간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작품운송, 사진 기록 등) 그리고 초청큐레이터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 □ 전시개요<sup>70)</sup>

### • 전시소개

- 시각예술의 인접장르이자 미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이 제도적으로 수집되고 아카이빙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수집행위에 대한 미래적 형식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전시
- ‘건축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전시
- 국보 제1호 승례문,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같은 전통건축과 김중업의 삼일빌딩 같은 대표적인 한국 현대건축에서 선별된 실물 건축 재료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최초로 전시
- 건축을 수집하는 8개 국·공·사립기관과 40여 명(팀)의 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150여 점의 전통건축과 근현대건축 자료를 선보임으로써 아직은 생소한 한국 건축 컬렉션의 지평을 조망

70) 서울시립미술관(2020),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소개, <https://sema.seoul.go.kr/ex/exDetail?exNo=463118&glolangType=KOR&searchDateType=CURR> (검색일: 2020.5.17.)에서 제시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

- 창작에서 구축, 해체, 재구성까지 건축의 순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
- 초청 큐레이터
  -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대표
- 참여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기흥성뮤지엄, 김중업건축박물관, 목천김정식문화재단, 문화재청, 서울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8개 기관)
- 참여 작가
  - 국형걸(HGA), 금혜원, 김수근(공간연구소), 김승희(경영위치), 김인철(원오원팩토리), 김재경(김재경건축연구소), 김종산·정다운(기린그림), 김주경+최교식(오우재), 김준성, 김중업(김중업건축연구소), 김찬중(더\_시스템 랩), 김호중(ABIM건축연구소), 목천건축아카이브, 문훈(문훈발전소), 박창현(에이라운드), 박천강, 박춘명(예 건축), 박학재(박학재건축연구소), 배기형(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삶짓, 승효상, 안장원(신아건축), 안영배, 원유민+조장희(제이와이아키텍츠), 윤승중, 윤재선(감 매거진), 이소정+곽상준(오비비에이), 이소진(건축사무소 리웅), 이재준(리마크프레스), 이정훈(조호건축), 장윤규+신창훈(운생동), 장영철+전숙희(와이즈건축), 전진홍+최윤희(바래), 정립건축, 정재은, 조민석(매스터디스), 최문규, 최욱(원오원아키텍스), 최진규 (40여 명/팀)
- 자료 협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기록원, 김종성, 김태형, 무애건축/이광노, 송명규, 일양건축/원정수+지순, 정인국, 종합건축, 지용한옥학교/신지용, SK D&D (11명/기관)

## 2. 전시품목록<sup>71)</sup>

[표 부록-17]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품 목록 - 전통 건축, 사물의 편린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복도상부]                                                  |              |              |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선자연                               | 연도미상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제1전시실]                                                 |              |              |
| 보물 제915호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br>공포결구체 : 하층 제공 3점, 첨차 3점, 소로 2점 | 연도미상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기둥                                | 1799년 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서울 윤현궁 아재당                                              |              |              |
| 평주                                                      | 1866년 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익공                                                      | 1866년 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종단면도                                                    | -            | -            |
| [제2전시실]                                                 |              |              |
| 구벨기에영사관                                                 | 1905         |              |
| - 실내건축 부재, 문                                            | 연도미상         |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              |              |
| 모형                                                      | 2000         | 기흥성뮤지엄       |
| 모형 제작 부재                                                | 2018         | 기흥성뮤지엄       |
| 좌측 종단면도                                                 | -            | 지용한옥학교       |
| 좌측 횡단면도                                                 | -            | 지용한옥학교       |
| 우측 횡단면도                                                 | -            | 지용한옥학교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              |              |
| 결구체                                                     | 조선시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행소로                                                     | 1961년 제작(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하층장화반                                                   | 1860년대 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상층 삼재공                                                  | 1396년대 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송례문 복구공중 3D정도 구축 산출도면                                   | 2012         | 문화재청         |
| [제3전시실]                                                 |              |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잡상                                        |              |              |
| 대당사부                                                    | 1861년 제작(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71) 서울시립미술관(2020.5.6.),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 전시리플렛에서 발췌하여 정리

<https://sema.seoul.go.kr/rd/getDetail?museumDataNo=506842>

건축 및 도시분야의 유물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관계기관은 어떠한 관계기관, 참여자들이 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였으나 현대건축에 있어서 건축물명 등은 볼드로 표기하고 시기, 소장표로 분류하였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장품이 전시된 것은 아니며 주요 사건, 프로젝트명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도 유물수집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손행자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저팔계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사화상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이구룡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삼살보살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천산갑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용두                      | 1861년 제작(추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서촉취두                    | 조선시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                |                       |
| 안초공                     | 1860년대 추정      | 전통수리건축기술진흥재단          |
| 안초공                     | 1860년대 추정      | 전통수리건축기술진흥재단          |
| 보아지                     | 1860년대 추정      | 전통수리건축기술진흥재단          |
| 구벨기에영사관(1905)           |                |                       |
| 실내건축 부재, 문              | 연도미상           |                       |
| 실내 디테일, 사진:원오원팩토리/김인철   | 2015           | 원오원 팩토리               |
| [제4전시실] 구벨기에영사관 상설전시실   |                |                       |
| 구벨기에영사관 상설전시실           | 2017           |                       |
| 전시 기획 안창모, 전시디자인 원오원/최욱 |                |                       |
| [제5전시실]                 |                |                       |
| 구벨기에영사관                 | 1905           |                       |
| 실내건축 부재/                | 연도미상           |                       |
| 미술관이 된 구벨기에영사관 인터뷰      | 2015           |                       |
| 영상 : 원오원팩토리/김인철         | 2015           | 서울시립미술관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                |                       |
| 평부연-107                 |                |                       |
| 평부연-104                 |                |                       |
| 평부연-150                 |                |                       |
| 수막새                     |                |                       |
| 잡상 수습편-목재함 No.17        |                |                       |
| 금혜원, 단면 연구              | 2019           | 작가소장,<br>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
| 금혜원, 진행형의 조각            | 2019           | 작가소장,<br>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
| [퍼블릭 프로그램 라운지]          |                |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                |                       |
| 막새 기와 : 수막새, 암막새        | 2013년 복구 공사 제작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주상포 모형                  | 2019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 서울 윤현궁 육사당, 기와 탁본       | 조선시대, 2018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출처: 서울시립미술관(2020), <모두의 건축 소장품> 리플렛, 재구성

[표 부록-18]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품 목록 - 건축 현장, 창작의 흐름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설계실]                      |           |                  |
| [A 1950~70년대]              |           |                  |
| 김종성의 제도기 세트                | 1954년경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
|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배기형            | 1967      |                  |
| 유네스코화관                     | 1967      |                  |
| 외부투시도                      | 1959      |                  |
| 모형사진                       | 1959      |                  |
| 문서철: 구조계산서                 | 1959      |                  |
| 문서철: 시방서                   | 1960      |                  |
| 문서철: 공사일보                  | 1966      |                  |
| 문서철: 마감공사예산조서              | 1966      |                  |
| 단면도                        | 1959~1966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단성사                        | 1958      |                  |
| 경향신문사 사옥                   | 계획 1968   |                  |
| 사옥계획안 도면                   | 1968      |                  |
| 사옥계획안 외부투시도                | 1968      |                  |
| 군사혁명기념 산업전람회 신축공사          | 계획 1968   |                  |
| 중앙도 조감도                    | 1961      |                  |
| 마포장주택                      | 1974      |                  |
| 조감도                        | 1974      |                  |
| 배기형의 구조용 계산자 및 제도용구        | 연도미상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무애건축연구소 이광노의 대한교육문화회관 도면함  | 1965      | 목천건축아카이브         |
| 공간연구소                      |           |                  |
| 김수근, 서울음악당                 | 계획 1962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모형사진                       | 1962      |                  |
| [B 1980~90년대]              |           |                  |
| 김종성의 제도기 세트와 제동용 압인기       | 1970년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
| 세코닉 휴대용 8밀리 줌 카메라 및        | 1964      |                  |
| 코팔 휴대용 8밀리 줌 카메라(K40필름 사용) | 1978      | 서울기록원            |
| 엘리데이드                      | 연도미상      | 서울기록원            |
| 정림건축                       |           |                  |
| 김정식, MBC여의도 스튜디오           | 1982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청사진                        | 1979      |                  |
| 박학재 건축연구소                  |           |                  |
| 박학재, 한양대학교 대강당             |           | 서울역사박물관          |
| 청사진 도면                     |           | (유물번호 : 서기 4858) |
| 신아건축                       |           |                  |
| 안장원, 경상대학교                 |           |                  |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종합기본계획<br>캠퍼스 마스터플랜 조감도<br><b>한국정신문화연구원</b><br>도서관<br>조감도          |                              |                      |
| 리마크프레스<br>이재준, 건축의 문장 (협력 : 윤근주(도면 수작업))                           | 2017                         | 작가 소장<br>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 예 건축<br>박춘명, <b>대한생명보험사옥</b><br>기본계획 책자                            | 1985<br>1979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목동 제 3공원 신축 설계<br>조경, 토목, 건축, 기계 공사내역서                  | 1988<br>1988                 | 서울기록원                |
| 김중업건축연구소<br><b>한국교육개발원 증축공사</b><br>도면, 단면 상세도                      | 1983<br>1981                 | 목천건축아카이브             |
| 김준성<br><b>토네이도 하우스</b><br>엑소메트릭 드로잉<br>중정 전개도                      | 1992<br>1992                 | 작가 소장                |
| [C 2000년대~]                                                        |                              |                      |
| 경영위치<br>김승희,<br><b>포항시 보건소</b><br>단면 디테일 드로잉<br><b>이우학교</b><br>스케치 | 1998<br>1998<br>2002<br>2002 | 작가 소장                |
| 김태형의 제도기 세트                                                        |                              | 김태형 개인 소장            |
| 삶것, 자이로이드 트레포일<br>모형<br>영상                                         | 2020<br>2020<br>2020         | 작가 소장                |
| ABIM건축연구소<br>김호중<br>ABIM건축연구소의 작업들                                 | 2016~2020                    | 작가 소장                |
| 리마크프레스<br>이재준 소장, 건축의 문장<br>협력 : 윤새봄 캐드작업                          | 2017                         | 작가 소장,<br>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 [D 삼일빌딩]                                                           |                              |                      |
| 김중업건축연구소<br>김중업, <b>삼일로 빌딩</b><br>삼일로 빌딩 모형 : 기흥성                  | 1970<br>1969                 | 기흥성뮤지엄               |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사진<br>커튼 월<br>코너 커튼 월<br>삼일로 빌딩 머릿돌<br>삼일로 빌딩 도면집    | 연도미상<br>1969~1970                         | 김중업건축박물관<br>SK D&D     |
| 동경철골교량제작소, 삼일로 빌딩(1970)<br>철골구조도면(1969)              |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정림건축, 삼일빌딩 리모델링<br>삼일빌딩 건축 도면                        | 2020<br>2019                              | 작가                     |
| 원오원아키텍스                                              |                                           |                        |
| 최육, 삼일빌딩 리노베이션 컨셉설계<br>영상 : 원오원팩토리/김인철               | 2020<br>2019                              | Green Oak, SK D&D소장    |
| 도면문서함                                                | 연도미상                                      |                        |
| [E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                                           |                        |
| 매스터디스                                                |                                           |                        |
| 조민석, <b>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b>                            | 2018                                      | 작가소장                   |
| 밤섬 당인리:시민 의견 검토                                      | 2020                                      | 작가소장                   |
| 밤섬 당인리:시민의견                                          | 2019                                      | 작가소장                   |
| 당인리 포디움과 프롬나드 : 4호기 단면투시도                            | 2020                                      | 작가소장                   |
| 당인리 발전소 4호기 3D Scan 시뮬레이션                            | 2020                                      | ABIM Architects/김호중 3D |
| 당인리 발전소 5호기 시뮬레이션 3D Scan                            | 2019                                      | Scan자료 제공; 매스터디스 편집    |
| 당인리 발전소 현황 조사 자료                                     | 2019                                      | 작가소장                   |
| <b>당인리 발전소</b>                                       |                                           |                        |
| 보존될 기존 5호기 기계 배치 단면도<br>4호기 단면투시도                    | 편집2020                                    | 한국중부발전 원도면 소장<br>작가 편집 |
| [건축가의 방]                                             |                                           |                        |
| 김수근, 드로잉                                             | 연도미상                                      | 국립현대미술관                |
| 김중업, 자필 수첩                                           | 1959                                      | 김중업건축박물관               |
| 승효상, 스케치북 2016-1<br>부계사목사유원 첨단 드로잉                   | 2016<br>2019                              | 작가소장                   |
| 최문규,<br><br>스케치 노트, 밤 먹는 닭<br>인도 여행 도로잉 노트<br>스케치 노트 | <br><br>2002<br>2002<br>2004              | <br><br>작가소장           |
| <b>문헌발전소</b>                                         |                                           |                        |
| 문헌<br><br>노트<br>강남역 근처 조개건축<br>조개건축<br>부적랜드          | <br><br>2015-2016<br>2018<br>2018<br>2018 | <br><br>작가소장           |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박천강, 최진규               |          |                                              |
| 안데르센의 책장               | 2013     | 작가소장                                         |
| 천사의 고리                 | 2013     |                                              |
| 박천강                    |          |                                              |
| 이어지는 문                 | 2016     | 작가소장                                         |
| 동굴 이야기                 | 2016     |                                              |
| 어느 화려하고 우울한 꽃의 이야기     | 2016     |                                              |
| 김중업 개인 사진              | 1960년대 초 | 김중업건축박물관                                     |
| 정인국 동창회 단체사진           |          | 서울역사박물관<br>(건축가 정인국 기념사업회;<br>유물번호: 서기 7372) |
| 파르테논신전에서               | 1962     | 목천아카이브                                       |
| 한국건축가협회 제1회 정기총회       | 1966     | 목천아카이브                                       |
| 일양건축연구소                |          |                                              |
| 원정순+지순의 현장감리사진         | 1970년대   | 목천아카이브                                       |
| 근무환경사진                 |          |                                              |
| 정림건축                   |          |                                              |
| 송명규의 근무 환경 사진          | 1968     | 목천아카이브                                       |
| 삼옥빌딩 사무실 풍경            | 1968     |                                              |
| 안영배                    |          |                                              |
| 독락당 사진                 | 1978     | 목천아카이브                                       |
| 통도사 사진                 | 1978     |                                              |
| [건본실]                  |          |                                              |
| 오비비에이                  |          |                                              |
| 이소정, 곽상준, <b>더 일루전</b> | 2018     | 작가소장                                         |
| 금속패널 목업                | 2018     |                                              |
| 사이공간 부분모형              | 2018     |                                              |
| HGA                    |          |                                              |
| 국형걸, <b>미러 볼</b>       | 2019     | 작가소장                                         |
| 목업                     | 2019     |                                              |
| 김재경건축연구소(JK-AR)        |          |                                              |
| 김재경, <b>호텔 바샬트</b>     | 2018     |                                              |
| 목업: 외장패널               | 2018     | 작가소장                                         |
| <b>세 그루 집</b>          | 2019     |                                              |
| 목업: Tree IV            | 2016     |                                              |
| 더_시스템 랩                |          |                                              |
| 김찬중, <b>플레이스원 제주</b>   |          | 작가소장                                         |
| 파사드&가구 모듈              | 2017     |                                              |
| 비디오                    | 2020     |                                              |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모형실]                      |                     |                |
| [A 모형스터디실]                 |                     |                |
| 운생동건축사무소                   |                     |                |
| 장윤규+신창훈,<br>서울 루이비통 매종     | 2012                | 작가소장           |
| 크로노토프 월 하우스                | 2016                | 작가소장           |
| 한내 지혜의 숲                   | 2017                | 작가소장           |
| 이상봉 타워                     | 2018                | 작가소장           |
| By_Product                 | 2001-2020           | 작가소장           |
| SOM, 도곡스타워/ 구조모형:기흥성       | 1995                | 기흥성뮤지엄         |
| 습작모형, 모형 : 기흥성             | 1995/ 1970-2010     | 기흥성뮤지엄         |
| 공간연구소/ 김수근, 경동교회           | 1980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
| 모형                         | 2011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
| 경동교회                       | 1980                | 기흥성뮤지엄         |
| 모형: 기흥성                    | 1990                | 기흥성뮤지엄         |
| [B 모형제작실]                  |                     |                |
| 모형 제작용 수목 재료/ 모형 제작용 도구 세트 |                     | 기흥성뮤지엄         |
| 감 매거진                      |                     | 발행인 : 윤재선      |
| [자료실]                      |                     |                |
| 아카이브 체계와 관련 도서, 전시 도록      |                     |                |
| 아카이브 박스와 지관통               |                     |                |
| 종합건축 이승우의 도면 지관통           | 1970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조호건축                       |                     |                |
| 이정훈, 헤르마주차빌딩               | 2010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모형                         | 2010                |                |
| 오우재건축사무소                   |                     |                |
| 김주경+최교식, 청산도방문자센터          | 2010                |                |
| 모형                         | 2014                |                |
| 향토역사문화전시관                  | 2012                |                |
| 모형                         | 2014                |                |
| 청산도 느낌섬 여행학교               | 2013                |                |
| 모형                         | 2014                |                |
| 제이와이아키텍츠                   |                     |                |
| 원유민+조장희, 강진 산내들 아동센터       |                     |                |
| 목동 523                     |                     | 목천건축아카이브       |
| 덕산 W-Building              |                     |                |
| 사진 : 황효철                   | 2014                |                |
| 목천건축아카이브                   |                     |                |
| 안영배, 김종성 구술 영상 시리즈         |                     | 목천건축아카이브       |
| 김중업건축연구소                   |                     |                |
| 김중업,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 1988<br>(계획 : 1984)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전시품                               | 시기        | 소장처      |
|-----------------------------------|-----------|----------|
| 도면집                               |           |          |
| 건축사사무소 리옹                         |           |          |
| 이소진, <b>윤동주문학전시관</b>              | 2012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스케치                               | 2011      |          |
| 와이즈건축                             |           |          |
| 전숙희, 장영철, <b>Layered Ordinary</b> | 2015      | 목천건축아카이브 |
| 사진 및 도면집 보관함                      | 2016      |          |
| 승효상                               |           |          |
| 승방 탁자                             | 2014      | 작가소장     |
| 수도사 의자                            | 2014      |          |
| 승방 탁자 드로잉                         | 2014      |          |
| 정재은, 건축가의 길                       | 2010      | 작가소장     |
| 기린그림                              |           |          |
| 김종신, 정다운                          |           |          |
| 더_시스템 랩, 황두진 건축영상                 | 2015~2019 |          |
| 에이라운드                             |           |          |
| 박창현, <b>장동 라임 빌딩</b>              |           |          |
| J-L01                             |           |          |
| J-T01                             |           |          |
| J-C01                             | 2017      | 작가소장     |
| J-C02                             |           |          |
| J-S01                             |           |          |
| J-S02                             |           |          |
| 매스터디스                             |           |          |
| 조민석                               |           |          |
| <b>매스터디스 사옥</b>                   | 2017      | 작가소장     |
| <b>FREEZE!</b>                    | 2019      |          |
| 김준성, <b>이타쿠라 주택</b> 실내 디자인        | 1993      | 작가소장     |
| 가구 드로잉                            | 1992      |          |

출처: 서울시립미술관(2020), <모두의 건축 소장품> 리플렛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시기, 소장처별 정리 및 건축물명 볼드체 표기 등)